

3-7-2019

## 선교적 제자훈련의 실제적 방안 연구: 행복한제자교회를 중심으로

Hyun Ki Lee 이현기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

### Recommended Citation

이현기, "선교적 제자훈련의 실제적 방안 연구: 행복한제자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9.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mailto:archives@fuller.edu).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A PRACTICAL DISCIPLESHIP TRAINING PLAN FOR THE MISSION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HAPPY DISCIPLE CHURCH**

written by

**HYUN KI LE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

Euiwan Cho



---

Wong Gil Shin

March 7, 2019

**A PRACTICAL DISCIPLESHIP TRAINING PLAN FOR  
THE MISSION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HAPPY DISCIPLE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HYUN KI LEE**

MARCH 2019

선교적 제자훈련의 실제적 방안 연구  
-행복한제자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조 의 완 교수

이 현 기

2019년 3월

Abstract  
A Practical Discipleship Training Plan for the Missional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Happy Disciple Church  
Hyun Ki Lee  
Doctor of Ministry  
2019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study began from the recognition of a problem – that the Korean Church discipleship training has not been producing true disciples even though it has contributed greatly to church growth. Such ‘discipleship training’ in the Korean Church has brought many benefits such as 1) teaching proactive attitude of faith for practical fruits and transformation for a believer’s life, 2) motivating church members for robust participation in church ministry, 3) bearing the fruits of evangelism, and etc. However, this discipleship training has unfortunately become a tool for church growth and its content reduced into a program rather than teaching public discipleship.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and proposes missional discipleship training based on theories of the missional church as an alternative that can overcome limits and weaknesses of the stagnant Korean Church discipleship training. The results show that this missional discipleship training allows church members to personally and communally participate in ministries of the Kingdom of God as proactive social and cultural responsibility, without restricting discipleship and its sphere of influence into personal piety or intra-church ministry.

Chapter 1 is the introduction that writes research motive, purpose, method and scope. Chapter 2 survey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Korean Church discipleship comprehensively, as well as its accomplishments and limitations. In the 1960s, discipleship training was headed by the Navigators and continued to grow through college campus ministries in the 1970s. Discipleship training started to become popularized as the graduates of the campus ministries began becoming pastors applying what they have learned on campuses into local churches. Particularly, Pastor Oak Han-Eum widely disseminated into the Korean Church a discipleship training program he developed based on core principles and experiences of mission organization discipleship training, as well as unique contexts of

each local church.

Chapter 3 discusses missional ecclesiology and missional discipleship training in order to demonstrate the latter as an alternative overcoming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existing Korean Church discipleship training and to propose basic ministry principles based on missional discipleship. Missional discipleship training based on missional ecclesiology allows the current discipleship training to overcome dualistic spirituality, biased discipleship, individualized faith life, and etc. It also provides theological basis for Christianity to have social responsibility and refreshes perspectives for existing discipleship training process, content and scope. Thus, this chapter proposes a new paradigm of discipleship training – its purpose and main characteristics – and new principles and methods of missional discipleship training.

Chapter 4 compares and analyzes three cases of representative churches which are systematically practicing discipleship training, and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to the missional discipleship training spelled out in Chapter 3. The three cases are: 1) Sarang Church, which became the representative church of Korean Church discipleship training by first applying and settling discipleship training concept introduced by campus mission agencies, 2) Nadeulmok Church, which has been founded in the center commercial area of a city based on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in 2001 pursuing missional church there, and 3) Happy Disciple Church, which is pastored by this author, examining in depth its ministry philosophy, and purpose, content and programs of its discipleship training.

Chapter 5 points to practical methods of missional discipleship training resulting from Chapter 3's theoretical findings of missional discipleship training theories based on missional ecclesiology and Chapter 4's church cases. These methods are more comprehensive in scope than the existing discipleship training of the Happy Disciple Church, covering theological blindspots and missional discipleship deficiency of its core discipleship principle and methods.

Theological Mentors: Euiwan Cho, PhD

Wong Gil Shin, PhD

## 감사의 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논문 지도를 직접 맡아 주셨고 논지를 분명하게 잡아 주셨으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조의완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논문의 주제와 논지를 정하는데 도움을 주시고 부심으로 좋은 평가를 해 주신 신웅길 박사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미국에 수업을 받으러 갈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손수 음식을 만들어 섬겨 주신 허원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 드립니다.

박사과정의 시작부터 논문을 마칠 때까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로 함께 해 준 행복한제자교회의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옆에서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며 수고하는 평생의 동역자인 아내 김숙희 사모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임용 시험 준비로 바쁜 가운데서도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격려해 준 사랑하는 딸 은진이와 군생활을 잘 마치고 복학하여 열심히 공부하여 기쁨을 준 사랑하는 아들 은찬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2019년 3월 이현기

##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성과와 한계.....	5
제 1 절 한국교회 제자훈련.....	5
1. 제자훈련의 태동.....	6
2. 제자훈련의 발전.....	8
제 2 절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성과와 한계.....	9
1.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긍정적 성과.....	10
가. 평신도의 재발견.....	10
나. 목회자의 목회철학의 변화.....	12
2.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의 문제점 및 한계.....	13
가.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구분.....	13
나. 프로그램 중심적 제자훈련.....	18
다. 공동체성의 문제.....	19
라. 교회 성장 중심적 제자훈련.....	21
마. 편향된 제자도와 신앙의 사사화(Privatization).....	24
제 3 장 선교적 교회론에 입각한 선교적 제자훈련.....	28
제 1 절 선교적 교회론.....	29
1. 선교적 교회론의 태동과 발전.....	30
2. 선교적 교회의 정의.....	34
3. 선교적 교회의 특징.....	36
제 2 절 선교적 제자훈련.....	41
1. 선교적 제자의 이해.....	42
2. 선교적 제자훈련의 목적.....	43



3. 선교적 제자훈련의 주요 특징 .....	44
4. 선교적 제자훈련의 목회과제.....	50
가. 목회철학.....	51
나. 교회론의 역할.....	52
다.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 .....	54
5. 선교적 제자훈련의 원리와 방법.....	58
제 4 장 사례연구 .....	65
제 1 절 사랑의 교회.....	65
1. 목회철학.....	67
2. 제자훈련의 목적과 내용 .....	68
3. 제자훈련 프로그램.....	68
가. 제자훈련.....	69
나. 사역훈련.....	72
다. 전도폭발 훈련.....	74
라. 순장반 교육.....	74
4. 분석 및 평가.....	74
가.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의 장점.....	74
나.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의 단점.....	75
제 2 절 나들목교회.....	76
1. 목회철학.....	77
2. 제자훈련의 목적과 내용 .....	79
3. 제자훈련 프로그램.....	81
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81
나. 풍성한 삶의 첫걸음.....	82
다. 하늘가족디딤돌.....	83
라. 풍성한 삶의 기초.....	83
마. 언약가족 디딤돌 .....	84
바. 헌신가족 디딤돌 .....	84

4. 분석 및 평가.....	85
가. 나들목 교회의 제자훈련의 장점.....	85
나. 나들목교회의 제자훈련의 단점.....	85
제 3 절 행복한제자교회.....	86
1. 목회철학.....	86
2. 제자훈련의 목적과 내용.....	88
3. 제자훈련 프로그램.....	89
가. 전도성경공부.....	89
나. 기초 양육.....	93
다. 제자 훈련.....	94
라. 사역 훈련.....	95
마. 선교관 사역.....	96
바. 생활훈련관 사역.....	96
4. 분석과 평가.....	96
가. 행복한제자교회 제자훈련의 장점.....	97
나. 행복한제자교회의 제자훈련의 단점.....	97
제 5 장 선교적 제자훈련의 실제적 방안.....	98
제 1 절 목회철학.....	99
제 2 절 제자훈련의 목적과 내용.....	100
제 3 절 선교적 제자훈련의 실제적 방안.....	101
1. 기초 양육.....	101
가. 전도성경공부.....	102
나. 구원의 확신.....	103
2. 제자훈련.....	104
가. 훈련의 자세.....	105
나. 일대일 양육.....	106
다. 그리스도인의 주재권.....	107
라. 성경 읽기.....	109

마. 성경공부.....	111
바. 기도.....	112
사. 교제.....	113
아. 복음전파와 전도훈련.....	114
자. 큐티 훈련.....	115
차. 예배 훈련.....	116
카. 세계비전.....	117
3. 사역 훈련.....	118
가. 제자삼기.....	119
나. 사회적 책임 실천.....	120
다. 리더십.....	121
라. 단순한 생활방식.....	123
마. 성품훈련.....	123
바. 일상의 제지훈련.....	125
사. 선교 교육.....	125
아. 홈트레이닝.....	127
자. 생활훈련.....	127
차. 그리스도인의 직장생활.....	128
제 6 장 결론.....	130
제 1 절 논문의 요약.....	130
제 2 절 논문의 의의와 과제.....	132
참고문헌.....	134
Vita.....	140

# 제 1 장

## 서 론

### 제1 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한국 교회는 1960년대부터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 기독교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폭발적인 성장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런 가시적인 성장의 주역들은 다양하게 거론되었다. 필자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분야를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교계에서 제자 훈련이 시작된 지 50여년이 되었다. 1960년대부터 네비게이토선교회를 필두로 시작된 이 운동은 1980년대 이후에는 옥한흠 목사와 사랑의 교회 사역을 통해 한국 교회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 1990년대를 거쳐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제자훈련은 ‘교회 성장’ ‘평신도 활용’ ‘소그룹 성경공부’ ‘양육의 활성화’ 등과 맞물리며 목회자들 사이에 전략적 사역의 총아로 부각되었다.<sup>1</sup>

그러나 최근 들어 제자 훈련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나빠졌고 예전만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0여년 전부터 제자 훈련을 강조하던 대형 교회들의 목회자들의 실망스러운 행보로 인해 더욱 제자 훈련에 대한 열기가 식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꽤 많은 사역자들이 제자훈련을 지난 시대의 한물간 무용지물로 여긴다. 실제로 총신대학교에 개설된 제자훈련 과목의 수강생이 크게 줄었고, 빈자리가 없어 갈 수 없었던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세미나가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무엇보다도 제자 훈련이 자기 사람을 만들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또 다른 도구로 전략했기 때문이며,

---

<sup>1</sup>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 교회 제자훈련 미래 전망 보고서* (서울:IVP, 2016), 9.

참된 제자를 양산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자훈련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나 편견, 왜곡된 적용 등으로 제자훈련 자체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수님이 3년간 실시한 제자훈련의 모범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분의 지상 명령(마 28:18-20)을 이행할 때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다.<sup>2</sup> 한국교회에서 실시되었던 ‘제자훈련’은 그동안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역동적 신앙의 자세를 배우게 하여 신자의 삶에 나타나야 할 실제적인 열매인 삶의 변화들을 가져오게 하였고 평신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사역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등 여러가지 긍정적인 유익들이 많았다. 반면에 제자 훈련의 한계로는 교회의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고, 제자 훈련 내용 가운데 공적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나 훈련이 거의 전무하고 제자도가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축소되는 등의 요인들을 제시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제자훈련의 문제점은 교세 성장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는 제자도의 부재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제자훈련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해 보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한국 교회가 지나친 제도화와 세속화로 인해 쇠락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며 그 대안으로 ‘선교적 교회’를 들고 있는 것과 같이 현재의 정체된 한국 교회의 제자훈련의 한계와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교적 제자훈련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선교적 제자훈련의 실제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교적 교회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서구 교회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갱신운동으로 선교학적 관점에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재조명하며 발생한 신학적 지성운동이다. 선교적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교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 세상을 섬기며 잃어버린 영혼들의 전인적 구원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적 공동체를 의미한다.<sup>3</sup> 필자는 서구 교회에서 제시된 ‘선교적 교회’가 제자훈련의 침체와 왜곡으로 씨름하는 한국 교회에도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선교적 교회’가 교회의 외적 현상이 아닌 본질을 깊이 있게 다

<sup>2</sup> Michael J. Wilkins, *제자도 신학 (Following the Master)*, 황영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5), 535.

<sup>3</sup> 이상훈, *처치 시프트* (서울: 위십리더, 2017), 58.

루기 때문이다. 선교적 교회에서는 성도의 삶이 선교적으로 성숙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성도의 삶이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그의 신앙, 삶의 모양, 사교의 모든 부분이 선교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선교적 교회론은 성도를 향해 선교적 삶으로의 변화된 제자도를 요구한다. “예수께 나아가 그분의 주 되심 아래 살며 그분의 능력과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열방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선교적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sup>4</sup> 선교적 교회론은 성도들이 선교적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선교적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한다. 결국 선교적 제자 훈련은 양적 성장에 치우침, 프로그램화된 제자도 등의 기존 제자훈련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제자도를 회복, 실천하도록 해 줄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중심 주제는 선교적 교회론에 입각한 제자훈련 개발이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를 양산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이는 제자 훈련이 프로그램화 되었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또 다른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그 대안으로 세상에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적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선교적 제자훈련이 기존 제자 훈련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라고 보고 기존 교회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 본 뒤 제자훈련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교회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의 문헌 자료와 선교적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교회들의 사례들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며, 그 본질에 따른 제자 훈련의 대안적 모델로서 선교적 제자 훈련을 제시하고 또한 선교적 제자훈련의 실제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6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sup>4</sup> 이상훈, *처치 시프트*, 191.

1 장에서는 서론의 영역으로 연구 목적을 서술하고,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정하여 본 연구의 중요성을 다룬다.

2 장에서는 한국 사회 및 교회와 연관된 제자 훈련의 의미들을 살펴 보고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성경적 연구를 통해서 기존 제자훈련을 분석하여 한국교회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성과와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3 장에서는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제자훈련에 대해서 다룰 것이며, 선교적 교회론에 입각한 진정한 제자도, 선교적 제자의 삶과 특성, 선교적 제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자 한다.

4 장에서는 필자가 담임 목회하고 있는 행복한제자교회와 선교단체를 통해 소개된 제자 훈련 개념을 지역교회에 처음으로 접목하고 정착시킨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대표적인 교회인 사랑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나라 복음에 기초해서 교회를 개척하여 도시의 중심인 상업지역에서 선교적 교회를 실현하고 있는 나들목교회의 사례 연구로 3 장에서 정리된 선교적 제자 훈련과 비교할 때, 각각의 교회 제자훈련이 갖고 있는 장단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5 장에서는 3 장의 이론 연구와 4 장의 사례 연구의 결과로서 구체적인 선교적 제자훈련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6 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제시하고 건강한 모습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음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 제 2 장

###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성과와 한계

20 세기 후반부터 한국의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시행되었던 제자훈련은 1980 년에서 1990 년대를 거치면서 서서히 한국 교회에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 교육을 위해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 교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제자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역동적 신앙의 자세를 배우게 하여 신자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실제적인 열매인 삶의 변화들을 가져오게 하였고,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사역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등 한국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유익들을 누려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980 년대는 ‘제자화’에 기초한 목회가 하나의 모델로 제시될 정도 였으며 많은 목회자들이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 부흥’에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제자훈련이 교회의 양적 성장에도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제자 훈련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나빠졌고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한 세대에 걸쳐 부흥 성장의 원동력을 감당했던 제자훈련에 대해 이제는 점검해 볼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국 교회 제자훈련의 태동과 발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제자훈련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 제 1 절 한국교회 제자훈련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지상명령(마 28:19-20)에 나타나 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체를 통하여 열두 제자를 훈련시키는 일에 목회의 삶을 집중시켰다는 사실에서도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프랜시스 코스그로브는 예수님의 지상사명을 우리의 모든 활동이 제자를 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며 지상명령 안에서의 교회를 강조했다.<sup>5</sup> 곧 교회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을 이어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노력을 쉬지말아야 한다. 제자훈련은 한국교회 안에서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이어받기 위한 고민 속에 탄생했다. 본절에서는 제자 훈련의 태동과 발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 본다.

### 1. 제자훈련의 태동

제자훈련은 한국 교회의 근대적 발전에 여러모로 큰 기여를 했다. 한국교회는 선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초대교회 이후 진행되어 온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마 28:19-20)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제자훈련은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이어받기 위한 고민 속에서 탄생했다.

제자훈련이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훈련시킨 것에서 착안한 평신도 운동을 말한다. 곧 회심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더욱 제자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독교 정신에 더욱 충실한 사람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제자훈련이라는 말이 실제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어부들을 불러 제자로 삼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르치신 사실을 그 본보기로 삼고 있다. 교회사에서는 34 세기 경 처음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까지 2년 또는 3년씩 훈련을 시켰던 ‘학습학교’를 현대 제자훈련의 초기 형태로 보기도 한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요리 문답 공부가 이를 계승했고, 20 세기에 와서 본회퍼(Dietrich Bonhoeffer)가 성경의 제자도를 강조하며 다시 제자훈련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학생선교단체에서 시행하던 제자훈련이 1980년대 이후 한국 교회에 소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6</sup>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은 네비게이토선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초반부터 유강식 선생의 지도력 아래 사역해 온 네비게이토선교회는 ‘제자삼기’(Disciple-making)를 사역의 골조로 삼았고, 이를 위해 몇 가지 훈련교재 -SCL(Studies in Christian Living)과

<sup>5</sup> Francis M. Cosgrove, Jr, *제자의 삶 (Essentials of Discipleship)*, 네비게이토 편집부 역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90), 13.

<sup>6</sup> 방선기, *제자훈련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7), 39-40.

DFD(Design for Discipleship) – 가 사용되었다.<sup>7</sup> 주요 사역은 성경암송, 경건의 시간, 성경공부, 정기모임, 수양회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실상 이 모든 것들은 ‘제자 삼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 당시 한국교회는 주로 예배 중심의 사역에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 삼기’, ‘훈련’이라는 어구 자체가 생경하게 들렸고,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선교 단체를 중심으로 국내 제자훈련이 활성화 되면서 한국 교회의 체질적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sup>8</sup> 교회의 청년들과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교회의 교리 공부와 성경공부가 신선한 자극이 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당시 한국교회는 교인 수의 증가에 집착한 나머지 교인에 대한 교육을 등한시한 경향이 강했고 신학교나 교회에서 신학 개념과 교리주의에 중점을 두었을 뿐 평신도에 대한 전인 교육은 매우 빈약했기 때문에 교회 교육을 반성하게 되었고, 이는 제자훈련의 도입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급진적인 경제적 성장과 재건의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도 함께 성장하였다. 그 당시 범국민적 개발운동인 새마을운동과 같은 성장일변도의 정책들과 함께 다수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분위기속에서 한국교회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제자훈련이 교회에 보급되면서 제자훈련은 한국교계와 목회자에게 교회론과 평신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였다.

특히 ‘교회’라고 하는 주제는 매우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대단히 오해가 많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자훈련 이전에 한국교회에서 교회론이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은 비단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교계에서 교회론은 1980년까지도 관심 밖의 주제였기 때문이다.<sup>9</sup> 이 시기에 앞서 1950 년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분열의 고통을 겪어야 했었다. 그리고 1950 년대 초중반은 한국 사회에 나타난 신흥종교들과 이단들이 한국교회에 신학적 논쟁과 대응을 요구하던 큰 도전의 시기였다. 이후에 한국교회는 근대화의

<sup>7</sup> SCL(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은 10 권으로, DFD(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는 6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시리즈 모두 그리스도인의 기본교리와 생활 지침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sup>8</sup> 김영철, *한국기독교 청년학생운동사* (서울: 기독학생회 출판부, 1993), 35-37.

<sup>9</sup>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67-68.

열풍 속에서 함께 신음했으며 교회도 성장 위주의 신학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전후 격변의 시기를 지나 1980 년대에 이르러서야 한국교회는 교회 내부를 돌아볼 여유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제자훈련이라는 작은 파장이 한국교회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가져 오게 하는 동력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점차 제자훈련은 독보적인 “제자훈련운동”으로 표현될 정도의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sup>10</sup>

## 2. 제자훈련의 발전

1960 년대 네비게이토 선교회를 필두로 시작된 제자훈련은 1970 년대에 대학생선교회(CCC, Campus Crusade for Christ), 대학생성경읽기(UBF, University Bible Fellowship), 기독교학생회(IVF, Inter-Varsity Fellowship), 조이선교회(JOY Mission) 등이 함께하였고 또 이들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나 교재들이 더욱 보완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서 활용되어 대학가의 제자훈련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갔다.

학생 선교 단체에서 시행하던 제자훈련의 신학 배경은 둘로 나뉜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와 ‘네비게이토선교회’가 주로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제자훈련이라면, ‘예수전도단’(YWAM)은 오순절 성령운동에 기초한 제자훈련 이론을 형성한다. 앞의 두 선교단체에서 출판된 자료들은 1950 년대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미국의 기독교교육 이론과 거의 일치하는 반면, 1980 년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 예수전도단은 1901 년 미국에서 일어난 오순절 성령운동과 1960 년대 성령의 은사갱신운동을 일으킨 오순절 신학에 기초하고 있다.<sup>11</sup>

제자훈련에 대한 한국교회 이해와 관심은 이런 대학생 선교단체들의 역할에 힘입은 바 크다. 한국교회에 본격적으로 제자훈련이 대중화되기 시작하게 된 것은 1980 년대 초에 이르러 대학생 선교단체 출신의 목회자들이 목회의 길에 뛰어들면서 선교단체에서 배웠던 것을 지역 교회에 적용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CCC 출신의 홍정길 목사(남서울교회), 하용조 목사(온누리교회)가 있었고, 고등학생 사역 단체인 YFC(Youth for Christ) 사역의 경험자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등이 있다.

<sup>10</sup> 국제제자훈련원, *교회와 제자훈련*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85.

<sup>11</sup> 고용수, “제자훈련 사역의 기독교교육적 성찰.” *교육교회* 203 호 (1993): 32-36.

그러나 누구보다 대학가의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던 소그룹 운동을 처음 교회 안으로 들이고 정착시키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은 사랑의교회 옥한흠 목사다. 그는 선교단체 출신은 아니지만 네비게이토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목회자로 그의 제자훈련은 단순히 선교단체의 제자훈련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지역교회의 상황에 맞추어 완전히 새로 구성하였고, 이를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으로 출판하여 한국교회 제자 훈련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sup>12</sup>

1990년대부터 제자훈련은 한국교회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 사랑의교회는 제자훈련을 소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세미나를 기획했고, 이를 전담할 기관으로 1986년 설립된 국제제자훈련원은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인 일명 CAL(Called to Awaken the Laity) 세미나를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최근 110기 세미나를 개최했고, 99기까지 CAL 세미나를 수료한 사역자가 국내 1만 8,482명(65회), 미주 2,225명(21회), 일본 521명(8회), 브라질 777명(4회), 대만 118명(1회) 등 총 2만 2,123명이며, 수료생 중에는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2,083명의 외국인도 포함 되어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 과정을 수료한 사역자들이 모두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한국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자훈련식 소그룹은 현재 거의 모든 한국 교회에 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자훈련은 사랑의교회와 같은 예장 합동 교단이나 장로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도 널리 보급되었다. 실례로 감리교단에 소속된 성남 선한목자교회는 나름의 방식으로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셀교회, G12, D12, 가정교회 등 매우 다양한 소그룹 모델이 한국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특정 모델과 상관없이 제자훈련의 요소가 평신도 또는 지도자 훈련과정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제2절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성과와 한계

<sup>12</sup>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92-93.

제자훈련은 평신도를 깨워 전도, 목회, 그리고 선교 사역에 직접 참여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즉 목회자와 동역자로서 평신도들을 일깨우는 개신교의 원리인 만인 제사장의 구체적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적인 삶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구체적인 도전을 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제자훈련은 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수많은 평신도들을 깨어나게 함으로서 교회의 구원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제는 평신도가 교회 사역에 있어서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참여하는 핵심적인 일꾼이 되고 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심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진리의 증거자, 사랑의 종으로 헌신하는 것처럼 제자훈련을 통해 헌신된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복음의 전파자로 진리의 교사로 사랑의 치료자로 헌신하게 되었다.<sup>13</sup>

이와 같이 제자훈련은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한계 또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신학적 문제와 경험 부족으로 내부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제자훈련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먼저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긍정적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긍정적 성과

### 가. 평신도의 재발견

‘제자훈련’이 한국교회에 남긴 공헌 중 하나는 ‘평신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어준 것이다. 이는 종교개혁의 중심사상인 만인제사장직을 오늘의 목회 현장에 구현한 것이다. 이제까지 평신도라고 하면 단순히 목회의 대상으로 여겨지며 교회 안에서 부차적이고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자훈련은 그 바탕을 평신도 교회론에 두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으로 평신도를 바라보도록 이끌었다. 여기서의 평신도 교회론은 ‘제자훈련’에서 ‘교회론’의 근간이 되는 ‘사도적 교회’의 해석에서 발견할 수 있다.<sup>14</sup> 이에 따르면 사도적 교회의 고백 속

<sup>13</sup>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92-193.

<sup>14</sup> Hans Küng, *교회 (Die Kirche)*, 정지련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 510-512.

에 있는 전 교회는 ‘사도의 후계자’라 할 수 있다. 전 교회는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 모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sup>15</sup> 여기에 한국교회에서 평신도 교회론을 주장하며 평신도 교회론에 기초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한 대표적인 인물인 옥한흠 목사는 전적으로 이 뜻을 수용하여, 평신도의 의미를 헬라어 라오스(laos)에서 단순히 ‘백성’, ‘어떤 백성’, ‘백성의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과 평신도의 본래의 의미가 주님을 모신 선택 받은 자, 혹은 성도, 혹은 제자, 혹은 믿는 자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킨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제자훈련의 중요한 목회 철학으로 접목시킨다.<sup>16</sup> 옥한흠 목사는 수동적으로 교회생활에 임하는 평신도들에게 각자가 사도의 사역을 계승한 소명자임을 일깨워 능동적으로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결심에 이르게 된다.<sup>17</sup> 옥한흠 목사는 성경적인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하고 사도적이기 위해서는 평신도를 포함한 전 교회가 사도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낙후된 기존의 교회론은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고취시키는 데 심각한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취약한 교회론으로는 현대 사회를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지금 잃어버린 성경적 평신도상을 다시 회복하는 용기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며, “다가 오는 예측 불허의 세기를 교회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평신도를 깨우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sup>18</sup>고 주장한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인하여 잠자는 평신도를 깨웠다. 기존 목회자 중심의 독점 목회에서 평신도를 세워 목회자와 함께 협력하는 목회 패러다임을 가져오게 되었다. 평신도 교회론에 입각한 제자훈련이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 되어 있던 것이 평신도를 동역자로 인식하게 되어 성직자와 평신도가 연합하게 되었고 평신도가 성직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교회와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제자훈련의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제자훈련은 기성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들 앞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sup>15</sup> Hans Küng, *교회 (Die Kirche)*, 정지런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 509.

<sup>16</sup>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48.

<sup>17</sup> 국제제자훈련원, *교회와 제자훈련*, 76.

<sup>18</sup> *Ibid.*, 51.

되는 질문을 던졌고, 이러한 본질적인 접근을 평신도 개개인도 가능하도록 이끌어, 교회와 목회자는 평신도를 향해 그 소멸되어가는 개개인의 사명과 소명을 바로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도전을 주었다. 또한 이 일은 평신도가 함께 동참해야 할 사역의 방향성으로 생각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목회자가 교회를 향해, 평신도와 함께 한국 교회를 부흥할 수 있게 열정과 고민을 펼칠 수 있었던 그 중심에 제자훈련이 있었다.

#### 나. 목회자의 목회철학의 변화

제자훈련은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철학을 새롭게 정립하도록 하였다. 제자훈련은 ‘교회론’에 대한 본질적 접근으로 시작되었고 지역교회의 목회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에게 제자훈련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교회의 본질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목회자들의 목회철학에도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목회자는 제자훈련에 대한 목회철학을 확립하여 복음전파의 소명을 다하는 평신도를 양육해야 한다. 목회철학이란 목회자 자신이 교회론에서 나온 목회 신념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목회자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데 이는 그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따라 그의 목회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제자훈련은 교회의 본질과 평신도의 재발견에서 새로운 목회 철학을 찾게 하였다. 옥한흠 목사는 자신의 목회철학은 평신도를 깨워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으로 첫째는 평신도를 훈련시켜 그 인격을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평신도를 훈련시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소명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확실한 철학은 사람을 미치게 한다고 하면서 “제자훈련은 자신이 발견한 목회 철학이 하나님의 손에서 직접 받은 계시처럼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해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강렬한 내면의 불길을 가진 자라야 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9</sup>

제자훈련은 그 실행과정에서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교회의 내외적인 여러 상황에 따라 시행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제자훈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평신도 지도자와 훈련을 거부하는 교회의 전통과 문화가 그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제자 훈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

<sup>19</sup>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68.

애물은 목회자 자신이다. 목회자가 제자훈련을 제대로 감당할 만큼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제자훈련이 뿌리를 내리려면 미쳤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목회 철학이 분명해야 한다. 목회자가 교회를 향해, 평신도를 향해 열정적으로 고민하고, 그들을 향해 전부를 쏟아 붓도록 요구하는 것이 제자훈련이다.

제자훈련이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의 운동으로 자리매김 하기 전에는 신앙적인 성숙은 주로 설교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설교만으로 성도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제자훈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배운 말씀을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실천하도록 돕고 변화를 체험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제자 훈련은 한국교회 내부의 인격적인 성숙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sup>20</sup>

목회자가 먼저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제자훈련으로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목회철학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삶을 위해 다양한 목회방법과 리더십을 개발하여 평신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목회 패턴으로 바꾸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 2.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의 문제점 및 한계

### 가.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구분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현장에는 제자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개념의 혼돈과 문제점이 있다. 한국 교회는 대체적으로 복음의 요구와 제자도의 요구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한국교회에는 그리스도인과 제자가 다르고 제자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선교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던 제자훈련이 지역교회에 도입되면서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روی 아임스는 네비게이트선교회에서 교과서로 인정되는 그의 책, *제자삼는 사역의 기술(The Lost Art of Disciple Making)*<sup>21</sup> 에서, 제자삼는 일의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는데, 전도를 통

<sup>20</sup> 이종표, “제자훈련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 *목회와 신학* 11 월호 (1998): 74.

<sup>21</sup> Leroy Eims, *제자삼는 사역의 기술 (The Lost Art of Disciple Making)*, 네비게이트 출판부 역 (서울: 네비게이트 출판사, 1981), 74.



해서 신자가 되고 그 초신자를 양육하고 훈련시켜 제자가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리로이 아임스는 이 대목에서 제자 삼는 과정은 초신자가 열매 맺고, 성숙하고 헌신된 제자가 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sup>22</sup> 리로이 아임스는 제자는 초신자(convert) 또는 새 그리스도인(new christian)보다는 분명히 다를 뿐만 아니라 더 성숙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제자 훈련은 이러한 개념의 기초 위에서 진행되는 것임을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 번역되어 제자훈련 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윌터 헨릭슨의 *훈련으로 되는 제자(Disciples Are Made -Not Born)* 책의 앞표지에는 책에 대한 부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제자로 삼는 비결”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책의 제목과 함께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이다. 즉, 이 문구는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훈련시켜야 제자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외 제자훈련 초기에 출판된 로이 로버트슨의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의 길*<sup>23</sup>, J.오스왈드 샌더스가 쓴 *제자, 거룩한 열정으로의 부르심*<sup>24</sup>,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의 *제자입니까?*<sup>25</sup>에서도 신자와 제자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제자 개념이 성경적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 번역 출판되는 제자훈련과 제자도에 관한 책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믿음과 제자도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여 복음과 제자도를 구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바로 제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책들이 많이 출간 되었다. 달라스 윌러드의 *잊혀진 제자도*<sup>26</sup>, 테

<sup>22</sup> Leroy Eims, *제자삼는 사역의 기술 (The Lost Art of Disciple Making)*, 네비게이트 출판부 역 (서울: 네비게이트 출판사, 1981), 74.

<sup>23</sup> Roy Robertson,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의 길 (The Road to Discipleship)*, 네비게이트 출판부 역 (서울: 네비게이트 출판사, 1997)

<sup>24</sup> Oswald Sanders, *제자, 거룩한 열정으로의 부르심 (Spiritual Discipleship)*, 채슬기 역 (서울: 하늘사다리, 1997)

<sup>25</sup> Ortiz, Juan Carlos, *제자입니까? (Disciple)*, 김성웅 역 (서울: 두란도, 1989),

<sup>26</sup> Dallas Willard, *잊혀진 제자도 (The Great Mission)*,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15),

이벳 왓슨의 *제자도*<sup>27</sup>, 존 파이퍼의 *예수님의 지상명령*<sup>28</sup>, 마이클 윌킨스의 *제자도*<sup>29</sup>, 존 맥아더의 *참된 무릎꿇음*<sup>30</sup>, 빌헬의 *온전한 제자도*<sup>31</sup> 등이다. 그리고 한국의 저자들이 쓴 옥한흠 목사의 *평신도를 깨운다*<sup>32</sup>와 박순용 목사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sup>33</sup>에서도 복음의 요구와 제자도의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2013년에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번역 출판한 조나단 도슨의 *복음 중심의 제자도(Gospel-Centered Discipleship)*<sup>34</sup>라는 책은 아예 그 제목에서 복음이 제자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마이클 윌킨스, 존 맥아더, 존 파이퍼,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폴 헬름, 달라스 윌러드와 같은 저자들은 그 저술된 책과 설교 등을 통해 이것이 잘못된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지적하였고 오늘날 개혁주의 구원론으로 바라 볼 때 이러한 구분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견이 없다. 하지만 한국 교회에는 여전히 복음과 제자도를 구분하지 않고 그것들을 동일한 것으로 바라보는 바른 신학적 이해가 부족하다. 한국 교회는 대체적으로 복음의 요구와 제자도의 요구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구분하는 가르침과 개념들은 한국 교회에 제자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비성경적인 인식을 조장해 왔고 제자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성장한 사람이며 주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제자훈련을 시행하는 단체나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간에 잘못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조장하기가 쉽다.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제자훈련을 시행해 온 사랑의교회의 옥한흠 목사의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에서는 명쾌하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제자라고 설명한다.<sup>35</sup>

<sup>27</sup> David Watson, *제자도 (Discipleship)*,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2012),

<sup>28</sup> Piper, John, *예수님의 지상명령 (What Jesus Demands from The World)*, 전의우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sup>29</sup> Michael J. Wilkins, *제자도 신학*,

<sup>30</sup> John F. MacArthur Jr, *참된 무릎꿇음 (The Gospel to According to Jesus)*, 한동수 역 (서울: 살림, 2008)

<sup>31</sup> Bill Hull, *온전한 제자도(The complete Book of Discipleship)*, 박규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sup>32</sup>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sup>33</sup> 박순용,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sup>34</sup> Dodson, Jonathan K, *복음중심의 제자도 (Gospel-Centered Discipleship)*, 전의우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sup>35</sup>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37.

하지만 제자 훈련에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그러한 개념이 바르게 드러나 있지 않다. 즉 그 책 안에서조차도 제자훈련에 대한 개념 또는 원리와 훈련의 실제와는 괴리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는 말이다. 제자훈련생 모집 자격 요건을 보면 아래와 같다.<sup>36</sup>

- ① 본 교회에 등록된 지 1년 이상 된 자로서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이 된 자
- ② 새가족 모임을 마친 자
- ③ 연령은 33세에서 50세까지
- ④ 다락방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자
- ⑤ 배우자의 허락을 받은 자
- ⑥ 신체가 건강하고 건전한 직업을 가진 자

책에서는 분명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라는 성경적인 개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생 모집 자격 요건에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제자훈련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되는 것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누구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책에서 가르친 개념과 일치된 방식일 터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6개 항목은 성경에서 언급하는 제자도의 본질을 그 자격요건으로 적용했다기보다 사랑의 교회 자체 내의 제자훈련생 모집 자격인 것이다.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제자라는 성경적 개념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행해지는 제자훈련은 그것과 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필자의 의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찰은 실제로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제자훈련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일반 신자)과 제자를 불가피하게 구분하게 되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제자와 그리스도인의 구별이 사라질 때, 교회가 두 개의 층, 즉 제자와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졌다는 해로운 믿음도 사라진다. 그러기에 제자는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평범한 그리스

<sup>36</sup>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374.

도인이다.<sup>37</sup>

이러한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비성경적인 구분은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교회에서 실제로 제자훈련을 받는 사람은 30 퍼센트 미만이다. 70 퍼센트 이상은 제자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이 제자라는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되어 열등감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에 대한 동기를 제대로 얻지 못한다.

제자와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는 신학은 구원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신학을 낳는다. 그리스도인과 제자가 다르다는 신학은 구원을 통합적인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은 칭의만 받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주님(Lord)으로 믿지 않고 구원자(Savior)로서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가정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성화는 되지 않았지만 칭의만 이루어진 신자의 부류와 칭의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순종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제자와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개념을 수용하는 신학은 불완전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여 한국교회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신학을 전제하는 복음 전파는 제자도와 무관하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교회에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도지인 ‘사영리’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은 제자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이 신학은 제자도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선택사항으로 본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신자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다(마 28:19-20).<sup>38</sup> 제자훈련을 통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제자의 개념이 바르게 세워질 때, 한국 교회에 바른 구원론 신학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제자훈련을 바르게 시행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닮아갈 것이며, 제자로서의 삶의 과정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일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배우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성경적 인식 가운데 제자훈련을 성화의 과정으로 바르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sup>37</sup> Bill Hull, *온전한 제자도*, 31.

<sup>38</sup> Michael J. Wilkins, *제자도 신학*, 278.

또한 이전에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자훈련과정을 마친 사람들이나 제자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비성경적인 우월감이나 교만 또는 열등감과 같은 잘못된 생각들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 나. 프로그램 중심적 제자훈련

한국에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평신도들을 특정 사역에 투입하기 위한 목회적 전략으로 각광 받는다. 제자훈련을 ‘단기간에 훈련 받는 코스’ 나 ‘교회의 직분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한다. 마이클 호튼(Michael Horton)은 그의 책 *위대한 사명(The Gospel Commission)*에서 제자화에 실패한 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오늘날의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기는 커녕 다가오는 영혼들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교회가 양육해 온 영혼들이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는가?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왜 그것을 믿는지에 대해 도대체 알고나 있다는 말인가? 국민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 자녀를 제자화하고 있는가?<sup>39</sup>

제자화의 실패는 프로그램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오히려 제자화가 프로그램화된 것이 문제이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제자도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고, 암기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고 말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제자훈련은 프로그램의 실패가 아니라 제자훈련이 프로그램화된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쉽게도 오늘날 제자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교회의 일꾼을 배출하는 과정이나 혹은 교회성장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변질되어 버렸다<sup>40</sup>.

제자화가 프로그램화 될 때, 제자훈련은 진지하게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고

<sup>39</sup> Michael Horton, *위대한 사명 (The Gospel Commission)* (서울: 복있는 사람, 2012), 19.

<sup>40</sup> 이상훈, *처치시프트* 184.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 이런 경우에 제자훈련의 본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어떻게든 수료할 수 있기만을 바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다. 즉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말았다. 단지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제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일생을 통해 이루어 나가야 하는 성화 과정을 소홀히 여기게 만들었다.

예수께 나아가 그분의 주 되심 아래 살며 그분의 능력과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열방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참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중심에서 선교적 제자를 만드는 사역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

제자훈련의 대표적인 교회인 사랑의 교회 역시 프로그램 중심적 성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즉, 모이는 교회의 입장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성장을 위해 프로그램에 힘을 쏟은 결과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교회의 본질을 훼손시켰다. 이러한 현상으로 ‘선교’와 ‘전도’가 분리되면서 제자훈련이 모이기만 힘쓰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대형교회, 무조건 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성공적인 교회라는 성경의 정신과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며, 또 다른 성장주의를 만들어 냈다.

옥한흠 목사는 *디사이플* 2009년 11월호 대담에서 “은퇴 후 저는 제 목회가 자체적으로 자기모순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너무 키워버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 교회론에 부합한 교회는 너무 비대해져 버리면 그 정신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 목회가 교회론과 제자훈련이 엇박자를 이룬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sup>41</sup>

#### 다. 공동체성의 문제

제자훈련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 평신도 교회론에 입각한 제자훈련이 그동안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 되어 있던 것이 평신도를 동역자로 인식하게 되어 성직자와 평신도가 연합하게 한 것은 높이 평가되지만, 여전히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는 부족

<sup>41</sup> 김명호, “나의 교회론과 제자훈련은 엇박자가 된 것 같다”, *월간 디사이플*, 2009년 10월 9일자, <http://sarangnet.org/archives/8217>

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제자훈련이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전체 교회 공동체를 고려 하기 보다는 헌신된 소수에게 집중하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은 흔히 소수 정예 훈련으로 이해 된다. 제자 훈련을 함으로 훈련을 거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내 사람, 내 팀이라는 의식이 나타나서 타인과 타 그룹과의 공동체 의식의 결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실제로 사랑의 교회 등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이 활성화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도 전체 교인의 3분의 1 미만 정도만 제자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교인들에게는 영적 엘리트 의식을 심어주고 참여하지 않는 교인들에게는 패배감과 열등감을 주어 교인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장하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sup>42</sup>

한 사람이 제자가 되기 위해 영적으로 성숙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별히 일대일 양육에 있어서는 양육자가 피양육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양육자와 피양육자의 관계가 깊어질때 양육자가 피양육자의 생활을 지배하게 되는 수가 있다. 대부분의 제자 훈련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데이빗 왓슨은 “새로운 형태의 제사장 제도”라고 부르면서 우려하고 있다.<sup>43</sup>과거에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평신도들에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제사장으로 여겨진 것이 문제였다면 양육자들이 피양육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도 비슷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일대일 양육은 개인이 개인을 도와준다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개인주의적인 접근으로 인해 교회의 공동체 의식을 잃게하기 쉬운 약점이 있다. 제자 훈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심각한 이유가 바로 이 문제이다.<sup>44</sup>

제자훈련을 위한 교재조차도 대부분 암기와 지식 전달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신앙관을 정립하고 기독교적 사고를 계발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정해진 과정을 습득하는데 치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교회에 사용되고 있는 제자훈련 교재들을 살펴보면 공동체성 형성을 위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주로 개인 경건생활이나

<sup>42</sup> 허남기, “한국 교회 제자훈련의 현황과 문제점”, *교육교회* 203 호 (1993): 10.

<sup>43</sup> David Watson, *제자도* 90.

<sup>44</sup> 방선기, *제자훈련의 이론과 실제*, 54.

교회 안에서의 봉사활동,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제자화하는 내용의 반복인데, 결국 제자화의 목표나 과정이 개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즉 교회 밖으로의 공동체성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삶의 차원과 영역에 대해 제자도를 적용할 수 있는 신앙공동체 훈련 교재나 커리큘럼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공동체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조율하면서 스스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인데, 지도자가 다른 참여자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가는 구조에서는 공동체성이 만들어지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최근 등장한 소그룹 모델에서는 도제 방식의 지도자 개념보다 모임을 인도하는 것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국한하며 가능한 많은 구성원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에 의해 개인의 느낌을 고립시키고 소외시키는 사사화된 신앙의 경향이 조장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폐쇄적인 종교성의 추구는 그 내부 속성상 공동체 삶을 부정하기 때문에 재생산 자체가 불가능하고 설사 그들만의 공동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확장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지평에서 어떤 기여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교회 내부 활동만이 아니라 교회 밖 활동도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평신도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 라. 교회 성장 중심적 제자훈련

한국 교회의 제자도는 주로 교회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었다.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은 제자훈련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의 목회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한다. 그것이 곧 배가의 원리 또는 증식의 논리다. 제자훈련 과정은 마치 제화 공장에서 구두를 만들어 내듯 규격화된 제자를 길러 낼 수 있다고 주장된다.<sup>45</sup> 이러한 증식의 원리가 성경에 기초한 것으로 강조되며, 영적 차이는 차치하고라도 양적 성장이 가능한 것이 제자훈련의 매력이라고 이야기된다. 결국 교회의 양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자 훈련의 목적은 단순히 교회 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sup>45</sup> Leroy Eims, *제자삼는 사역의 기술*, 72-73.



복음을 증거할 제자를 양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초심을 잃고 형식만 남게 되는 교회들이 있다. 제자훈련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목회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성장’이라는 개념은 영국태생으로 인도 선교사인 맥가브란에 의해 만들어 졌다.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를 위한 연구 끝에 교회와 성장이 합쳐져 운동으로 전개된 ‘선교의 목적을 교회성장에 두는 것’을 의미하였다.<sup>46</sup> 이러한 선교적인 흐름이 미국교회에서 교회성장이론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한국교회는 1980 년을 시작하면서 교회성장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이론 중에 신앙성장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제자화’와 ‘완전화’이다.<sup>47</sup> 이 이론의 성경적 근거는 마태복음 28 장 19~20 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으로 그의 제자들이 완전해 질 때까지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방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때, 교회는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이론은 신앙성장 방향이 제자훈련이라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만나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결정적인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훈련의 근본정신이 변질되면서, 교회의 양적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용하려는 목회자들이 점점 늘어났던 것이다.<sup>48</sup> 즉 제자훈련의 정착 과정에서 한국교회의 교회성장과 관련되어 제자훈련이 교회성장의 수단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이론이 한국교회에 들어 오면서 선교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는데, 이는 당시 한국교회와 신학교에 내세울 만한 선교신학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고 교회와 선교를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인식이 팽배했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서 ‘제자화’는 단순히 교인을 늘리는 양적성장의 개념이 아니다. 제자훈련을 분명한 목회철학 없이 성장수단으로만 삼는다면, 그 훈련의 본질은 없어질

<sup>46</sup> 한국선교신학회, *선교학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216.

<sup>47</sup> Donald A. McGavran, *하나님의 선교 전략 (The Bridges of God)*, 이광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33.

<sup>48</sup> 이종표, “제자훈련 사역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 73.

것이며, 교회의 건강한 성장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이론’은 선교학적인 관점이 배제된 채 제자훈련이라는 교회성장의 일종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릴 때, 교회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때부터 교회와 선교가 따로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sup>49</sup>

필자는 교회성장을 목적으로 제자훈련이 수단화되는 상황에 대하여 과연 교회가 질적, 양적으로 성장했느냐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최근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신학 전반 부에서 큰 이슈화된 ‘선교적 교회론’ 관점에서 이전 한국교회의 교회 중심적인 신앙과 특징은 모이는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교회가 교회성장주의에 빠져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공적인 역할 수행에 실패를 했다고 보는 것이다.

성경이 강조하는 제자훈련의 목적은 교회만을 살찌우는 제자가 아니라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파송되는 제자양성이다. 제자의 삶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sup>50</sup> 한국교회 내에서 교회성장이론이나 제자훈련이 선교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과 교회중심적인 경향을 나타냈다는 것이 아쉽다. ‘선교적 교회’ 이전까지는 교회의 이해와 교회에 대한 활동들이 교회중심적 신앙과 특징을 가지는 방주적 교회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국제제자훈련원 *제자훈련* 교재 가운데 보다 실천적인 면이 강조된 제자훈련 3권(작은 예수가 되라)에 나타나는 흐름도 이러한 틀을 가지고 있다. 제자훈련 3권 2과 ‘봉사의 의무’에서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곧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표현된다.<sup>51</sup> 제자훈련은 변화된 성도를 교회를 위한 봉사자가 되도록 동원한다. 이는 이미 선교학에서 말하는 교회와 평신도의 본질과 관계에서 벗어난 것이다. 모이기만을 힘쓰는 교회, 흩어지는 방법을 모르는 교회는 오히려 선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실제로 지금 한국교회만이 아닌 세계교회의 양태들 속에서 성장주의에 빠진 교회들이 때로는 선교의 걸림이 되는 경우가 되어왔던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러한 제자훈련의 모든 과정에 선교적인 이해와 적용점을 깊이 있게 연구했었다면 제자훈련을 시행하는 교회들의 교회중심적 성장주의에서 오는 문제점들은 많이 약화되었을 것이다.

<sup>49</sup> 이후천, *현대 선교학의 이슈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31.

<sup>50</sup> 방동섭, “21세기 현대교회의 위기와 선교적 교회론,” *성경과 신학* 2003년 1월호, 265-266.

<sup>51</sup> 옥한흠, *제자훈련III, 작은 예수가 되라*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26.

### 마. 편향된 제자도와 신앙의 사사화(Privatization)

양적인 성장에 경도된 제자훈련은 그리스도인들을 세계 변혁적 하나님나라 운동에 헌신하게 하기 보다는 지나치게 개교회 중심의 헌신과 충성 운동으로 제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과거 필자가 선교단체에서 섬길 때에 제자훈련은 ‘자기 사람 만들기’식의 훈련으로 주일에조차 지역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소속 단체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충성심을 보이지만, 단체 밖의 사회나 정치, 경제 체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고 탈사회적 활동만 강조했다. 오늘날 교회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성장이나 자신의 신앙 성장, 심지어는 기독교 왕국 형성을 위한 도구들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에서는 신학자들이 제자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순교적 희생의 차원보다 증식과 재생산이 강조되고 있는 한계를 가진다. 데이비드 왓슨(David Watson)은 “제자도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획”<sup>52</sup>이라고 정의하고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지만, 한국교회의 제자도에는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자훈련이 개인 경건훈련을 바탕으로 제자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신앙의 사사화(Privatization) 문제가 제기된다. 훈련이라는 말 자체가 단순한 주입식 교육을 넘어 개인 인격의 변화를 추구하는 전인적 교육이라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개인 차원의 훈련에 머문다는 점이다. 변화된 개인이 주변 환경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을 실천하고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끊임없이 개인 경건 훈련을 반복하며 대부분의 열정을 교회 안에서의 봉사활동에 치중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지 못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부분을 소홀히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 영역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되는 것이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사회 해체와 도덕성의 위기에 직면해도 개인의 구원 문제에만 집착할

---

<sup>52</sup> David Watson, *제자도* 13.

뿐만 교회 밖의 사회 문제에는 무관심하고 사회정의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결과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믿음만을 강조하고 신앙인이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이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지 못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성 상실은 신앙과 생활의 분리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이 문제는 제자로서와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중의 의무와 권리를 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필자가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 할 때, 대학 선교단체들이 지나치게 현실문제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몇몇 교회들은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옥한흠 목사는 평소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역설하며 이를 설교에서 강조하였고, 서울 강남의 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고단한 윤리 도덕적 감화 설교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편 그의 목회가 지역 교회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옥한흠 목사는 사회봉사를 강조하고 자비와 애호 사역을 강조했지만 사회의 불의나 지배 계층의 악행에 대해 도저한 예언자적 질타나 경고성을 발하는 데는 치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sup>53</sup> 일부에서는 이것을 애초에 복음주의 신학 자체가 가지는 한계로 여기기도 한다. 복음주의는 기독교 복음을 지나치게 개인 관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인간의 실존 상황 속에서 제기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역사적인 책임과 사명에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것이다.<sup>54</sup> 하지만 신학적인 논쟁을 떠나 제자훈련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이나 CAL 세미나에서 강조되는 내용 중 우리 사회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은 평신도를 깨워 ‘제자’로 세우는 목적을 여전히 교회 안으로 좁혀 무게 중심을 둔다. 평신도를 깨워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목적은 한 사람의 성도를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 사역자로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상으로 향하는 ‘증인’의 삶보다 교회 안에서의 ‘제자’의 성장과 역량을 강조하는 일에 목적을 둔 훈련 과정이다. 그리고 이들 제자의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

<sup>53</sup> 김희권, “옥한흠 목사(1938-2010)의 하늘 길 묵상”, *복음과 상황* 2010년 9월호.

<sup>54</sup> 곽용수, ‘제자훈련 사역의 기독교 교육 성찰’, *교육교회* 6호(1993): 39.

한 관점은 교회를 위한 ‘봉사’와 ‘전도’ 면에 보다 치중한 모습이다. 한국일 교수에 의하면, 한국교회 평신도 운동의 성격을 평가해볼 때 옥한흠 목사의 평신도 운동을 비롯하여 최근에 한국교회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부분의 가정교회 운동들은 아직 교회 내부적 차원 즉 목회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하였다.<sup>55</sup>

이러한 제자훈련의 ‘제자’에 대한 이해는 한스 쾨의 영향을 받았다. ‘제자훈련’에서 말하는 ‘제자도’의 초점은 ‘사도적 계승’을 따르는 제자이다. 교회가 무속적인 기복신앙과 함께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는 오류를 범하면서 한국교회의 판도는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계승자를 강조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금수저, 흙수저,<sup>3</sup>포세대, 혼밥,<sup>1</sup>인가구라는 말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한국 사회에 대한 젊은이들의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말이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교회는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한국교회는 교인과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대형교회 세습과 교회 분쟁, 유명 대형교회 목사의 성적 비리 등으로 교회의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2017년 실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19.4 퍼센트만이 개신교를 신뢰하고, 불교사회연구소가 2015년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 조사(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1200명 대상)한 신뢰도에선 10.2 퍼센트만 개신교를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56</sup>

한국교회봉사단이 2017년 12월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회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종교’에 대한 질문에 개신교라는 응답이 29.2 퍼센트로 가장 높았으며, 천주교(20.2 퍼센트)와 불교(3.8 퍼센트)가 뒤를 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진정성 있게 하는 종교’에 대한 질문에는 천주교라는 응답이 29.3 퍼센트였으며 개신교가 13.0 퍼센트, 불교가 6.5 퍼센트 순이었다. 두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은 봉사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종교는 개신교(천주교의 1.5 배)라고 인식하지만, 봉사의 진정성 면에서는 천주교(개신교보다 2 배 이상)를

<sup>55</sup> 한국일, *세계를 품는 교회: 통전적 선교신학*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0), 126.

<sup>56</sup> 박준성, “손봉호 장로 “한국교회는 완전히 몰락해야 개혁될 것,” *천지일보* 2018년 7월 10일자,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412>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모순적인 조사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개신교의 봉사 활동에 대한 비호감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봉사활동을 전도 수단으로 삼아서’가 65.2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보여주기 식으로 활동해서’가 24.7퍼센트로 뒤를 이었다는 것이다. 즉 국민 10명 중 6명은 “한국교회 봉사는 전도 수단일 뿐”이라는 인식이었다.<sup>57</sup>

한국교회의 신뢰도와 기독교의 봉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볼 때, 이제는 교회의 어떤 선교적 노력과 방법도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기에는 부족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판단된다. 시대적 이해와 다양한 연구끝에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잃어버린 정체성과 사회로부터의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교회가 지역사회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소통하고 아픔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자기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독교 공동체는 단지 그곳에 모여 집단을 이룬 자들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워진 기관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아래 세워진 공동체다. 따라서 성도들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의 삶의 모습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제자 훈련을 포함한 대부분의 소그룹 교재에서는 우리 사회의 쟁점들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주로 개인 경건 생활이나 교회 안에서의 봉사활동,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제자화하는 내용의 반복인데, 결국 제자화의 목표나 과정이 개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삶의 차원과 영역에 대해 제자도를 적용할 수 있는 교재와 커리큘럼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sup>58</sup> 아울러 진정한 영적 성장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십일조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영적 활동과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영적 성숙함이 궤를 같이 할 때 오는 것이다.

<sup>57</sup> 김경한, “국민 10명 중 6명 “한국교회 봉사는 전도 수단일 뿐,” *데일리굿뉴스*, 2017년 12월 4일자,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78095](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78095)

<sup>58</sup>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교회미래전망보고서* (서울: IVP, 2016), 186.

### 제 3 장

## 선교적 교회론에 입각한 선교적 제자훈련

한국교회가 양적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양적쇠퇴의 길에 접어든 것이 교계의 큰 염려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한국교회가 한국사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질적으로도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목회자들이 더 이상 사회적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부끄럽지만 목회자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지 못한 결과이다. 이러한 한국적인 상황은 교회와 평신도들의 선교적 삶의 부재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고, 그 중에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선교적 교회이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볼 때, 지나친 교파주의적 경쟁으로 인해 교회성장과 해외선교를 통한 교파의 확장에 주력하므로, 교회의 본질과 사역의 경직성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기보다는 교회 자체의 성장과 효율성을 위해 선교를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선교적 교회론이 주장하는 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이고 모든 곳이 선교지라는 주장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sup>59</sup>

지난 40년 가까이 한국 교회의 건강한 자양분 역할을 한 제자훈련도 프로그램 중심적 제자훈련, 교회 성장중심적 제자훈련 등으로 여러 비판이 일고 있다. 필자는 한국교회와 제자훈련의 갱신과 개혁을 위해 지금까지 교회 내의 종교활동으로 편중되었던 제자도는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가치가 드러나도록 순종하는 선교적 제자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필자는 선교적 교회론과 그에 따른 선교적 제자도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

---

<sup>59</sup> 최형근, “선교적 교회의 태동과 발전, 그리고 한국적 적용에 관한 소고,” *현대선교* 14 호 (한국선교정보연구원, 2012), 23.

를 타개할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고 본다.

제자도는 선교적 교회가 실현되는 데 있어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한다. 마치 자동차 엔진 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엔진이 차체에 동력을 전달하듯이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한 실제 동력을 제공한다. 교회는 제자도에 대한 바른 철학을 수립하고 이를 사역에 연동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대위임령은 제자가 되어 증인된 삶을 확장해 나갈 신실한 교회들을 본국과 다른 나라에 건설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선교적 제자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하기에 선교적 제자도에 기초한 사역 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선교적 제자훈련이 기존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문제점이나 한계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선교적 제자도에 기초한 사역 원리를 제시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론과 선교적 제자훈련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 제1 절 선교적 교회론

현재 한국 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선교적 교회 운동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개혁과 갱신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교회는 2000 년 초반부터 소수의 선교학자들을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 운동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그 개념과 서구적 전개와 발전 및 적용 사례들을 소개해 왔다. 최근 선교적 교회가 한국교회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국교회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구 교회 내부의 위기와 문제에 초점을 둔 선교적 교회론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는데 여러 우려가 있지만 선교적 교회가 서구화된 교회를 비판하고 보편적인 교회의 본질과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한국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정한 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선교적 교회의 태동과 발전, 선교적 교회의 정의, 선교적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 1. 선교적 교회론의 태동과 발전

선교적 교회론은 어떤 이론을 체계화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서구 교회의 상황 속에서 선교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응답한 성찰과 탐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교적(missional)’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의해 부름 받아 파송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의 존재 이유와 소명을 강조하는 용어이다.<sup>60</sup> 따라서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것이 선교적이 되도록 삶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이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의 대표를 세상에 파송하는 것이기 보다는 그 자체로 참여하는 것이고 변혁하는 것이다.”<sup>61</sup>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선교적(missional)”이라는 단어는 인도 선교사로 다녀온 영국의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신학에 영향을 받아 1990년대 북미에서 형성된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의 창설과 여러 신학적 토론과 대화를 통해 나온 “선교적 교회: 북미교회의 파송을 위한 비전”의 출간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sup>62</sup>

크레이그 밴 겔더와 드와이트 J. 샤일리는 ‘선교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네가지 주제로 설명한다. 첫째,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둘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관련이 있다. 셋째, 선교적 교회는 기독교 왕국 이후의 포스트모던적이고 세계화된 상황에 참여하기 위해 보내심 받은 성육신적 사역이다. 넷째, 선교적 교회의 내적 삶은 선교에 참여하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63</sup>

선교적 교회의 태동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상황적으로는 서구 기독교 사회의 몰락과 선교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선교의 대두이다. 먼저 선교적 교회는 기독교

<sup>60</sup> 최형근,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 3 월호 (2013): 39.

<sup>61</sup> 한국일, *선교적 교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6), 120.

<sup>62</sup> 최형근, “선교적교회란 무엇인가?,” 39.

<sup>63</sup> Craig Van Gelder and Dwight J. Zscheile,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최동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27-28.

교 세계와의 불편한 관계 혹은 반성에서 출발한다.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세계의 몰락과 영향을 선교적 교회론의 생성으로 이해한다.<sup>64</sup> 서구 교회는 4세기 이후 1,500여년동안 국가와의 연합을 통해서 기독교 왕국의 지위를 누려왔다. 313년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국가 권력과 교회가 결합되어 기독교는 국가 권력의 인정과 보호를 받게 되었고,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더불어 서구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기독교 문화를 지닌 기독교 국가를 자처해왔다. 이러한 체제를 기독교 왕국(Christendom)이라고 한다.

이러한 크리스텐덤 체제하에서 하나의 교회는 지리적 경계인 교구만 존재하게 되고 교회의 선교는 지리적으로 서구 기독교를 벗어나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서구의 우월한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기독교 왕국 모델은 중세 카톨릭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했으며 종교개혁을 거치면서도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문제는 크리스텐덤은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던 역동적이고 혁명적이며 사회변혁적 영적 운동을 제도와 전통과 문화의 형태로 고착시키는 형태의 기독교로 형성시켰다. 이런 사회에서 기독교는 복음의 본질적 의미보다는 기독교 가치를 표방하는 문화형태로 전환되었으며, 교회는 선교적 역동성을 상실하고 기독교 체제유지와 보호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크리스텐덤 형태의 교회에서는 선교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이교도’를 개종하기 위한 활동으로 여겼다는 것이다.<sup>65</sup>

천 년이 넘도록 서구 기독교를 지탱해 오던 크리스텐덤 체제는 계몽주의 이후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에 근거한 거센 세속화와 근대주의의 도전 앞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거기다가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정치적으로는 식민지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하면서 민족주의와 전통 종교가 강조되고, 선교의 주도권이 서구권에서 비서구권으로 옮겨가게 되었으며, 문화적으로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원주의가 유럽을 휩쓸게 되었다. 전 세계로부터 다양한 인종들이 유럽으로 몰려들면서 유럽의 기독교 문화는 해체되고 다종교, 다문화 사회로 급속하게 전

<sup>64</sup> 정승현, “선교적 교회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선교적교회론과 한국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43.

<sup>65</sup> 한국일, “한국적 상황에서 본 선교적 교회”, *선교와신학* 30호 (2012): 80.

환되면서 기독교는 주변 세력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처럼 서구 기독교 사회는 크리스텐덤 시대에 누렸던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 진리로서의 위치가 무너지고 상대주의와 주관주의만 남게 된 것이다. 그것은 단지 유럽의 현상만이 아니라 북미 대륙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대적 흐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한 대안으로 출발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람들은 선교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복수화된 선교(missions)의 의미를 갖게 되면서 구조적이고 활동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이로 인해 기능적 측면에서 교회는 선교의 주체로 인식되었고, 표현 또한 ‘교회의 선교’로 언급되곤 했다. 결국 선교는 교회가 감당하는 많은 기능 중에서 선교라는 일부분의 기능만 드러내는 한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새로운 전환은 20 세기 중반 이후 선교가 교회의 본질 자체로 이해되면서 시작되었다. 20 세기 전반까지 교회중심적 선교패러다임이 지배적이었으나 1952년 빌링엄 선교대회(IMC)에서 제시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의 출현 이후 선교의 주체에 대한 이해에 근본적인 전환이 발생했다.<sup>66</sup> 선교는 교회의 선교 이전에 하나님의 선교로 이해하였다. 즉,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고 아들은 또한 교회를 세상에 파송한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의 선교 이전에 하나님의 선교이다. 이제 교회가 존재함으로 선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존재함으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교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결과로 발표된 보고서가 있다. 1966년 세계교회협의회에 제출한 “선교적 교회(회중)를 위한 구조에 관한 연구”(A Quest for Structures for Missionary Congregations, 1966)이다.<sup>67</sup> 이 연구과정을 통해 확인한 것은 선교는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하나님의 선교이며,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공

<sup>66</sup> 한국일, “선교적 교회의 이론과 실제,” 42.

<sup>67</sup> Rodger C. Bassham, “세계를 위한 교회. 개교회의 선교구조 연구보고서” (“The Church for Others and The Church for The World. A Quest for Structure for Missionary Congregation,”), *Mission Theology*,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67-71.

동체로서 세상을 향해 파송된 공동체이며 이것을 위해 기존의 교회 중심적 패러다임인 하나님-교회-세상을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인 하나님-세상-교회로 바꾸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선교는 교회 자신의 선전이나 확장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나라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세계교회협의회는 뉴비긴이 지적한 바와 같이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세계선교현장의 변화와 무엇보다 유럽사회가 겪은 문화, 사회적 전환에 대하여 새로운 선교접근을 하였으며 이러한 운동과 선교학적 시도는 이후에 뉴비긴과 북미선교학자들의 선교적 교회론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북미에서의 선교적 교회운동은 유럽의 교회와 비슷한 유형의 기독교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해 오던 북미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던 북미 선교학자들을 중심으로 1980년대 중반에 레슬리 뉴비긴의 GOC(the Gospel and Our Culture conversation) 프로그램이 소개되면서부터 태동되었다. 그들은 기독교 후기 사회에 접어들어 북미적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사회에 선교적으로 접근하며 교회가 자신이 속한 사회를 향해 선교적 교회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 북미교회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소비주의로 인해 교회의 공신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GOCN(The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은 북미 교회와 문화에 대한 선교적 통찰과 분석을 담은 뉴스레터와 연구서들을 출판하며 그 영향력을 확산해 갔다. GOCN 참여자들은 “선교적 교회에 관한 대화”의 주요 의제로서 복음과 교회와 문화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sup>68</sup>

이후천은 북미의 선교적 교회 운동에 대해 이러한 선교적 교회 운동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학에 기초하여 전형적인 복음주의적 신학적 경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상황화에 대한 강조점이 훨씬 이전의 복음주의의 경향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동시에 교회중심적인 전통적인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이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존재하는 통전적 선교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선교적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에 기초한 통전적인 선교를 지향하는

<sup>68</sup> 최형근, “선교적 교회의 태동과 발전 그리고 한국적 적용에 대한 소고,” *현대선교* 14호 (한국선교정보연구원, 2012), 15.

것으로 봄으로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본다.<sup>69</sup>

이대헌에 의하면 현재 북미에서 회자되고 있는 선교적 교회론은 포스트모던 사고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대세가 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대적 가치에 기초한 사회문화적 성격을 고수함으로써 문화적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는 북미교회를 일깨우고자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북미의 선교적 교회론은 ‘진리’ 자체에 대한 신학적 담론이기 보다는 진리를 품은 교회가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상황화에 대한 담론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평가함으로써 선교적 교회를 북미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한 북미교회의 대안적 교회론으로 본다.<sup>70</sup>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선교적 교회는 서구 기독교 사회의 몰락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20세기 중반 이후 대두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인하여 태동된 것으로서, 그 결과 서구 선교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 왕국 모델의 교회중심적 선교에서 하나님의 선교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으며,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세상에 보냄 받은 선교적 본질을 지닌 존재로 인식된 것이다.

## 2. 선교적 교회의 정의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교회의 본질은 선교적 존재라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하시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현존과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세상에 보냄 받는 공동체로서 성육신적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종말론적 공동체이다.

선교적 교회의 핵심 개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통치(하나님의 나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그리고 제자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포함한다.<sup>71</sup> 이를 하나씩 살펴

<sup>69</sup> 이후천, “한국에서 선교적 교회론의 접근방법들에 대한 선교학적 성찰,” *선교와신학* 30 집 (장로회신학대학선교연구원, 2012), 50.

<sup>70</sup> 이대헌, “선교적 교회론의 한국적 적용,” *현대선교* 14 호 (한국선교정보연구원, 2012), 38.

<sup>71</sup> 최형근,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39.

보면, 첫째, 하나님의 선교라고 칭하는 *Missio Dei* 는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라틴어로 선교의 기원이 교회나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과거 크리스텐덤 하에서의 서구 교회는 선교의 주체를 교회로 보았기 때문에, 선교를 교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역 기능들 중의 하나로 인식했다.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은 교회로 하여금 왜곡된 선교 주체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준다.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더 이상 선교의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이며,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사역의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와 선교의 이분법을 극복하게 해준다.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은 그동안 선교와 교회가 분리되었던 서구 교회에서 교회와 선교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의 선교활동으로 이해되었다. 요컨대 교회는 선교적 본질을 지닌 선교적 존재라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의 전통적인 선교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온 땅과 열방은 물론이요,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완성 곧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창조에 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1)하나님 나라는 통치이다. 2)하나님 나라는 현재 들어감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다. 3)하나님 나라는 예수 재림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영역이다.<sup>72</sup>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담고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교회 성장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있음은 전통 교회의 존재 이유와 선교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준다. 결국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교회의 성장이나 교회 구조 유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있음을 인식하는 교회이다.

셋째,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제도나 구조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sup>72</sup> George Elden Ladd, *하나님 나라의 복음 (The Gospel of Kingdom)*, 박미가 역 (서울: 서로사랑, 2001), 30.

받은 선교적 존재로 인식함으로 선교를 교회의 한 기능이 아닌 교회의 존재적 본질로 이해하는 공동체이다. 교회가 있기에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의 선교는 더 이상 교회 자신의 선전이나 확장이 아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교회가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순례자적 공동체이며, 증인된 공동체이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에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담지자와 증인으로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섬기라고 보냄 받은 선교지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가운데 더 붙어 살면서 그들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이다.

넷째, 선교적 교회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추구한다. 선교적 삶은 자신을 선교적 존재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선교적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회심과 내적 체험 그리고 개인의 유익, 곧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성취하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되게 된다. 선교적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삶의 자리에 보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는 선교적 존재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특성을 기반으로 선교적 교회의 정의를 정리하면, 선교적 교회론은 기독교 세계 안에서 형성된 교회론의 반성에서 출발한다.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고 교회의 본질이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프로그램화하거나, 선택하거나, 또는 조정할 수 없고 오직 신실한 도구로 참여한다. 선교적 교회의 모든 교인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내는 자가 아니라 보냄 받은 자로 인식한다. 그러기에 그들은 복음을 축소하거나 일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매일 자신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

### 3. 선교적 교회의 특징

선교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특징들을 주요 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주안대학원대학교 정승현 교수는 선교를 교회나 선교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주도하는 국내외의 다양한 선교(missions)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선교로 이해할 때, 선교적 교회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성을 가진다고 말한다.<sup>73</sup>

첫째, 선교적 교회론은 선교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한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자신의 권위로 하나님의 선교를 조정할 수 없으며 선택할 수도 없다. 교회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 교회는 자신의 본질인 하나님의 선교를 인식하고 회복할 때 참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둘째,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가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선교사를 보내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다. 선교적 교회는 특별히 헌신된 사람만을 선택하여 훈련시킨 뒤 선교사로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선교적 교회의 모든 교인은 자신들을 보내는 자(sending)가 아니고, 보냄 받은 자(being sent)로 인식한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교인 모두가 보내진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과 밖에서 그들의 삶은 구별되지 않는다. 선교적 교회는 이분법적인 선교 개념을 극복한다.

셋째, 선교적 교회는 교회 자체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선교를 교회의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간주할 때 복음은 축소된다. 복음의 넓고 깊은 의미는 개인 회심, 구원, 그리고 교회 개척으로 축소되고 만다. 그리고 이렇게 축소된 복음은 교회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축소된 복음은 교회가 선교를 행할 때 교회의 목표가 된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교회 자체가 세운 목적을 위하여 복음을 축소하고 선교하는 것을 거부한다. 선교적 교회는 언제든지 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일 뿐이다.

<sup>73</sup> 정승현, “선교적 교회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54.



‘복음과 문화 네트워크 (The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에서는 선교적 교회의 특징을 다 음 열두 가지 지표로 정리하였다.

- ① 선교적 교회는 복음을 선포한다. 즉, 교회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 하는 것이다.
- ②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배우는데 동참하는 공동체이다.
- ③ 선교적 교회의 삶에 있어서 표준은 성경이다.
- ④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세상과 다른 존재라 고 이해한다.
- ⑤ 공동체 전체와 구성원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교적 소명을 분별하려고 노력 한다.
- ⑥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의해 드러난다.
- ⑦ 선교적 교회는 화해를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 ⑧ 공동체 내부의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지려고 한다.
- ⑨ 선교적 교회는 환대(hospitality)를 실천한다.
- ⑩ 예배는 선교적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기쁨으로 경축하 며 감사하는 중요한 행위이다.
- ⑪ 선교적 교회는 활발하게 공적증거를 한다.
- ⑫ 교회 자체는 하나님 통치의 불완전한 표현이라는 것을 인식한다.<sup>74</sup>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쉬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더 포괄적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 있다.<sup>75</sup> 첫째, 선교적 교회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attractional)하기보다 교회론의 측면에서 성육신적(incarnational)이고자 한다. 성육신적이라는 말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접촉하기 위한 특

<sup>74</sup> Eddie Gibs, Churchmorph: How Megatrends are Reshaping Christian Communiti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201-202.

<sup>75</sup> Michael Frost & Alan Hirsch, *새로운 교회가 온다 (The Shaping of Things to Come)*, 지성근 역 (서울: IVP, 2011), 33.

별한 장소를 반드시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오히려 선교적 교회는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사회의 틈과 갈라진 곳에 스며든다.

둘째, 선교적 교회는 영성적 측면에서 이원론적(dualistic)이 아니라 메시아적(messianic)이다. 세상을 거룩한(종교적) 것과 속된(비종교적) 것으로 나누어 보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본다.

셋째, 선교적 교회는 리더십 측면에서 계급적(hierarchical)이기보다는 사도적(apostolic)인 형태를 취한다. 사도적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6장에서 자세히 묘사한 5 중 모델을 인정하는 리더십 형태이다. 이는 전통적 교회의 삼각형식 계층 구조를 버리고 일반적으로 중요시되는 목양 및 가르치는 은사 외에도 전도와 사도직과 예언의 은사를 자유롭게 인정하는 성경적이고 수평적 리더십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 하고 이원론적이며 계층적인 크리스텐덤 사고에서 확실히 돌아서는 것이다. 초기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는 실천적 측면보다는 이론적이고 원리적 차원에 더 집중했던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원리적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선교에 대한 본질적 고민 없이 스스로를 선교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교적 교회는 그들의 지적처럼 타문화권 선교가 아니며, 아웃리치 프로그램, 교회성장과 효율을 위한 사역, 효과적인 전도, 비전선언문, 비효율적이며 구식화된 교회의 탈피, 고전적 형태로의 회귀, 전통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형식의 교회 등을 지칭하는 대체품 또한 아니다.

지금까지 주요 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필자는 선교적 교회의 특징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 그동안 한국선교운동에 참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선교적 교회의 본질을 좇아서 보다 선교적인 관점과 한국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선교적 교회는 선교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인식한다. 전통적인 교회는 선교의 주체를 교회로 본다. 선교는 교회의 하나의 기능이며 목회 전략적인 차원의 사역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선교 주체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은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공동체로 전환하는 데 핵심이 된다.

둘째,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 받은 선교적 존재로 인식한다. 전통적인 교회는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존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교회를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의 나라로 보았다. 그 결과 교회의 성장이 곧 하나님 나라 확장이었으며, 선교는 이방 가운데 교회 팽창이 되었다. 반면에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 받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는 선교적 존재로 인식한다.

셋째, 선교적 교회는 통합적 통전적 사고를 하는 교회이다. 그동안 전통적 교회안에 있던 다양한 이분법적인 사고는 선교적 교회의 틀 안에서 극복될 수 있다.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 대한 인식을 통해 선교와 교회의 이분법,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 선교지와 교회의 지리적인 구분, 그리고 나가는 선교사와 교회의 성도의 이분법이 극복되는 것이다.

넷째, 선교적 교회는 교회 성장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초점을 둔다. 전통적인 교회의 모든 초점은 교회 성장과 유지에 있다. 그것을 위해 복음을 개인의 회심과 교회의 성장으로 축소했다. 이러한 전통적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선교적인 역동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둬으로써 잃어버렸던 선교적 역동성을 회복시켜 준다. 교회 성장을 위해 모이는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는, 세상으로 흩어지는 선교적 교회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섯째, 선교적 교회는 계속해서 회심하는 성육신적 공동체이다. 전통적인 교회는 어떤 교리나 구조나 틀을 마치 유일한 성경적인 것으로 여긴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전통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긴다. 물론 좋은 전통은 이어받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가 받은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교회가 서 있는 문화 가운데 번역되어야 한다. 세상을 섬기도록 보냄 받은 선교적 교회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화되고 있는 공동체이다. 따라서 복음에 대한 공동체의 지속적인 회심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섯째, 선교적 교회의 선교방식은 성육신적이다. 전통적인 교회의 선교방식은 서구의 유일한 힘에 의한 교회 확장과 문화 팽창이었다. 선교적 교회의 선교방식은 동일하게 선교하시

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방식인데 예수님의 선교방식은 십자가이다. 선교적 교회의 선교방식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치러야 할 모든 대가를 기꺼이 치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의 선교 방식은 십자가 중심의 성육신적인 선교다.

일곱째, 선교적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된 하나님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담지자요 증인된 공동체이며,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적 소망 공동체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존과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도피하거나 미래로의 도피를 막아준다.

교회는 부활의 생명과 권능과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혁명으로 세상을 뒤엎거나 현실로부터 과거나 미래로 도피하지 않는다. 종말론적 소망공동체로서 선교적 교회는 더 이상 우리의 무엇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성취된 하나님 나라가 온 열방에 온전히 성취되어 주님 다시 오실 그 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례자이며 도상에 있는 교회인 것이다.

## 제2절 선교적 제자훈련

선교적 제자도는 선교적 교회가 실현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 많은 운동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유는 그 운동을 이끌어 갈 핵심 엔진의 부재 때문이다. ‘쓰리디엠’(3DM)의 책임자인 마이크 브린(Mike Breen)은 제자훈련이 없다면, 선교적 교회는 소멸할 것이라고 말한다.<sup>76</sup> 결국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교적 제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교회는 예수께서 위임하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선교적 제자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하기에, 선교적 제자도에 기초한 사역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

<sup>76</sup> Kim Hammond & Darren Cronshaw, *보냄받음 (Sentness: Six postures of missional Church)*, 황병배, 이근수 역 (서울: 한국교회선교연구소, 2015), 190.

번 절에서는 선교적 제자의 이해, 선교적 제자훈련의 목적, 주요 특징, 선교적 제자훈련의 목회 과제, 선교적 제자훈련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 1. 선교적 제자의 이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다 (막 1:14-15).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선교를 행하셨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동시에 세상을 향해 보냄 받은 공동체이다. 따라서 구원 받은 모든 성도가 바로 선교사이다. 선교는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이며 구원 받은 자 모두가 선교사로 부름 받았기에 제자도는 바로 삶 자체다. 동시에 제자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존재의 구석 구석에 스며 있는 실존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제자로 사는 자이며, 혼자 있을 때도 육체적, 영적으로 제자도를 실천하는 존재다. 결국 종교적인 일과 비종교적인 일 모두 올바른 선교적 이해 속에서 통합된 하나의 제자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도의 웃음, 태도, 가치 하나하나가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제자의 사명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교회 내의 종교활동으로 편중되었던 제자도는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가치가 드러나도록 순종하는 선교적 제자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선교적 제자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교적인 삶을 사셨다. 예수님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 그분은 말과 행동을 통해 종말론적 왕국의 현존을 이 땅에 가져 왔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술을 통한 선포와 더불어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위해 부름 받았음을 깨달아야 한다.<sup>77</sup> 참된 선교는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위해 밖으로 나아가는 행동과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교적 제자

<sup>77</sup> 이상훈, “하나님 백성의 선교적 사명과 책무,” *선교신학 제36 권* (2014): 191.

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중으로서 자신을 낮추고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뜻한다. 선교적 제자는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분의 지체가 되며, 그분의 방식을 따라 살되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평생에 걸친 배움과 훈련이 요구된다.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세상의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

선교적 제자의 궁극적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이 위탁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이다. 예수께 나아가 그분의 주 되심 아래 살며, 그분의 능력과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열방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선교적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sup>78</sup>

## 2. 선교적 제자훈련의 목적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선교적 마인드를 소유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세상에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무장되어야 한다. 단지 신앙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받은 사명을 실천하는 한 사람의 선교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선교적 제자는 윤리적 탁월성을 통해 세상과 구별됨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의 빛이 된다.

선교적 교회의 제자훈련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적 삶에 대해 도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방법과 자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선교적 제자훈련이 고려해야 할 것은 ‘선교훈련’의 수용이다. 구더는 “성령 안에서 온전

<sup>78</sup> Michael Frost & Alan Hirsch, *Rejesus*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9), 54.

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획된 욕성 없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sup>79</sup>라고 강조한다.<sup>79</sup> ‘선교적 제자훈련’ 안에는 선교훈련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자리한다. 즉, 선교의 목적 아래 선교훈련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아무런 대책없이 세상에 내 보낼 수는 없다. 영국에서 선교적 교회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마이크 브린(Mike Breen)도 “만일 당신이 제자를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은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지만, 교회 자체를 만들려고 한다면 결코 제자를 얻지 못할 것이다.”<sup>80</sup>라고 하면서 선교적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보여 주고 증거하는 자로서의 선교적 사명을 부여받은 청지기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상태를 보여 주는 삶, 그 통치를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선교적 제자를 기르는 것이 선교적 제자훈련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3. 선교적 제자훈련의 주요 특징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의 제자훈련과 비교하여 선교적 교회론에 입각한 선교적 제자훈련의 여러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선교적 교회에서 제자훈련의 의의는 소속 교회나 선교단체의 부흥과 발전에만 두지 않고 항상 하나님 나라의 기여 여부와 정도에서 찾는다. 즉, 제자훈련의 실시와 실행을 통해 자신의 교회나 선교단체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었는가, 눈에 보이는 실적이 어떠한가 등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 훈련을 받은 이들이 얼마나 더 성장하게 되었는지,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지 등에 마음을 쏟는다. 자기 교회의 사역 발전이나 단체의 활성화를 앞세우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적 제자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공적 제자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sup>79</sup> Darrell L. Gudder,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 정승현 역 (서울: 주안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6), 226.

<sup>80</sup> Mike Breen, *Building a Disciple Culture* (Pawleys Island: 3DM Publishing, 2017), 5.

둘째, 선교적 교회는 제자도의 함양과 실천을 교회 생활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자신이 참여하는 삶의 자리 모든 영역과 연관시킨다. 즉 삶의 현장에 머무르며 일상적 영성을 회복하도록 훈련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의 주도 아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기 때문에 은연중에 제자도를 영적 활동이나 교회생활에서만 필요한 것으로 잘못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관여하는 모든 영역 즉, 가정, 학교, 회사 등을 포괄하므로 그러한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이 말이 교회 활동을 소홀히 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중심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를 빼놓고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없다. 단지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이 생활하는 식의 제자도를 탈피해야 한다.<sup>81</sup> 제자훈련이 교회 일꾼 기르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을 길러내기 위한 훈련이 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의 활동이 너무 많아 프로그램 중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므로 일부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지식이나 정보 전달 위주의 학습 방식에서 벗어나 전인격적 변화와 삶에서의 실천을 훈련한다. 기존 제자훈련의 교재를 보면, 암기와 지식 전달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신앙관을 정립하고 기독교적 사고를 계발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정해진 과정을 습득하는데 치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기존 한국교회에서 시행했던 제자훈련은 주로 사역 위주라고 할 수 있다. 교회는 사역자를 세우는 데 치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인격의 변화에 소홀히 한 것이다. 기존 제자훈련의 학습 방식은 주지주의적 학습관으로 여러 피해가 많았다. 선교적 교회의 제자도는 그 최종적 목표를 인격적 변화와 실천적 삶의 구현에서 찾는다. 학습 방식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지식의 적용 및 실천을 중시하는 제자훈련이 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밖으로의 공동체성과 소그룹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한다. 교회의 공동체성이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경의 원리와 부합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제자훈련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기록된 초창기 시대부터

<sup>81</sup> 송인규,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 *한국교회제자훈련 전망보고서* (서울: IVP, 2016), 71.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을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다. 그러나 오늘날 소수정예, 일대일 양육 등의 제자훈련이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그룹 안에서 형성된 공동체성은 소그룹과 교회 밖의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소그룹 구성원들의 사회생활에서는 새로운 규범의 실천이 이행되어야 한다. 교회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훈련된 제자라면 교회 밖에서도 교회의 권위에 지배받아 일반인들과는 다른 더 엄격한 도덕 기준을 따름으로써 일반인들의 삶의 양식과 차별성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소그룹의 ‘밖으로의’ 공동체성은 교회 소그룹이 자체 내의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섭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우면서 시민 조직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인간관계를 계발하고, 지원 집단이나 공동 작업에 필요한 연결망을 발전시킬 수 있다. 소그룹을 통한 사회 봉사 및 사회 참여 활동도 전개한다. 지역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시민 공동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함께 일할 수 있다. 교회의 소그룹이 또 하나의 끼리끼리의 집단이 되지 않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의 구성원들이 사회성을 키우고 유지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다양한 삶의 차원과 영역에 대한 제자훈련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사용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영역은 다차원적이었다. 예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인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자도란 종교적, 영적 차원만을 개발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선교적 교회에서의 제자훈련 영역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에 해당하는 영역을 다룬다. 교회에서 선교적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즉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 가정과 교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을 망라하여 제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남녀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다. 제자훈련과 성경공부는 지성적 훈련에서 체험적이며, 통전적 훈련으로 실제적인 나눔과 적용 그리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훈련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제자훈련은 처해있는 상황에 맞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천편 일률적인 방법으로 교재와 커리큘럼이 진행되었다. 기존 제자훈련의 교재들은 전형적으로 근대적이다. 대량 생산 체제를 염두에 둔 표준적 내용과 구성이다. 우리의 삶이 영적 순례이기에 그에 걸맞는 훈련이 필요하다. 획일적이어서는 안된다. 표준 교육 모델이 적용되어서도 안된다. 전인적인 교육이어야 하고 각 사람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여섯 째, 소수 정예가 아니라 전교인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시행한다. 선교적 교회는 모든 구성원이 다 예수님의 제자이다. 제자이므로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자로서의 삶은 성도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이다. 선교적인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제자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교회의 규모에 따라 분위기가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자훈련은 모두 성도에게 명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제자훈련은 보통 신자들보다 더 헌신된 사람들이나 혹은 직업적인 사역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은연 중에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 제자훈련의 핵심이며, 제자훈련은 모든 신자를 향한 부르심이다.<sup>82</sup> 대부분의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주로 로버트 콜먼(Robert E. Coleman)이 *주님의 전도 계획*<sup>83</sup>에서 밝힌 원리에 따라 소수를 ‘선택’해서 제자훈련을 실시한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12 명을 선발하여 제자훈련을 시키는데 집중하셨지만, 12 명만을 제자 삼으신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썩 짝을 지어 내보내신 칠십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만났던 제자의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목도한 오백여 형제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의 무리 등이 있었다.

선교적 교회는 세상과 함께 해야 한다. 또한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정 다수의 제자화를 시키는 제자훈련이 아니라 교인이라면 모두가 제자의 삶과 사도적 계승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 24-25 절까지 달란트 비유가 나온다. 이 말씀은 교회가 연약한 성도 곧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함부로 여겨 은사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가지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위대한 진리를 가르칠 때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위험한 생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sup>84</sup>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일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갈 6:2)을 명령하셨다. 이 명령은 선교적 제자훈련의 지향점이다. 또한 선교적 제자 훈련은 모든 평신도들이 제자화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유기체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sup>82</sup> Michael J. Wilkins, *제자도 신학*, 278.

<sup>83</sup> Robert E. Coleman, *주님의 전도계획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sup>84</sup> Andrew Murray, *사역과 제자도 (Working for God)*, 임은목 역 (서울: 샘솟는기쁨, 2018), 44.

일곱 짝, 선교적 제자훈련에서 일대일 사역은 소그룹 사역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서로 교차 교제가 필요하다. 일대일 사역은 기존 제자훈련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원리이다. 일대일 사역이란 말 그대로 한 사람을 일대일로 만나 서로 얼굴을 마주하여 삶과 사역 전반에 걸친 일을 나눔으로써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일대일 사역은 개인적으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집중한다. 일대일 사역은 주로 선교단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지역교회에서는 소그룹 사역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일대일 사역은 영적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개인이 개인을 도와 준다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개인주의적인 접근으로 인해 ‘자기 사람 만들기’ 식의 훈련, 양육자와 피양육자간의 경직된 수직관계, 공동체 개념을 약화시키는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어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 일대일 사역은 기본적으로 양육자와 피양육자의 관계가 피라미드 구조로 결합되어 있어서 복종과 헌신을 강요 받기도 하며 심지어 결혼, 가정생활, 주택, 직업, 재정문제, 생활 양식 등에까지 간섭을 받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 양식적 제자훈련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제자양육이 다른 사람들의 삶의 상세한 부분까지도 간섭하고 지도하게 됨으로 개인의 책임, 개인의 성숙, 심지어 개인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게 된다. 더욱더 위험한 점은 제자들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진지하게 의존하는 것 대신에 인간인 리더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sup>85</sup>

기본적으로 양육자와 피양육자는 주종관계가 아니라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동역하는 동반(Partner)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양육자와 피양육자의 관계는 성숙해 가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수평관계 속에서 상호 충성, 상호 헌신하는 동반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최근 등장한 소그룹 모델에서는 도제 방식의 지도자 개념보다 모임을 인도하는 것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국한하며 가능한 많은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일대일 보다 때로는 일대이 또는 삼 교제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하였다.

일대일 사역의 문제는 한 사람의 인도자에게 의존된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그 안에서 양육을 받은 성도의 신앙이 편협하게 되거나 신학적, 성경적 오류가 발

---

<sup>85</sup> David Watson, *제자도* 91

생해도 그것을 알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신학적 관점에서 일대일 사역과 소그룹 사역, 그리고 교회 전체 사역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그룹과 교회 전체적인 사역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교차 교제(cross fellowship)를 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육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도와주는 사람(Helper, 돕는 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당부했고(벧전 5:3),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고후 1:24)라고 하였다.

여덟째, 선교적 제자훈련의 전도는 비그리스도인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그대로 살아냄으로 복음을 빛나게 한다. 사회에서 물러난 교회는 그 사회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없다. 전통적 끌어모으는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반대로 ‘나와서 분리되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러나 우리 삶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미 6:8)데 헌신된 표지를 통해 우리가 다가가려는 사람들 가까이에서 드러나야 한다. 신약 저자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친구들 간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한 것 같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벧전 3:15). 우정의 관계망이 확장될 수 있도록 평상적이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우리 소망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야 한다.<sup>86</sup> ‘사영리’나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같은 전도지를 이용해 일방통행적이고, 비인격적으로 ‘간소화된 기독교 교리’를 전하기 보다는 쌍방 의사소통이 되어야 하며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누되 마치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성육신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계속되는 과정이지 한 번의 결신 사건으로 종료되지 않는다.<sup>87</sup>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인생의 여정 중에 있다. 전도는 단지 영접 기도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

<sup>86</sup> Michael Frost & Alan Hirsch, *새로운 교회가 온다*, 117.

<sup>87</sup> 김선일, *전도의 유산* (서울: SFC, 2016), 46-47.

에게 더욱 가까이 가도록 돕는 것이다.<sup>88</sup>

아홉째, 선교적 제자훈련은 단기간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해야 할 훈련이다. 제자도는 하나의 과정이다. 제자도를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것이 평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자연스럽게 추리할 수 있다.<sup>89</sup> 기존 전통적인 교회에서 제자훈련은 교회의 핵심부로 진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통과례처럼 여겨지고 있다. 선교적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아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세상을 섬기며 잃어버린 영혼들의 전인적 구원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 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며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제자 훈련은 교회가 시행해야 할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것은 교회 사역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오랜 시간동안 교회 안에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현재의 제자훈련은 대부분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하여 단기간 동안 진행된다.<sup>90</sup> 예를 들면, 옥한흠 목사가 설립한 국제제자훈련원의 경우는 제자훈련 32 주, 사역훈련 34 주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처럼 대부분의 제자훈련이 1-2 년의 기간 동안 진행된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훈련을 단기간의 프로그램으로 만들면서 마치 제자훈련이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제자훈련은 단기간에 마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제자훈련에 대한 바른 철학과 목적을 정립해야 한다.

#### 4. 선교적 제자훈련의 목회과제

이 부분에서는 선교적 교회의 제자 양성을 위해서 다루어야 할 어떤 목회 실천 사항들이

<sup>88</sup> 김선일, *전도 가이드* (서울: 도서출판 새세대, 2012), 84-85.

<sup>89</sup> Michael J. Wilkins, *제자도 신학*, 515

<sup>90</sup> 허남기,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현황과 문제점”, 19.

있는지 알아본다.

#### 가. 목회철학

제자훈련이 지역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것은 목회자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들 하기 때문에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으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몰라서 무슨 좋은 방법이 없나 찾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역 교회에서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목회자가 값을 치루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 확고한 목회 철학이 없는 제자훈련은 실패하기 쉽다.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훈련을 자신의 목회철학과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면 장애물이 많다. 제자 훈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평신도 지도자와 훈련을 거부하는 교회의 전통과 문화가 그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제자훈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목회자 자신이다. 목회자가 제자훈련을 제대로 감당할 만큼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제자훈련이 뿌리를 내리려면 미쳤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목회철학이 분명해야 한다.

목회철학은 교회의 비전과 가치와 지역교회로서의 영향력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의 넓이와 깊이와 유연성의 한계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규정 짓는다. 교회의 목회철학이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맞춰져야 하는 이유이다. ‘선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교회의 ‘목회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점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선교적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선교적’ 태생으로부터 이해하는 것은 쉬운 듯 어려운 부분이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설명과 해석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 평신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해진다. 이러한 고민이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목회철학을 만들어 낸다.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자 한다면 목회자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신학적 사유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세계 속의 교회들과 지역교회,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선교적으로 해석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목회철학은 단순한 개념은 아닌 것이다. 흔히 착각하는 목회자 개인의 ‘비전’의 성취를 위한 도구가 되어

서도 안 된다. ‘선교적 교회 제자훈련’을 위한 목회철학은 반드시 ‘선교적’이어야 한다. 목회자는 ‘선교적’이란 말이 낯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그를 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동일한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교회의 세상을 향한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두시는 이유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목회자 개인의 경험적 철학에 따르는 위험한 목회철학의 수립은 없어야 할 것이다.

#### 나. 교회론의 역할

교회론은 기존의 ‘제자훈련’을 이끄는 원동력과 같았다. 옥한흠 목사는 ‘제자훈련’을 수립하면서 ‘교회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만큼 교회와 평신도의 ‘제자화’와는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유학시절 한스 쾅의 교회론에서 지상 교회는 사도의 계승자로서 세상으로 보냄 받은 소명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평신도를 세상으로 보내는 제자훈련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였다.<sup>91</sup>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의 신학적 뿌리는 교회의 사도적 본질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고 적용한 데에 있는 것이다. 교회의 ‘사도성’은 초대교회 이후 교회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관점이었다. 지금의 교회도 ‘사도성’의 연속성 위에 세워져 있다.

하지만, 이전 제자훈련의 사도성과 선교적 제자훈련의 사도성 개념에는 차이가 있다. 기존 제자훈련에서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참된 제자를 구분하기 위한 표현으로 ‘제자’안에 ‘사도적 계승’을 도입한 것이다. 이 ‘사도적 계승’을 따르는 제자가 세상으로 향하는 ‘증인’의 삶 보다 교회 안에서의 ‘제자’의 성장과 역량을 강조하는 일에 목적을 둔 제자훈련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일 교수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평신도 운동의 성격을 평가해볼 때 옥한흠 목사의 평신도 운동을 비롯하여 최근에 한국교회 내에 전개되고 있는 대부분의 가정교회 운동들은 아직 교회 내부적 차원 즉 목회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하였다.<sup>92</sup> 옥한흠 목사는 교회가 사도들의 증거와 사역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이상 그 교회는 사도적임에 틀림이 없다고 확신하였다. 또한 사도적인 교회는 성경에 일치하는 교회라고 보고 있다. 한스 쾅의 말을 인용하여, 전

<sup>91</sup>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88.

<sup>92</sup> 한국일, *세계를 품는 교회: 통전적 선교신학*,

교회가 사도의 계승자라고 강조하고 있다.<sup>93</sup> 이러한 말은 본질적으로 사도에 의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사도적 신앙 고백이 따르기만 하면 ‘사도적’ 교회로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뜻인데,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만 있고 교회만 성장하면 선교적 사명이 다 완수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선교와 선교적 관점에서의 선교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기존 제자훈련 교회론에서는 교회의 확장성을 ‘사도성’이란 표현으로 이해를 돕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은 복음주의적인 선교관의 이해로 한계를 정해버린 것이다. 즉, 교회중심적인 선교관이 ‘사도성’의 한계를 정한 것이다. 즉, 사도적 교회라는 전통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교회를 세우시고 보내시는 본질에서 다름이 있고 한스 킹의 교회론안에서 사도적 교회에는 그 선교적 본질이 강조되지 않고 있다.

레슬리 뉴비긴은 세상을 향하는 교회를 설명하며, 종말론적이고 선교적인 관점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할 일은 각 사람을 이 악한 세대에서 구출하고 다가올 세상을 위해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주장한다.<sup>94</sup> 교회의 본질이 ‘선교적’이란 것을 놓칠 때 교회는 교회중심적 구조로 돌아가게 된다는 뜻이다. 기존 ‘제자훈련’의 교회론을 고수하게 되면 동일한 우려를 낳게 되는 것이다. ‘선교적 제자훈련’에서는 그 교회론이 ‘제자’의 사명과 방향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밴 겔더에 의하면 교회를 본질상 선교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선교에 관한 보다 통전적인(holistic) 사고방식을 제공한다고 보았다.<sup>95</sup> 밴 겔더의 주장을 반대로 생각하면 선교적인 교회의 이해가 없이는 선교에 대한 이해도 지엽적이게 된다는 뜻이다. 요하네스 블라우에 의하면 선교활동은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 중 하나가 아닌, 교회의 모든 활동들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sup>96</sup> 이처럼 기본적인 ‘선교’와 ‘교회’의 이해에 따라서 교회가 역동적으로 세상을 향하는데 힘을 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전 ‘제자훈련’의 교회론에서는

<sup>93</sup>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90-91.

<sup>94</sup> Lesslie Newbigin, *교회란 무엇인가?(The Household of God)*, 홍병룡 역 (서울: IVP, 2010), 178.

<sup>95</sup> Craig Van Gelder, *선교하는 교회 만들기 (The Essence of The Church)*, 최동규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3), 55.

<sup>96</sup> Johannes Blauw, *교회의 선교적 본질 (The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 전재욱, 전호진, 송용조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8), 137.



교회가 ‘제자’를 양육하고 파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는 있겠지만,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참여적인 존재이어야 한다. 본 회퍼에 의하면 교회는 타인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가 된다.<sup>97</sup>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인간적, 세상적 해석들이 교회를 움직이려 할 것이다. 여전히 교회와 평신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는다. ‘선교적 제자훈련’에 있어서 이러한 ‘파송’의 개념은 ‘선교적 사명’으로 교회와 평신도를 세상으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 다.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

전통적인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전환 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가 리더십에 있다. 리더십에 초점을 다시 맞추는 일은 교회의 갱신과 성장에 너무나도 본질적인 것이다. 지도자들이 선교적 관점에서 현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림과 공동체를 이끄는 기술이 필요하다.

오늘날 교회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그 위기는 바로 리더십의 위기에서 기인된 것이다. 교회가 선교적으로 직면해야만 하는, 아니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신앙 공동체의 리더십은 새로운 안목과 창조적 사역을 통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모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도자의 역할과 개념이 재정립되고 새롭고 참신한 사역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기존의 교회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나라로 성도들을 이끄는 견인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이제 논하는 ‘선교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기에 ‘선교적 리더십’의 롤모델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한 마디로 ‘성육신적’ 사역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평신도를 성육신 사건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표적과 증인으로 요구한다.<sup>98</sup>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의 거룩하신 몸

<sup>97</sup> Stephen J. Nichols, 본회퍼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Bonhoeffer on the Christian Life: From the Cross, For the World), 김광남 역(서울: 아바서원, 2014), 74.

<sup>98</sup> Darrell L. Gudder, *선교적 교회*, 275.

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도들에게 자신의 성육신적 사역을 본 받도록 몸소 보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사역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을 배우게 된다. 이 리더십은 목회자 한 사람 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목회자만을 위한 특권의식을 부여함도 아니다. 선교적 교회에서 리더십은 설교와 가르침 그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다.<sup>99</sup>

‘선교적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모든 성도가 그의 리더십을 따르게 만든다. 공동체를 대표하는 리더십과 개인의 리더십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교회 안에서의 질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서로 동역할 때에도 서로 다른 성격, 관점과 주장으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사라질 것이다. 아직도 한국교회는 목회자가 세운 교회의 큰 슬로건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의 제자훈련’에서는 각 개개인의 동일한 ‘선교적 리더십’들이 교회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며, 다양한 사역 가운데서도 더 교회를 활력 있게 할 것이다.

더불어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아니더라도 ‘선교적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리더십이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한국교회는 이미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목회자가 외치는 메시지가 여러 도전들이 성도들의 가슴을 움직이기 어렵다.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목회자의 리더십이 ‘선교사’처럼 되는 것이다. ‘선교적 리더십’을 잘 표현한다면 그는 한 교회를 위한 선교사일 수 있고, 그가 섬기는 공동체는 곧 선교 공동체가 된다.<sup>100</sup>

‘선교적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적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다. ‘선교적 제자훈련’은 리더십에 있어서도 변화된 관점으로 운영될 수 있다. 데럴 구더는 북미 현장에서 선교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방향성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선교적 리더들의 양성은 반드시 깊은 소명의식과 연관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리더십은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규정된다. 셋째, 학문적이고 지적인 역량도 중요하

<sup>99</sup> Darrell L. Gudder, *선교적 교회*, 277.

<sup>100</sup> Ibid., 348.

다.<sup>101</sup> 여기서 한 가지 더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선교적 리더십’이 교회 안에서 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적 제자훈련’은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지역교회 차원의 양육체계 변화를 요한다. ‘선교적 제자훈련’은 ‘제자훈련’의 평신도 리더십의 관점을 교회 안에서 밖으로 변화시켜 발전시킬 수 있다. 특히 이 리더십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동일한 선교적 소명으로 동화된다는 점에서 더욱 미래적이고 효과적이라 하겠다. 한국교회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리더들의 뛰어난 ‘은사’를 강조했다. 그러나 ‘선교적 리더십’은 한 개인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리더십 안에서 작용한다.<sup>102</sup>

선교적 교회의 핵심은 성도들의 제자화, 즉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성도들의 선교적 정체성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뉴비긴은 성도의 선교적 정체성을 다음과 같은 4 단계로 설명했다.

1 단계 :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이 온다.

2 단계 :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모든 곳에서 당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총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단계 : 거기에는 이미 헌신된 자들의 사도적 공동체가 존재하며 그 사역을 실천하고 있다.

4 단계 : 이것은 당신을 향한 삶의 헌신을 요청하는 부름이다.<sup>103</sup>

참된 성도됨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그 가치에 의해 삶이 조정되고 세상 속에서 행해지는 사도적 사역에 동참함을 통해 실현된다. 테리 말틴슨 엘톤(Terri Martinson Elton)은 이를 더 구체화하여 “(1)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의 소명을 이해하고, (2)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들과 공유하기 위한 은사들로 훈련되고 준비된 존재로 자신을 보며, (3)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구원하시는 선교 사역에 참여함으로 세상과 연계케 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힘이 부여된 것을

<sup>101</sup> Darrell L. Gudder, *선교적 교회*, 310.

<sup>102</sup> Ibid., 311-312.

<sup>103</sup> Lesslie Newbigin, *the Finality of Christ* (London: SCM Press, 1969), 57.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선교적 리더십의 발전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sup>104</sup>

즉,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헌신을 하며, 선교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고 이끄는 능력이 바로 선교적 리더십의 핵심이 된다는 말이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리더의 주요 사역이 영향력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그것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라 한다면, 결국 선교적 교회의 운명은 리더십에 따라 그 사역의 정도와 수준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자명한 일이다.

그런 면에서 선교적 교회는 다른 차원, 다른 비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선교적 문화 형성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적 상상력이 성도들 가운데 공유되고 실현되도록 하는 기술이 본 리더십의 주요 과제가 된다. 물론 그러한 변화(transformation)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과정을 필요로 하고, 그 과정은 교회와 공동체의 의식과 문화를 재형성하는 재료가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락스버거는 선교적 리더의 역할을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들을 식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지도자는 회중들이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자신의 계획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 대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 안에서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식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창조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선교적 리더십은 깨우치고 계몽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통 사람들 즉, 모든 성도가 주체가 되어 선교적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sup>105</sup> 선교적 리더십은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예술이 된다.

선교적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초점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전통적 리더십의 일차적 관심이 개인과 조직 자체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선교적 리더십은 나와 우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와 그의 선교(Missio Dei)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교

<sup>104</sup> Terri Martinson Elton, “Characteristics of Congregations That Empower Missional Leadership,” page 178. in *The Missional Church & Leadership Formation*. Edited by Graig Van Gelder.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9.

<sup>105</sup> Alan J. Roxburgh & Fred Romanuk, *The Missional Leader* (San Francisco: Jossey-Bass, 2006), 23-29

회에 기초한 리더십(*Church-Based Leadership*)에서 왕국에 기초한 리더십(*Kingdom-Based Leadership*)으로의 변환을 요구한다. 따라서 선교적 리더들은 성도 개인과 그들의 공동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황(*Context*)을 식별하고(사명), 개인과 공동체의 은사를 발견하며(사역), 섬김과 복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헌신) 공동의 문화를 형성하고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교적 리더에게는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요구된다. 하나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역에 민감성을 갖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조직을 이해하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sup>106</sup>

### 5. 선교적 제자훈련의 원리와 방법

이 부분에서는 선교적 제자를 만들기 위한 원리와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우리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되 그것을 그분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지상 사역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 삼는 모범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분의 지상명령(마 28:19-20)을 이행할 때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성장을 도우셨는지 많은 실례를 제공해 주고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우셨는지, 열국 중에서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시 가르쳐야 했다(마 28:19-20).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막 4:10-12), 잘못을 고쳐주며(마 16:5-12), 권면하고(마 17:19-20), 그들을 지원했으며(눅 22:31-34), 위로하고(요 20:19-22), 그들을 회복시키셨다(요 21:15-19).<sup>107</sup>

나. 선교적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본받음을 넘어 주님과 연합을 통해 시작된다. 선교적 제자는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통해 세상에 존재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연합 없이는 선교적 삶도 불가능하다. 호튼은 “성경은 그리스도를 본 받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깊고,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무언가로 우리를 안내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사람들처럼 못 박히고, 장사되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상에서의(수도원에서가 아니라) 삶을 살아감으로써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 것에 대해 말

<sup>106</sup> 이상훈, *처치 시프트*, 254.

<sup>107</sup> Michael J. Wilkins, *제자도 신학*, 190.

한다”고 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과 그에 기초한 삶은 세상을 향한 직설적 선언이 된다.<sup>108</sup>

윌킨스는 그의 책 *위대한 사명(The Gospel Commission)*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연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다른 스승과 제자 관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닮으며, 그분이 한 것과 동일한 사역을 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닮아 간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성립된 영적인 연합, 즉 예수님이 그들 안에,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요 17:13-26 참조) 연합은 다른 어떤 제자도 관계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닮음’이다. 이 영적인 연합은 바울이 마침내 밝힐 ‘닮음’을 예견한다. 바울은 자신의 최고 욕망이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고, 신자의 궁극적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밝히고 있다(롬 8:29)<sup>109</sup>

예수님의 지상 생애 동안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활을 보고 자기들의 길을 그와 비슷하게 조정할 수 있었다. 오순절 후에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영적 관계가 성립될 것이며 그 때에 제자는 내부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할 것이다.

이러한 연합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데이비드 퍼트만(David Putman)은 선교적 제자들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고(Live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사랑하고(Love like Jesus), 예수님이 남겼던 것들을 남기는(Leave what Christ left behind) 삶이라고 묘사했다.<sup>110</sup> 먼저,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여정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복음의 렌즈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성령의 현존을 통해 그를 알고 경험하게 될 때, 제자들은 비로소 자신을 내려놓는 것과 헌신하는 삶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선교적 사명을 부여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간다. 그 여

<sup>108</sup> Michael Horton, *위대한 사명*, 260-261.

<sup>109</sup> Michael J. Wilkins, *제자도 신학*, 188.

<sup>110</sup> David Putman, *Breaking the Discipleship Code*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08), 11-43.

정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거친 광야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지라도,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실에 안주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삶을 선택한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요3:16) 고백을 통해, 그분의 성육신과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는데서 출발한다. 사실 예수께서 보여 주신 사랑은 모든 면에서 불가능한 사랑 그 자체였다. 설명할 수도, 표현할 수도, 실행할 수도 없는 사랑의 극치를 보여 주셨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다. 선교적 제자의 목표는 한 영혼을 사랑하되 입술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가능한 사랑을 체휼하고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나를 넘어 타인을 향해, 세상을 향해, 무너지고 깨어져 눈물과 아픔이 가득한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삶,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끝으로, 예수께서 남기셨던 유산 남기기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는 아마도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돌려보내는 결정이었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계 선교와 구원 사역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다. 대부분 무식하고, 가난하며, 고립된 삶을 살아왔던 연약한 자들에 불과했다. 세상을 향한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을 것 같은 자들을 선택하신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들을 두려움 없이 세상에 파송하셨다. 모든 민족과 열방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자신이 남기셨던 흔적들을 그들도 남기도록, 그리하여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격려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셨다.

다. 이러한 연합을 통해 구체적인 선교적 제자 양성 방법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르침이다. 첫 번째 출발점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된다. 3년여의 짧은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대부분 시간을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께서 다름 아닌 작고 무능해 보이는 12 명의 무리에게 집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마지막 날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인류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야 할 예수님은 지난 평생의 사역을 회고하시면서, 그분이 행하셨던 엄청난 일들과 기적들을 언급하지 않으셨다. 대신 자신의 모든 것과 다름이 없었던 제자들에 대해서는 40번이 넘게 말씀하셨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일차적 관심사는 오직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다.<sup>111</sup>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집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제자 삼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두 번째는 가르침과 배움의 역학을 통한 제자화이다. 마이크 브린(Mike Breen)과 스티브 코크람(Steve Cockram)은 세 가지 차원의 교육방식을 통해 이를 설명한다. 첫째, 형식화된 교육 방식(Classroom /Lecture)이다. 이는 정보와 사실, 사상과 과정 등에 기초한 이론과 원리를 가르치는 교육이다. 둘째, 도제교육방식(Apprenticeship)이다. 아무리 이론에 정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그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도제교육은 전문가를 통해 실제 기술의 활용 방법을 전수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의 상호작용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선생된 자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기술등을 투자하여 제자들이 그 기술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다. 셋째, 몰입(Immersion) 혹은 담금교육 방식이다.<sup>112</sup> 교육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배움의 환경과 인격이 온전히 형성될 수 있는 몰입 방식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이는 갓난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배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주변의 모든 환경이 지속해서 해당 언어를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조성됨으로써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생각과 인격이 함께 형성되는 교육 방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배우는 자가 얼마만큼 쉽게 이러한 환경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교회가 취하고 있는 제자훈련 방식이 가진 취약점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우리의 교육은 대부분이 형식화된 강의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 집중하며, 정보 중심의 교육에 치우쳐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배움이 실천적 영역에서 어떻게 실재화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일상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간과해 온 것이 사실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이고,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제자훈련을 받아야 한다. 단순히 제자가 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역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한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성경조차도 제

<sup>111</sup> David Platt, *래디컬 (Radical Together)*, 최중훈 역 (서울: 두란노, 2012), 127.

<sup>112</sup> Mike Breen & Steve Cockram, *Building a Discipling Culture*, 23-41.



자도에 대한 매뉴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자도를 위한 채석장과도 같다.<sup>113</sup>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 호튼은 “기독교의 제자도는 이 시계공의 솜씨와 상당히 비슷하다. 그것은 공식과 원칙, 단계들에 의해서 대량생산 될 수 없다. 제자는 생산라인에서 만들어져 나오지 않는다”고 단호히 주장한다.<sup>114</sup> 제자를 만드는 과정에는 시간과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 이를 빗겨갈 매뉴얼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지름길은 없다.<sup>115</sup> 하지만 제자 삼는 사역은 보편적 사명이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었다.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훈련은 복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호튼은 이렇게 주장한다. “제자가 되는 것은 새로운 인격을 나타내는 새로운 선택과 습관, 그리고 미덕과 더불어 전인적인 삶의 형상을 포함한다. 하지만 제자를 삼는 것(대위임령에 의해 정의된)은 복음에 달려 있다. 이는 복음이 말씀과 성례, 그리고 훈련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이다”.<sup>116</sup> 이렇듯 제자 삼는 사역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다. 제자를 삼는 데는 특별한 훈련이나 비범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sup>117</sup> 오직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덧입는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다. 제자를 삼기 위해 지정하신 방법들인,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은 단지 기독교 입문에 필요한 것들이 아니다. 또는 단지 회심이나 교회 개척을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 일들은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제자들과 제자 양성자들을 길러내는 영구적인 수단이다. 넘치는 은혜는 변화되는 삶을 가져온다. 구원 이후의 삶은 제자도의 삶이고 이 제자도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때 온전한 제자로 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동기와 능력을 얻게 된다.

라. 선교적 제자훈련은 예배의 훈련을 강조한다. 제임스 스미스는 그의 책 *습관이 영성이* *다*에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근본 요인은 지성이 아니라 욕망이며 제자도는 앎과 믿음의

<sup>113</sup> Michael Horton, *위대한 사명*, 279.

<sup>114</sup> Ibid., 275.

<sup>115</sup> Ibid., 279.

<sup>116</sup> Michael Horton, *위대한 사명*, 244.

<sup>117</sup> David Platt, *래디컬*, 129.

문제라기보다 열망과 갈망의 문제라고 하였고, 욕망은 생각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오고 습관은 생각이 아니라 예전을 통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제자도란 습관을 바로 잡는 것이다. 제자도가 정보 습득의 문제라기 보다는 재형성의 문제라는 뜻이다.<sup>118</sup> 인간은 전인격적 존재다. 죄된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항하는 예전이 필요하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죄를 복음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고 하였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구체적이며 공동체적 실천으로 그 사랑의 질서를 바로잡아야(눈금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sup>119</sup> 그리고 그는 예배를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근원적 습관을 다시 만들어 가시는 하향적 만남으로의 초대로 이해할 때 반복은 매우 중요하고 반복은 하나님이 우리 습관을 바로 잡으시는 방식으로 반복 없는 형성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sup>120</sup> 제임스 스미스는 타고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 예배와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알려 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제자훈련 과정에는 예배의 훈련이 빠져 있다. 하지만 선교적 교회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 예배는 선교적 교회의 심장과도 같다.<sup>121</sup> 따라서 선교적 제자훈련에서는 예배의 의미와 각종 예전 의식의 역사, 개인의 예배에서 공동체의 예배까지 갖추어져야 할 내용과 태도의 요소,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몸으로 익혀야 할 것들에 대하여 다루어야 한다.

마. 선교적 제자훈련의 영역은 전 생활 영역이다. 제자도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또 제자도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에 해당하는 영역을 다룰 필요가 있다. 교회에서 선교적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즉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 가정과 교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을 망라하여 제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남녀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성장하도록 돕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sup>122</sup>

바. 선교적 제자훈련은 선교교육이 강조된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등 기본적인 삶의 훈련도 해야겠지만, 선교적 제자와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돕는 것

<sup>118</sup> James K.A. Smith, *습관이 영성이다 (You are when you love)*, 박세혁 역 (서울: 비아트리, 2018), 39

<sup>119</sup> Ibid., 95.

<sup>120</sup> Ibid., 129.

<sup>121</sup> 이상훈, *처치 시프트*, 140.

<sup>122</sup> Michael Wilkins, *제자도 신학*, 518

이 중요하고, 특히 교회의 본질이 선교이고, 그 본질에서 모든 교회의 사역들이 비롯되어야 하며, 교회의 본질과 사역의 내용에 의해 교회의 구조나 조직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선교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 제 4 장 사례연구

지금의 한국교회들은 거의 모든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실행하고 있다. 물론 모두가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이름이 다르고 프로그램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장에서는 그 가운데 제자훈련이 체계적으로 잘 실행되고 있는 대표적 교회들의 사례를 연구하여 3 장에서 정리된 선교적 제자훈련과 비교 분석하고 각각의 교회 제자훈련이 갖고 있는 장단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사례 연구는 선교단체를 통해 소개된 제자훈련 개념을 지역교회에 처음으로 접목하고 정착시킨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대표적인 교회인 “사랑의 교회”와 2001 년에 하나님나라 복음에 기초해서 교회를 개척하여 도시의 중심인 상업지역에서 선교적 교회를 실현하고 있는 “나들목교회” 그리고 필자가 담임 목회하고 있는 행복한제자교회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사례연구는 각 교회의 목회 철학, 제자훈련의 목적과 내용, 제자훈련 프로그램, 분석 및 평가 순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 제1 절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으로 개척부터 지금까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사랑의 교회는 옥한흠 목사가 개척하였고, 2013 년부터 오정현목사가 담임하고 있다. 제자훈련으로 세워진 사랑의 교회는 지금 리더십의 문제로 혼란 가운데 있고 오정현 목사의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성장에 대한 부분은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어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자료의 기간과 내용들은 충분히 교회성장에 대한 검증이 되어있는 옥한흠 목사 담임시절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기술하였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옥한흠 목사는 “평신

도의 제자화'라는 목회적 비전을 가지고 목회자 중심의 사역 구조를 평신도 중심의 사역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복음적인 선교단체에서 실시하고 있고 있던 제자훈련을 사랑의 교회에 적용하여 실천함으로 커다란 열매를 맺었다.

옥한흠 목사는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선교단체 제자훈련 사역의 핵심 원리와 경험을 수용하되 지역 교회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즉 선교단체와는 다른 지역 교회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파악하는 신학적 작업을 하였고, 지역 교회 제자훈련 사역을 새로운 신학적 기초 위에 세우려고 시도했다. 그에게 그 기초는 '교회론'이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평신도론'이 핵심이 되었다. 그의 제자훈련 신학과 방법은 그의 책 *평신도를 깨운다*<sup>123</sup>에 담겨 있다.

옥한흠 목사는 한스 쾨링의 교회론을 접하면서 교회의 '사도성'에 대한 쾨링의 새로운 해석에 감명을 받았다. 쾨링은 교회의 사도성을 설명하면서, 사도직의 계승자는 교황이나 다른 어느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 사도직을 계승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인데, 교회는 첫째로 사도의 교훈을 계승함으로써, 둘째로 사도의 사역을 계승함으로써 사도직을 계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교회론적 인식을 기초로 옥한흠 목사는 '평신도를 깨우는 것'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그러므로 평신도를 깨운다는 것은 바로 그들 각자가 사도의 사역을 물려받은 소명자임을 고백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사도적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사도적 사역은 완성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세상 안에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사도들처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그 자체를 성경적으로 결정하는 본질적인 사명이다.<sup>124</sup>

<sup>123</sup>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sup>124</sup> *Ibid.*, 102.

그리고 옥한흠 목사는 제자훈련가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자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sup>125</sup> 첫째,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제자훈련은 은혜로 하는 것이며, 은혜를 먼저 체험한 사람이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둘째, ‘한 사람 철학’에 미친 사람이다. 한 영혼에 대한 불타는 마음 없이 양적인 성장에만 신경을 쓰면 실패한다. 셋째, 사랑하고 신뢰받는 인격이다. 자신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감이 가지 않거나 불편한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쏟아부어야 한다. 넷째, 영적 권위와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며 권위있게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 1. 목회철학

사랑의 교회 목회철학은 옥한흠 목사의 목회철학<sup>126</sup>을 계승하고 있다. 옥한흠 목사는 자신의 목회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평신도를 깨워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다. 곧 ‘제자훈련 목회철학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제자 훈련 목회철학을 다음의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평신도를 훈련시켜 그 인격을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작은 그리스도(그리스도인; 행 11:26, 26:28)’라는 별명을 들었던 것처럼 평신도들은 예수화(化)되어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바꾸어 놓는 작업이어야 한다.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가지고 평신도 한사람 한사람을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딤후 3:17).

둘째, 평신도를 훈련시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소명자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다(마 4:23).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삶을 철저히 진리의 증거자, 사랑의 종으로 헌신하였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은 평신도를 복음의 전파자로, 진리의 교사로, 사랑의 치료자로 헌신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비전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자기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사는 환경이 어떠한 간에

<sup>125</sup> 옥한흠, *옥한흠 목사가 목사에게* (은보, 2013), 290-314

<sup>126</sup> [http://johnoak.sarang.org/frame\\_index.asp](http://johnoak.sarang.org/frame_index.asp)

자기가 머무르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소명자로 만드는 것이다.

## 2. 제자훈련의 목적과 내용

옥한흠 목사는 제자훈련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 받는 신자의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으로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는 신앙인으로 만드는데 있다고 하였다.<sup>127</sup>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에서는 제자훈련의 목적을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사명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sup>128</sup>

옥한흠 목사가 실행했던 제자훈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평신도를 깨운다*에서는 훈련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옥한흠 목사가 집필한 제자훈련 교재가 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 교재는 제자훈련 3 권과 사역훈련 3 권으로, 2년 혹은 3년 과정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제자훈련 3 권은 모두 32주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1 권 “제자 훈련의 터다지기”에서는 6 주간 경건의 시간, 말씀, 기도 등 기본적인 생활 훈련에 집중한다. 2 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에서는 14 주에 걸쳐 전통적인 주요 교리 주제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공부한다. 3 권 “작은 예수가 되라”는 12 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 성경공부와 병행하며 생활 훈련으로서 경건의 시간, 성구 암송(64 구절), 성경읽기(1년간 1독), 특별 과제의 실천 내용을 매주 점검해 나간다. 제자훈련 과정을 마친 사람들 중에서 ‘말씀 사역’을 담당할 자질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사역훈련을 받을 수 있다. 사역훈련은 1년 과정으로 각각 성령론, 교회론, 소그룹과 귀납적 성경공부법을 다룬다. 이 두 과정 전체를 분석해 보면 전도 훈련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도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자훈련 과정을 마친 훈련생들에게 따로 ‘전도폭발 훈련’을 받도록 지도한다.<sup>129</sup>

<sup>127</sup>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92.

<sup>128</sup> [https://www.sarang.org/edu/traning\\_disciple1.asp](https://www.sarang.org/edu/traning_disciple1.asp)

<sup>129</sup>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309

### 3. 제자훈련 프로그램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새가족을 위한 새 가족모임, 성경 대학,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폭발 훈련, 순장반 교육이라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계의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각 단계의 각 과마다 수행해야 할 과제가 있다. 공부는 과정마다 제공되는 교재의 문제를 미리 읽고 답을 적어 와서 성경 공부 그룹에서 함께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각 단계의 제자훈련 과정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 가. 제자훈련

제자훈련은 32 주 과정으로 실시된다. 처음 1 년은 10 명이 한 조가 되어 목회자 1 명에게 집중훈련을 받는다. 교육은 매주 1 회씩 3 시간을 받게된다. 특히 이 과정은 양육 은사가 있는 분들을 선발하고 훈련시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 각 과를 공부할 때는 과제물이 있다. 과제물의 종류로는 생활숙제, 독서과제, 성구암송 과제,QT가 있는데 인도자의 목적이나 소그룹의 상황 그리고 훈련생들의 능력에 따라 과제의 양은 융통성있게 조절할 수 있다.

제자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원자격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sup>130</sup>

- (1) 교회등록: 본 교회에 등록된 지 1년 이상된 성도
- (2) 세례/입교: 세례 및 입교 받은 지 3년 이상된 성도
- (3) 새가족모임을 수료한 성도
- (4) 양육과정: 큐티세미나와 구약/신약의 파노라마를 이수한 성도

단, 성경대학이나 교리대학 수료자(1년 과정)는 큐티세미나만 이수하면 됨

- (5) 연령:일반제자반-만 35 세~58 세까지

60+제자반- 만 59 세 이상

- (6) 다락방 :1년 이상 계속 참석한 성도

- (7)봉 사 : 훈련중에 교회가 요청하는 봉사 사역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교통

<sup>130</sup> [https://www.sarang.org/edu/traning\\_disciple1.asp](https://www.sarang.org/edu/traning_disciple1.asp)



봉사, 예배봉사 등-1년 이상)

(8)제자훈련, 사역훈련 및 전도훈련을 통해 평신도 지도자로 파송까지 지속적으로 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성도

(9)제자훈련의 모든 내용을 온전한 순종과 기쁨으로 감당할 준비가 된 성도

(10)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성도

(11)훈련에 집중하기에 건강상의 어려움이 없고, 건전한 직업을 가진 성도

(12) 훈련 방향 중 일정 기간 해외 아웃리치 참여가능한 성도

제자 훈련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제자훈련의 기초를 다지는 ‘제자훈련 터다지기’ 과정이다. 이 과정은 제자훈련의 위밍업 기간으로 습관적으로 실천해야 할 경건 생활(말씀, 기도) 속으로 훈련생들을 안내한다.

제 1 권 제자훈련 터다지기(6주) 교과 내용<sup>131</sup>

1 과 :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2 과 :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3 과 : 경건의 시간, 묵은 만나

4 과 :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5 과 :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6 과 : 기도의 응답

둘째는 구원의 진리를 깊이있게 터득해 나가는 과정으로 구원교리의 중요한 14 가지 주제를 다루며 신앙의 뼈대를 든든히 세우도록 돕는 단계이다.

제 2 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14주과정) 교과 내용<sup>132</sup>

1 과 : 성경의 권위

2 과 : 하나님은 누구신가?

<sup>131</sup> 옥한흠, *제자훈련 I: 제자훈련의 터다지기*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6), 11.

<sup>132</sup> 옥한흠, *제자훈련 II: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6), 6-7.

- 3 과 :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 4 과 : 삼위 일체 하나님
- 5 과 :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
- 6 과 :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 7 과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 8 과 : 약속대로 오신 성령
- 9 과 : 거듭난 사람
- 10 과 : 믿음이란 무엇인가?
- 11 과 : 의롭다 함을 받은 은혜
- 12 과 :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 13 과 : 그리스도인의 성화
- 14 과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셋째는 신앙인격을 바로 세우고 제자로서의 삶을 정립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제3권 작은 예수가 되라(12 주과정) 교과 내용<sup>133</sup>

- 1 과 : 순종의 생활
- 2 과 : 봉사의 의무
- 3 과 :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 4 과 :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
- 5 과 : 영적 성장과 성숙
- 6 과 : 순결한 생활
- 7 과 :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 8 과 : 신앙 인격의 연단
- 9 과 : 그리스도의 주재권

---

<sup>133</sup> 옥한흠, *제자훈련II: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6), 6-7.

10 과 : 칭지기 직

11 과 : 영적 전투

12 과 : 새 계명 : 사랑하라

#### 나. 사역훈련

이 과정은 32 주의 과정으로 실시된다. 1 년동안 20 명이 한 조가 되어서 목회자 1 명에게 집중훈련을 받는다. 제자훈련이 개인의 인격의 성숙을 통해 평신도를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사역훈련은 교회안에서 목회자의 지도아래 말씀을 가지고 다른 형제를 섬길 수 있는 ‘작은 목사’를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이 훈련의 목적은 다락방을 이끌어갈 리더(양육 순장)를 양성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은 리더의 자질과 소양을 갖추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훈련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로마서 8 장을 중심으로 제자훈련을 마친 훈련생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도록 돕는 과정이다.

제 1 권 성령, 새 생활의 열쇠 교과 내용<sup>134</sup>

1 과 : 정죄는 끝났다.

2 과 :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3 과 :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4 과 :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후사

5 과 : 확실한 두 가지 보증

6 과 : 아무 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

둘째는 목회자의 목회철학을 심어주고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자아상을 확립시켜주는 과정이다.

제 2 권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 교과 내용<sup>135</sup>

<sup>134</sup> 옥한흠, *사역훈련: 성령 새 생활의 열쇠*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9.

<sup>135</sup> 옥한흠, *사역훈련II: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9.

- 1 과 : 교회가 무엇인가?
- 2 과 : 교회의 존재 이유(1): 예배
- 3 과 : 교회의 존재 이유(2): 훈련
- 4 과 : 교회의 존재 이유(3): 증거
- 5 과 : 제자의 자격(1): 전적 위탁자
- 6 과 : 제자의 자격(2): 증인
- 7 과 : 제자의 자격(3): 중
- 8 과 : 몸의 지체와 상호 사역
- 9 과 : 사역의 장을 찾으라
- 10 과 :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셋째는 소그룹 성경공부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소그룹 환경에서 귀납법적인 성경공부 인도법을 익히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는 소그룹을 참관하고 실습하며 소그룹을 인도할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로 준비되게 된다.

#### 제3권 소그룹 환경과 리더십 교과 내용<sup>136</sup>

- 1 과 : 소그룹 성경공부의 교육 환경
- 2 과 : 소그룹 성경 공부와 리더십
- 3 과 : 귀납적 성경 연구 개관
- 4 과 : 귀납적 성경 공부의 실제(1): 관찰
- 5 과 : 귀납적 성경 공부의 실제(2): 해석
- 6 과 : 귀납적 성경 공부의 실제(3): 적용
- 7 과 : 소그룹 커뮤니케이션 : 질문과 경청
- 8 과 : 소그룹 교재 인도법
- 9 과 : 소그룹 견습과 평가

---

<sup>136</sup> 옥한흠, *사역훈련III: 소그룹 환경과 리더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11.

## 10 과 : 소그룹 실습과 평가

### 다. 전도폭발 훈련

순장들은 전도폭발 훈련을 받는다. 다락방 순원들의 요청이나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훈련은 순장들에게는 전도의 능력이나 열정을 키우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이다. 전도폭발 훈련은 1 년의 훈련생 과정과 1 년의 훈련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훈련되고, 섬김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는 것으로, 이것이 대각성 전도 집회로 지속되어 교회의 성장에 또 다른 힘이 되는 것이다.

### 라. 순장반 교육

사랑의 교회 순장들은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봉사할 사람들을 위한 ‘봉사 순장’, 지역의 성도들을 보살피고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 순장’,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교사 순장’이 그것이다. 각 순장들은 매주 1회씩 순장반 교육을 받는다. 순장반은 이렇게 전문분야별로 역할을 담당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 협력하도록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 이 훈련을 통하여 지식적인 신앙을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키워 나간다.

## 4. 분석 및 평가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을 분석하여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의 장점

선교단체 제자훈련의 핵심원리와 경험을 수용하면서도 지역 교회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대학생 선교단체의 방법론을 전통적 목회의 틀 안에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는 점이다.

목회적 적용이 가능한 체계적인 제자훈련 프로그램과 제자훈련의 원리를 개발하여 교회에 정착시켰다.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의 프로그램은 훈련목표와 계획이 구체적이고 조직적이

어서 개인은 자신의 신앙 성장에 대한 강한 동기 부여를 받는다. 특히 선교단체들의 제자훈련이 신학적으로나 교회론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사랑의 교회는 한스 킹의 영향을 받은 평신도 교회론에 기초한 제자훈련 원리를 만들었다.<sup>137</sup>

#### 나.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의 단점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에서 부족한 점은 성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언급의 부재이다. 즉 제자훈련 과정에는 제자들의 직업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의 제자도에 대한 적절한 강조가 결여되어 있다. 제자훈련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이나 CAL (Called to Awaken the Laity) 세미나에서 강조되는 내용 중 우리 사회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제자훈련과 관련해 성도의 (구제나 봉사와는 구별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언급 부재는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 신학이 하나님나라 신학 혹은 총체적 선교의 개념과 심층에서는 완전히 통합되지 못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사랑의교회의 경우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 중 가장 탁월한 제자들은 사역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사역훈련의 목표는 말씀으로 목양하는 평신도 사역자를 기르는 것이므로, 직업이나 공적인 영역에서 제자도를 살아내야 할 사람들을 위한 의도적인 후속 훈련이 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제자훈련의 전반적인 강조점은 교회의 일꾼을 양육하는 것에 머물고, 제자들을 직업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 적극적으로 파송하는 일은 주목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제자훈련을 받은 평신도들이 교회의 (좁은 의미의) 목양 사역에 다시 투입되어 결과적으로 교회 내부의 활동으로만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훈련받은 선수들을 경기에 내보내지는 않고 훈련 프로그램에 다시 투입해 훈련 참가자만 늘려 가는 현상, 즉 훈련의 무한 루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자훈련의 궁극적 목표가 평신도의 교역자화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사랑의교회 제자훈련 교재는 네비게이트 선교회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교재에 비해서 질문이 어렵고 복잡하다. 성경을 보고 쉽게 답을 적기가 어렵다.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sup>137</sup>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64-115.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특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 외에도 사랑의교회 제자훈련은 참가 자격 기준이 매우 높아서 모든 성도가 제자훈련을 받기가 어렵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제자라는 점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에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제2 절 나들목교회

나들목교회는 찾는이들에게 열려 있는 도시 공동체를 지향하는 복음적인 독립교회이다.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2001년 대학로에서 시작되어 현재 대광고등학교 캠퍼스에서 70여개의 가정교회(청년부 17개 결), 1,000여명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로 성장해 가고 있다.<sup>138</sup>

나들목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벤치마킹하여 개척되었다. 그 이유를 나들목교회의 대표 목사인 김형국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된 특수한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유대의 벽을 벗어난 첫 번째 교회이며, 지난 2천년 동안 교회의 존재 양식을 규정할 수 있는 원형적 교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sup>139</sup> 즉,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는 교회로 우리가 따라야 할 교회의 원형이라는 것이다.

나들목교회 대표 목사인 김형국은 교회를 개척할 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4가지로 정리했다. 기복주의, 이원론적 영성, 개인주의적 신앙생활, 그리고 철저한 교인중심이 었다. 그는 이 4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성서적인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나들목교회의 부르심으로 삼았다. 즉, 교인 중심이 아닌 찾는이 중심,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버리고 공동체적 영성을 가진 진실한 공동체, 이원론적 영성 대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있는 성장, 기복주의가 아니라 교회 안과 밖이 변화되는 안팎의 변혁이 바로 그것이다.<sup>140</sup> 이 4가지의 부르심이 나들목교회의 비전이고, 핵심 가치가 되었다.

<sup>138</sup> <http://nadulmok.org/>

<sup>139</sup> 김형국, *교회를 꿈꾼다* (과주: 비아토르, 2018), 19.

<sup>140</sup> *Ibid.*, 139-140.

또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주거지역이 아닌 도시의 중심인 상업지역에 자리를 잡은 이유를 김형국 목사는 ‘찾는이 중심’이라는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즉 찾는이들의 들락거림이 자유로운 위치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를 갖기 위해서 도시의 중심에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이다.<sup>141</sup>

## 1. 목회철학

나들목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진실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그들이 정상적이고 균형 있게 성장해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변혁, ‘안팎의 변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나들목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사랑으로 강권함을 입어, 찾는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찾아 섬겨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 가족으로 성장하길 애쓰며, 모든 공동체 가족이 균형 잡힌 제자로 성숙하여,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주님의 온전하신 회복이 임하시길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요컨대 나들목교회는 ‘하나님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이다. 찾는이가 성장해서 변혁자까지 성장하는 곳이다. 하나님나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고 가르치신 메시지이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 시작되었고, 나들목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들어간 자들의 공동체이며, 찾는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혁, 그리고 종말론적 예배라는 다섯 가지 DNA를 가진다.<sup>142</sup>

### 가. 찾는이 중심

나들목교회는 교인 중심보다 인생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지며 답을 구하는 찾는이를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추구한다. 찾는이를 찾아 섬기기 위하여 찾는이의 필요를 잘 살피고 그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가족이 찾는이를 교회에 초청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어

<sup>141</sup> 김형국, *교회를 꿈꾼다*, 212-236.

<sup>142</sup> 나들목교회의 운영원리인 MOSAIC 3.0 참고함.



떻게 도와야 하는지 배우고 실천한다. 가족과 나들목교회가 찾는이에게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구체적으로 돕고 세례를 전후하여 양육한다. 전도는 삶을 통한 인격적인 전도를 지향한다. 나들목교회는 찾는이에게 민감하나 영성 깊은 주일 예배를 계발하고 가족들은 찾는이들을 찾아 섬긴다. 그리고 전도를 생활 양식화하여 모든 가족이 가정교회에서 찾는이를 품고 기도한다. 나들목교회는 하나님을 만난 찾는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를 전후하여 양육한다.

#### 나. 균형 있는 성장

나들목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공동체를 추구한다. 균형 잡힌 성숙을 추구하기 위해 먼저 가족이 매일 주님을 따라 살아 성품과 삶의 방식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고,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대하여 꾸준히 공부하여, 예수를 따르는 영성을 심화시켜 나간다. 그리고 가족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전수하는 변혁자로 성숙해 나간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준비시켜,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시켜 나간다.

#### 다. 진실한 공동체

나들목교회는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진실한 공동체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각 성도를 사랑 가운데서 권면하고 세우는 일에 힘쓴다. 가정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다양한 측면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공동체가 되고, 가정교회가 분가 개척하는 것을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각 마을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터와 일터 중심에 교회를 세운다.

#### 라. 안팎의 변혁

나들목교회는 찾는이들과 찾은이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 문화와 역사 속에서 변혁의 열매를 맺는 변혁공동체를 추구한다. 변혁을 통해 세상을 회복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족은 자신의 은사를 계발하여 교회를 적극 세워나가고, 언약가족(하나님 나라 운동원)을 거쳐 헌신가족(목자)이 되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가족은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과 그 사역을 감당하고, 5 대 변혁 사역(타문화, 사회, 민족, 문화, 생태)에 구체적(활동, 기도, 헌금)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나들목교회의 부르심이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변혁한다.

#### 마. 소망하는 예배

나들목교회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살아있는 깊은 예배를 드리며, 깨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가족 개개인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누리고, 가족들의 만남이나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깨어진 세상 속에서 온전한 회복을 소망하는 공동체 예배에 헌신한다.

## 2. 제자훈련의 목적과 내용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나들목교회의 4 가지 핵심 가치 중에서 ‘균형있는 성장’에 속하는 부분으로 성도들의 변화를 위해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찾는이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계속해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끌어 가는 사람으로, 즉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 영적 부모로 자라가는 영적 성숙에 이르도록 하는데 제자훈련의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sup>143</sup>

나들목교회의 제자훈련은 하나님나라 복음에 기초한 제자훈련이다. 하나님나라 복음에 삶의 기초를 놓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기초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을 자신이 먼저 배우고 누리고는 전해주는 것이다.<sup>144</sup>

<sup>143</sup> [http://nadulmok.org/?page\\_id=4630](http://nadulmok.org/?page_id=4630)

<sup>144</sup> 김형국,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방식* (과주: 비아토르, 2017), 402.

제자훈련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의 기본진리에 대해 다루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풍성한 삶의 첫걸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나들목교회 정식 교인이 되는 과정의 ‘하늘가족 디딤돌’, 나들목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원’을 세우는 디딤돌 과정의 ‘언약가족 디딤돌’, 나들목교회의 핵심철학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나라 복음 공동체인 가정교회를 이끄는 목자를 세우는 디딤돌의 마지막 과정의 ‘헌신가족 디딤돌’, 나들목교회의 공식 1:1 제자훈련 프로그램인 ‘풍성한 삶의 기초’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45</sup>

나들목교회의 교육의 중요한 신학은 ‘하나님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이혼으로 인한 이원화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교육 철학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아울러 중요한 방법은 1:1 을 통한 인격적 나눔이다. 1 대 다수의 강의식이나 1 대 4~5 명의 조별나눔이 아닌 1:1 중심의 교육을 선호한다. 이는 피교육자들이 소그룹과 대그룹에서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피교육자들에게 있는 질문과 고민을 원활하게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나아가 한 사람과의 깊은 사귀를 통해 코이노니아를 경험토록 하기 위함이다. 1:1 나눔에서는 그룹에서 나누지 못하는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로 인해 더욱 친밀하고 진실한 관계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수평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메타인지적 교육법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다. 머리로 이해한 것이 가슴에 다가오고, 그것이 다시 나의 손과 발을 통해 세상에서 살아질 때, 비로소 진리는 자신의 것이 된다. 기독교의 진리는 혼자 깨치고, 혼자 살아내도록 주어지지 않았다. 진정한 깨달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함께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고민하는 과정, 즉 인격적 만남을 통해 주어진다.<sup>146</sup>

### 3. 제자훈련 프로그램

<sup>145</sup> [http://nadulmok.org/?page\\_id=4630](http://nadulmok.org/?page_id=4630)

<sup>146</sup> 김형국,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방식*, 425-459.

나들목교회의 영적 성장 단계는 찾는이, 결신자, 성장 초신자, 자립신자, 사역준비자, 사역자, 지도자로 세분하여 7 단계로 되어 있다. 영적 아이를 결신자와 성장 초신자로, 영적 청년을 자립 신자와 사역 준비자로, 영적 부모를 사역자와 지도자로 나눈다.<sup>147</sup>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영적성장 7 단계와 5 개의 디딤돌 과정은 그림 1 과 같다.

영적성장 7 단계		5 개의 디딤돌	
찾는이 (하나님과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삶)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결신자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태어난 삶)	영적 아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
성장초신자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자라가는 삶)			하늘가족디딤돌
자립신자 (하나님나라 복음을 나누는 삶)	영적 청년		언약가족 디딤돌
사역준비자 (하나님나라 복음을 나누는 삶)			헌신가족 디딤돌
사역자 (하나님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삶)	영적 부모		지도자훈련
지도자 (하나님나라 공동체를 이끄는 삶)			

그림 1. 나들목교회의 영적 성장의 7 단계와 5 단계 디딤돌 과정의 관계<sup>148</sup>

#### 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sup>149</sup>는 김형국 목사가 기독교의 기본진리에 기독교 변증을 섞어 포스트모던 시대에 적합한 전도의 콘텐츠로 활용하게 한 1:1 프로그램이다. 책과 동영상과 음성 파일로 제공되어 있다. 여섯 번의 강의와 한 번의 보충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인 김형국 목사는 이 일곱 번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가르치고 살아내며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

<sup>147</sup> 김형국,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방식*, 371-381.

<sup>148</sup> [http://nadulmok.org/?page\\_id=4636](http://nadulmok.org/?page_id=4636)

<sup>149</sup> 김형국,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과주: 비아토르, 2017),

음'을 가능한 한 많은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애를 썼다.<sup>150</sup>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통한 복음 전도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알 기회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개인 및 가정교회 재생산의 기초를 놓는 목적이 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강. 세 가지 문, 그리고 걸림돌들
- 2 강. 유신론과 무신론, 소통하시는 하나님
- 3 강.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한 두 가지 조건
- 4 강.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오늘날 우리의 세상
- 5 강.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6 강. 다섯 가지 가능한 반응들
- 7-1 강. 계속되는 우리의 여행(Rejoice, Recommit, Receive)
- 7-2 강. 계속되는 우리의 여행(Research)

#### 나.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첫걸음'<sup>151</sup>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수료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과정이다. 풍성한 삶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거듭남',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축복인 이유, 이 축복을 공동체적으로 누리는 법,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과 나누고 선포함으로써 풍성한 삶을 더욱 선명하게 경험하는 방법 등을 배운다. 두번째 디딤돌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 6 주간 함께 나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걸음
- 2 강. 거듭남의 신비와 축복
- 3 강.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어떻게 시작할까?

<sup>150</sup> 김형국,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8.

<sup>151</sup> 김형국, *풍성한 삶의 첫걸음* (과주: 비아트리, 2018),

- 4 강. 인격적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 5 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어떻게 누릴까?
- 6 강.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 어떻게 누릴까? (1)
- 7 강.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 어떻게 누릴까? (2)
- 8 강. 기도와 말씀의 삶을 어떻게 온전히 누릴까?
- 9 강. 생애 첫 간증, 그리고 증인의 삶
- 10 강. 세례, 그 사랑 깊은 언약

#### 다. 하늘가족 디딤돌

‘하늘가족 디딤돌’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수료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나들목교회 정식 교인이 되는 과정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참 교회의 본질과 모습, 그리고 나들목교회의 역사와 부르심, 나들목 가정교회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르침들을 6주간에 걸쳐 배우게 된다.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나들목교회의 정식 교인(나들목가족)이 될 수 있다.<sup>152</sup>

#### 라. 풍성한 삶의 기초

풍성한 삶의 기초<sup>153</sup>는 나들목교회의 공식 1:1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지난 10년간 300명 이상의 인도자에 의해 700명 이상이 수료한 검증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다. 이 제자훈련은 13주간 영상과 MP3 파일로 제공되는 강의를 듣고, 이끄미와 따르미의 나눔으로 진행되며 성경 암송, 필독서 읽기, 실천과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이야기하는 풍성한 삶의 기초를 놓게 된다. 이 13주의 과정에 충실히 참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균형있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풍성한 삶의 기초를 놓을 수 있다. ‘풍성한 삶의 기초’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

<sup>152</sup> [http://nadulmok.org/?page\\_id=4636](http://nadulmok.org/?page_id=4636)

<sup>153</sup> 김형국, *풍성한 삶의 기초*

- 2 강.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 3 강.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기 사랑
- 4 강.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 5 강.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상살이
- 6 강.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

#### 마. 언약가족 디딤돌

‘언약가족 디딤돌’은 ‘하늘가족 디딤돌’과 ‘풍성한 삶의 기초’를 수료하고, 가정교회 목자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나들목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원’을 세우는 디딤돌 과정이다. ‘언약가족 디딤돌’을 통해 세워진 언약가족들은 소속된 가정교회에서 그리고 나들목교회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영적 청년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나들목교회의 핵심 일꾼들이다. 이 과정은 6 주간 진행된다.<sup>154</sup>

#### 바. 헌신가족 디딤돌

‘헌신가족 디딤돌’은 ‘언약가족 디딤돌’,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를 수료하고 이끄미와 가정교회 목자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나들목교회의 핵심철학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나라 복음 공동체인 가정교회를 이끄는 목자를 세우는 디딤돌의 마지막 과정이다. ‘헌신가족디딤돌’ ‘목자의 꿈과 비전, 목자의 7 가지 자질(리더십), 가정교회 인도의 실제, 하나님나라 운동가로서의 목자, 선배목자와의 만남’의 주제와 ‘가정교회 탐방’을 통한 가정교회 목자로 준비되는 실제적 훈련이다. 나들목교회의 목자는 영적부모로 하나님나라의 복음의 모델이며 척후병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공동체를 세울 것이다.<sup>155</sup>

<sup>154</sup> [http://nadulmok.org/?page\\_id=4637](http://nadulmok.org/?page_id=4637)

<sup>155</sup> [http://nadulmok.org/?page\\_id=6500](http://nadulmok.org/?page_id=6500)

#### 4. 분석 및 평가

나들목교회의 제자훈련을 분석하여 장단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 가. 나들목 교회의 제자훈련의 장점

나들목교회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15 년이상 다양한 고려와 꾸준한 임상 실험을 통해 개발되고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영적 성장의 7 단계와 5 단계 디딤돌 과정으로 체계화 되어 균형있는 성장을 하도록 돕는다.

나들목교회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책과 녹음, 녹화 영상으로 구성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초기 양육을 하고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그동안 선교단체나 교회의 제자훈련이 가지고 있던 장애물을 뛰어 넘도록 한다. 제자훈련을 통해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수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 복음대로 살아야 하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일은 모두가 잘하지는 못하는데, 이끄미와 따르미가 함께 동영상 강의를 듣고 나누는 방식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나들목교회의 제자훈련에는 예배의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나들목교회의 제자훈련 교재인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장에서 예배의 정의, 예배의 형태, 삶으로 드리는 예배 등에 대해서 일정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다.

나들목교회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제자훈련은 이원론적이고 교회중심적인 성장에 대한 도전이다. 즉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공동체와 사회, 문화와 역사 속에서 자발적 섬김을 통해 변혁의 열매를 맺는 변혁자의 삶을 시작하게 만든다. 특히 나들목교회의 가정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변혁 공동체로 지역에 침투하여 선교적 교회를 실현하고 있다.

##### 나. 나들목교회의 제자훈련의 단점

나들목교회의 제자훈련은 철저한 일대일 사역이다. 일대일 사역은 장점이 많지만, 양육자가 피양육자의 생활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일대일 사역



의 함정을 피하고 효과적으로 일대일 사역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없다. 나들목교회의 제자훈련 시리즈,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방식*에서 일대일 양육의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 일대일 양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 예배를 통한 한 몸의 지체의식 함양, 소그룹 사역과의 조화, 교차 교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 제3 절 행복한제자교회

행복한제자교회는 필자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로서 울산 남구 도심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선교적인 제자공동체를 꿈꾸는 교회이다. 행복한 제자교회는 2013년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받아오던 10여명의 형제자매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6개월간의 기도와 준비 끝에 개척한 교회이다.

행복한제자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 대한 믿음, 재림에 대한 소망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예배와 선교, 구제, 교육과 훈련 및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제자 배가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을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다.

#### 1. 목회철학

행복한 제자교회는 제자훈련, 즉 예수를 닮아가고 닮아가게 하는 일이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존방식이라고 확신한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의 사랑을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게 하며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이 선교적 제자도이며 이를 위한 훈련이 선교적 제자훈련이라고 믿는다.

행복한제자교회는 선교적 제자 공동체로서 가족됨의 정체성, 선교사로서의 정체성, 섬기는 자로서의 정체성, 배우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행복한제자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를 나타내는 삶을 통해 선교적 제자를 재생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주요 핵심가치는 지상사명, 제자 배가, 개인의 중요성, 섬김의 도, 탁월이다.

#### 가. 지상사명

대위임령은 제자가 되어 증인된 삶을 확장해 나갈 신실한 교회들을 본국과 다른 나라에 건설해 나가는 것이다. 교회가 임의적 임무변경으로 인해 점차 대위임령의 초점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행복한제자교회는 의도적으로, 실천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 위대한 사명 앞에 순종하고자 힘쓴다.

#### 나. 제자배가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선교적 마인드를 소유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스스로가 제자가 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다. 먼저 제자가 되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다(딤후 2:2).

#### 다. 개인의 중요성

각 개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며 또한 성령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므로 중요하며 가치 있는 존재이다(고후 5:16, 뵤전 2:9, 사 60:22). 본을 보이고 투명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대일 사역을 통해 선교적 제자를 만든다.

#### 라. 섬김의 도

우리의 임무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긴다(고후 4:5, 빌 2:3-4, 롬 14:17-18).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일 많이 섬기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기까지 섬기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

과 같이 겸손하고 죽기 직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 마. 탁월

우리는 탁월성을 추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해내야 한다(신 4:6-9, 뱀전 2:11-12, 골 3:23, 고전 9:25-27). 세상의 탁월성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갖게 되는 우월성을 뜻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탁월성은 다른 이와 비교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주신 것들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에서 온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 2. 제자훈련의 목적과 내용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선교적 마인드를 소유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세상에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무장되어야 한다. 단지 신앙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받은 사명을 실천하는 한 사람의 선교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선교적 제자는 윤리적 탁월성을 통해 세상과 구별됨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의 빛이 된다.

선교적 교회의 제자훈련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적 삶에 대해 도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행복한제자교회의 제자훈련 단계는 ‘전도 성경 공부’, ‘기초양육’, ‘제자훈련’, ‘사역자훈련’으로 되어 있으며, 각 성도는 자기의 단계에 맞는 성경공부 그룹에 소속될 뿐만 아니라 소그룹에 소속되어 소그룹 리더와 일대일 리더에게 양육을 받는다. 여기서 소그룹은 일반적으로 친교와 성경공부를 위한 소그룹과는 구별되는, 의도적으로 훈련을 목표로 삼는 소그룹이다.

일대일 사역과 재생산에 중점을 두는 행복한제자교회의 사역은 예배 훈련, 성경암송, 경건의 시간, 성경공부, 소그룹 모임, 수양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모든 것은 ‘제자삼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행복한제자교회의 특별한 제자훈련에는 선교관 사역(Home Training), 생

활훈련관 사역이 있다.

### 3. 제자훈련 프로그램

#### 가. 전도성경공부(Evangelize Bible Study)

행복한제자교회가 주로 사용하는 전도 성경공부에는 ‘요한복음 EBS’, ‘누가복음 EBS’, *인간과 하나님*<sup>156</sup> 교재가 있다. 전도성경공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마 28:19)이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성경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EBS 성경공부는 1주일에 한번 또는 2주일에 한번 만나서 같이 성경을 읽으며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인데, 요한복음 EBS 와 누가복음 EBS 내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요한복음 EBS 교재>

말씀 : 요한복음 1:1-18 <참 빛이신 예수님>

#### A. 태초에 계신 예수님(1-5)

##### 1. 태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1a)?-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1b,2)-

‘함께 계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14)?-

##### 2.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3)?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 3.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4)?

이 생명은 왜 사람들에게 빛이 됩니까(4)?

사람들의 가장 큰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sup>156</sup> 한국네비게이토선교회, *인간과 하나님* (서울: 네비게이토출판사, 2004),

4. 빛이 어두움에 비친다는 것은 어떤 사건을 말합니까(5)?

이 말씀을 볼 때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왜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했을까요?(5b, 고후 4:4)?

**B. 참 빛이신 예수님(6-13)**

1. 하나님께서 빛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6)?

그가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7,8)?

2.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할 때 ‘참 빛’의 속성이 무엇입니까(9)?

세상에 어떤 거짓 빛이 있습니까?

3. 참 빛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무엇입니까(10-12)?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12)?

그들이 어떻게 참 빛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13)?

**C.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14-18)**

1. 사람이 어떻게 태초에 계신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까(14a)?

2.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본래 어떤 분이심을 증거했습니까(15)?

은혜위에 은혜란 무슨 뜻입니까(16)?

모세와 예수님은 어떻게 다릅니까(17, 히 3:3-6)?

율법과 은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롬 3:20, 롬 5:20-21)?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18, 히 1:3, 빌 2:6)?

<적용 질문>

1. 당신이 요한복음 1 장에서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보십시오.

2. 요한일서 1:5-7, 빌 2:15, 엡 5:8-14, 롬 13:11-14 을 읽어보시고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에 대해 적어보십시오.

<누가복음 EBS 교재>

말씀: 누가복음 5:1-11 <만선(滿船)보다 귀한 고백 - 갈릴리 어부 베드로>

A. 접근하시는 예수님(1-4)

1. 게네사렛 호수가에 있던 사람들의 종류는 어떠하며, 그들은 각각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 예수님은 설교장소를 어디로 택했습니까?

말씀을 마치신 후 베드로에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한 때였습니까?(5)

3.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 있어 a-장소 b-시간 c-대화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누가 주도적이었습니까?

B. 고백하는 베드로(5-11)

4.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뭐라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습니까?

5. 그가 그물을 내리기로 결심한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로 짐작컨데 베드로의 경우 그는 밤새껏 무엇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았겠습니까?

6. ‘그리한즉(6)’이란 말에는 사실상 어떤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7.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a. 어획고

b. 자신의 깨달음(8)

c. 동업자와 무리의 반응(9,10)

d. 사명의식(10,11)

8. 시몬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의 자세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어떻게 달라졌으며(5,8 절 비교),호칭 각각이 의미 하는 바는?

9. 왜 그는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나서 자신이 죄인이란 고백을 했습니까?

a.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b. 자신에 대해

C. 적용

10. 나는 지금까지 나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 10:10)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약속하셨습니까?

11.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보고 있습니까?

‘인간과 하나님’ 성경공부 교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과 : 하나님의 관심

2 과 : 인간의 상태

3 과 : 하나님의 해결

4 과 : 인간의 책임

5 과 : 새로운 삶

나. 기초 양육

행복한제자교회의 기초 양육은 복음을 들은 결신자를 도와 나가는 8 주간의 과정이다. 기초양육 단계에서 강조해야 할 것은 ‘복음’이다. 건강한 출생이 되도록 도와주며, 명확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도와 준다.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리예화를 반복해서 설명해 주

고 이 단계에서 Key Word 는 ‘Enjoy’이다. 특히 3 가지를 즐거워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행 3:8,8:9,16:34, 느 8:10).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구원을 즐기는 사람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둘째는 예수님을 즐겨야 한다. 예수님을 즐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즐기고, 말씀을 즐겨야 되고, 암송과 경건의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등을 즐기는 것이다. 셋째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즐겨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좋아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양육목표를 돕기 위한 활동들이 있다. 전도용 성경공부를 시작한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다각적인 도움을 준다. 여러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예화’들을 만날 때마다 상황에 맞게 하나씩 나누어 준다. 말씀 읽기를 시작하도록 돕는다. 읽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으로 재미를 갖도록 돕는다. 개인의 필요를 알아 보고 함께 기도한다. 이런 것은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는 새로운 경험, 몸에 배이면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같이 기도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도록 돕는다.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시행한다.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것, 식사 대접 등을 한다. 구원 찬송을 같이 부른다. 그의 수준에 맞는 찬송으로 그의 즐거움에 동참, 가사에 해당하는 성경구절이나 배경을 설명해준다. 스포츠 교제나 식사 또는 다과의 교제에 참여하도록 한다. 세상 교제와의 다른 분위기를 경험케 한다.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신분에 맞는 실제적 도움을 준다. 같은 수준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친한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 부정적인 영향력들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돕는다. 옳지 못한 습관이나 죄를 버리도록 돕는다. 술, 담배, 이성관계 등에 대해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대처한다. 강요하면 안되고 더 좋은 것을 주어야 한다. 성경말씀으로 대처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다. 제자 훈련

행복한제자교회 제자훈련은 확립과정으로 기초양육과정을 마친 신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 8 개월 과정이다. 확립과정 단계에서 강조점은 ‘성장’이다. 이 단계에서 Key Word 는 ‘은혜’이고, 은혜 안에 강하고 은혜 안에서 자



라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의 목표는 삶속에서 항상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닳아가는 데 열심을 내고, 온전한 제자가 되어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선포하도록, 또 다른 제자들이 성장해가도록 돕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과정은 일대일 방식과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행되는 데, 먼저 일대일 방식으로는 어머니로서의 면에서 말씀을 먹여 주고 기도해 주며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아버지로서의 면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 한다.

이 확립 과정에서 주되게 도와 주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며, 양육 8 packages 를 다루는데, 양육 8 packages 는 구원의 확신, 경건의 시간, 말씀, 기도, 교제, 증거, Lordship, 세계비전이다. 첫째, ‘구원의 확신’은 구원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확신이 다져지도록 예화나 구원의 의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계속 성경을 통해 다져준다. 둘째, ‘경건의 시간’은 원리를 가르쳐 주고 같이 하며 보여줌으로 실제로 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경건의 시간에 관계된 소책자나 책자 공부를 하는 것도 좋다. 셋째, ‘말씀’은 말씀의 중요성, 권위, 능력, 가치 등을 가르쳐 주며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점검해 준다. 넷째, ‘기도’는 그의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하도록 돕는다. 기도의 방해요소, 주기도문의 원리, 기도의 순등을 가르쳐 주고 또 함께 기도한다. 다섯째, ‘교제’는 교제의 중요성 등을 예화로 가르쳐 주며 시간을 자주 함께 가지며 그가 스스로 섬기는 수준까지 가도록 돕는다. 여섯째, ‘증거’는 자연스럽게 구원 간증을 나누고, 요 3:16 말씀으로 증거하거나 다리예화를 사용하여 증거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같이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는 것이 좋다. 간증과 전도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일곱째, ‘그리스도의 주재권’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때 가르치는 것이 좋다. 주재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늘 갈등하며 살게 된다. 말씀을 통해 성경의 예를 들며 그가 지속적으로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 여덟째, ‘세계 비전’은 창 12:1-3, 마 28:19-20, 행 1:8 에 근거한 약속과 하나님의 관심, 재생산의 비전을 설명해준다. 선교헌금을 하거나 한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 세계 비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8개월간의 각 확립과정의 단계마다 해야 될 성경 암송 구절과 성경 공부가 별도로 있다.

둘째,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sup>157</sup> 교재를 가지고 주 1 회 공부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 시리즈는 10 권이 있으며, 제 1 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생명, 제 2 권: 그리스도와의 교제, 제 3 권: 그리스도와의 동행, 제 4 권: 그리스도인의 성품, 제 5 권: 믿음의 기초, 제 6 권: 봉사예의 성장, 제 7 권: 소망의 생활, 제 8 권: 교제의 생활, 제 9 권: 승리의 생활, 제 10 권: 자신의 성서 탐구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1-6 권 까지를 세번 정도 반복한 후에 7 권, 8 권, 9 권을 공부하며, 10 권을 통해서는 스스로 성경공부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준다.

#### 라. 사역 훈련

행복한제자교회 사역훈련은 무장과정으로 ‘제자훈련 과정’을 마친 제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살며 소그룹(팀)의 인도자가 되도록 돕는 12 개월과정이다. 무장과정 단계에서 강조점은 ‘사역’이다. 이 단계에서 Key Word 는 헌신이고, 헌신의 분위기가 중요하다.

사역훈련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구원 받은 결신자를 확립시켜 주는 과정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제자로 소그룹(팀)의 인도자, 즉 사역하는 제자가 되게 한다. 여기서 소그룹은 일반적으로 친교와 성경공부를 위한 소그룹과는 구별되는, 의도적으로 훈련을 목표로 삼는 소그룹이다. 사랑의 교회의 다락방이나 나들목교회의 가정교회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사역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사역하는 제자이기 때문이다.

사역과정에 다루는 주된 내용은, 말씀, 기도, 교제, 그리스도의 주재권, 순결, 사랑, 충성, 정직, 청지기, 조화, 전도, 제자삼기, 확립, 비전 등이다. 12 개월간의 각 무장과정의 단계마다 해야 될 성경 암송 구절과 성경 공부가 별도로 있다.

#### 마. 선교관 사역

선교관 사역(Home Training)이라는 이름은 필자가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받을 때, 사용

<sup>157</sup> 한국네비게이트선교회,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 (서울: 네비게이트출판사, 1994)

했던 훈련 명칭인데, 지금은 그냥 홈트레이닝이라고 한다. 교회 담임 목사 가정(홈)을 활용한 사역으로 주로 미혼 형제 자매들을 가정에 초청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훈련 과정이다. 홈트레이닝의 대상은 주로 팀이나 그룹을 맡고 있고, 앞으로 지도자로 세울 미혼 형제 자매들을 대상으로 성품을 훈련하고 사역 기술을 배우게 한다. 서로 관찰을 통해서 필요를 발견하고 섬기며 평가한다. 형제나 자매가 맡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담임 목사와 팀웍으로 일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이 담임 목사 부부의 삶을 관찰하고 같은 비전을 가지도록 돕고 크리스찬 가정을 미리 경험하도록 돕는다. 홈에서의 생활은 홈청소가 주된 일이고 특별한 가르침이나 상담 등의 시간은 많지 않으며 함께 하면서 섬기는 삶을 훈련하는 일에 가치를 둔다. 금요일 저녁에는 초신자를 함께 데려 와서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서 즐겁게 게임이나 운동을 하면서 토요일 오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 바. 생활훈련관 사역

행복한제자교회에는 두 생활훈련관을 운영한다. 미혼 형제들을 위한 생활훈련관과 미혼 자매들을 위한 생활훈련관을 운영한다. 교회의 비용으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전세를 얻어 성도들로 하여금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한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공동체적인 의식과 훈련을 통해 신앙을 세워가도록 돕는다. 생활훈련관 삶은 훈련된 리더가 인도하고 생활훈련관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계발, 성품 계발(잠 27:17), Team Work 계발, 세상적 영향으로부터의 보호, Leadership 계발이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신앙도 훈련받고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다.

## 4. 분석과 평가

행복한제자교회의 제자훈련을 분석하여 장단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 가. 행복한제자교회 제자훈련의 장점

행복한제자교회의 제자훈련은 일대일 사역과 재생산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

램으로 훈련목표와 계획이 구체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사역하는 제자로의 성장에 대한 강한 동기를 부여 한다.

행복한제자교회의 제자훈련에는 제자훈련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구와 방법이 잘 갖추어져 있다. 성경구절 암송, 수레바퀴 삶의 예화, 말씀의 손 예화, 구원의 확신 예화,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주재권, 순종, 묵상 등 64 주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제자 훈련 과정에 대한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있다.

행복한제자교회 제자훈련에는 선교관 사역과 생활훈련관 사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인도자와의 동행하는 도제교육과 몰입교육 방식으로 질적인 일꾼을 길러내고 있다. 성경공부가 아닌 삶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다. 진정한 제자훈련은 단순하게 성경의 내용이나 신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삶을 나눔으로써 이루어진다.

#### 나. 행복한제자교회의 제자훈련의 단점

행복한제자교회의 제자훈련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도록 하기보다는 훨씬 과제 중심적이므로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일수록 다소 감정이 메마르고 따뜻한 인간성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볼 때 제자훈련에서 신앙의 의지적인 면이 강조되어 신앙의 감정적인 요소를 약화시키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에서 성령의 역사와 그로 인한 감동이 약하다고 말할 수 있다.

행복한제자교회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개개인의 구원과 신앙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땅의 여러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질적인 변화를 강조하기 보다는 재산을 통한 세계복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자들의 직업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나 훈련이 결여되어 있다.

## 제 5 장

### 선교적 제자훈련의 실제적 방안

본 장에서는 3 장의 선교적 교회론에 입각한 선교적 제자훈련에 대한 이론 연구와 4 장의 사례 연구의 결과로서, 구체적인 선교적 제자훈련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장의 연구를 통해서 선교적 제자도에 기초한 제자훈련 사역 원리를 제시하였는데, 선교적 제자도를 강조한다고 해서 기존의 제자훈련 과정이 무의미한 것으로 부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기존 행복한제자교회 제자훈련의 기본원리와 방법들을 기초로 하여 신학적인 맹점이나 선교적 제자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생긴 결점들을 보완하여 선교적 제자 훈련의 실제적 방안을 정립하고자 한다.

복음주의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실시하는 제자훈련과 선교적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자훈련의 강조점은 몇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우선 기존 제자훈련은 개개인의 구원과 신앙성장에 초점을 맞추는데 비해 선교적 교회 제자훈련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기존 제자훈련은 재생산을 통한 세계복음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선교적 교회 제자훈련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여러 영역에 실현되는 질적인 변화를 더 강조한다. 기존 제자훈련에서나 선교적 교회 제자훈련에서 모두 성경을 강조하지만 성경을 훈련에 사용하는 방법 면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흑과 백으로 구별되듯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에서는 훈련을 위해 성경말씀이 사용되는데 비해 다른 한편에서는 다분히 성경신학적인 흐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들의 차이가 서로 대조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상호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기존 제자훈련은 소수를 선택하여 강한 제자훈련을 통해 헌신적인 제자를 양성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제자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적게 갖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선교적 제자훈련은 제자도의 폭이나 제자훈련의 영역이나 방법이 개인적 경건이나 교회 내부적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문화적으로 확장되어 각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

로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선교적 제자훈련에서 고려되어야 할 목회철학, 제자훈련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선교적 제자훈련의 실제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1 절 목회철학

선교적 제자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선교적 교회론에 기초한 목회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에 기초한 목회철학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라는 것과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정의를 받아 들인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실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때만 교회는 참된 존재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구원을 위해 교회로 은신하는 구약의 방주나 도피처 같은 소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적 존재로 적극적으로 존재한다. 보냄을 받은 사도적 존재로서의 교회는 교회가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하고 섬김으로 교회가 속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자신의 선교적 과제로 삼는다. 즉, 교회의 건물과 울타리를 넘어 지역 전체를 목회현장으로 인식하며 접근하도록 강조한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 자체의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이며, 세상과 관계하며, 세상을 변혁시키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요청 받은 존재이며,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제자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선교적 교회는 평신도의 역할이 회복되는 교회이다. 선교적 교회론에서는 그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앙과 사역의 주역임에도 목회의 대상이자 피동적 존재였던 평신도의 역할과 위치가 강조된다. 교회가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은 선교가 특정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체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그 본질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교적 제자훈련이 지역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것은 목회자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들 하기 때문에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으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몰라서 무슨 좋은 방법이 없나 찾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역 교회에서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목회자가 값을 치루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즉, 확고한 목회 철학이 없는 제자훈련은 실패하기 쉽다.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훈련을 자신의 목회철학과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면 장애물이 많다. 제자 훈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평신도 지도자와 훈련을 거부하는 교회의 전통과 문화가 그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제자훈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목회자 자신이다. 목회자가 제자훈련을 제대로 감당할 만큼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제자훈련이 뿌리를 내리려면 미쳤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목회철학이 분명해야 한다.

먼저, ‘제자훈련’ 즉, ‘예수를 닮아가고 닮아가게 하는 일’이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존방식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국교회와 제자훈련의 갱신과 개혁을 위해 지금까지 교회 내의 종교활동으로 편중되었던 제자도는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가치가 드러나도록 순종하는 선교적 제자도로 전환되어야 하고, 선교적 제자도의 삶을 살기 위해 선교적 제자훈련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목회철학을 가져야 된다고 본다.

## 제 2 절 제자훈련의 목적과 내용

기존 제자훈련은 재산을 통한 세계복음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선교적 교회 제자훈련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여러 영역에 실현되는 질적인 변화를 더 강조한다. 선교적 교회의 제자훈련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대행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이루어나가는 선교적 삶에 대해 도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종종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평신도들을 특정 사역에 투입하기 위한 목회적 전략으로 각광 받는다. 그러나 선교적 제자훈련은 특정 분야의 기능인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실현할 줄 아는 인물을 키우는데 있다. 한 사람의 구도자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계속해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끌어 가는 사람으로, 즉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 영적 부모로 자라가는 영적 성숙에 이르도록 하는데 제자훈련의 목적이 있다. 다시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실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제자훈련을 통해 정상적이고 균형 있게 성장해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변혁, ‘안팎의 변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제 3 절 선교적 제자훈련의 실제적 방안

선교적 제자훈련의 실제적 방안은 기존 행복한제자교회 제자훈련의 기본원리와 방법들을 기초로 하여 신학적인 맹점이나 선교적 제자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생긴 결점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자도의 폭이나 제자훈련의 영역이나 방법이 좀더 포괄적으로 된 새로운 차원의 제자 훈련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교적 제자훈련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제자훈련의 방향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기존의 제자훈련의 과정이나 내용, 관심사 등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각 단계의 제자훈련 과정에서 선교적 제자훈련을 실시 할 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주요 훈련 항목 중심으로 선교적 제자훈련의 실제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기초 양육

행복한제자교회의 기초 양육 과정은 복음을 들은 결신자를 도와 나가는 8 주간의 과정으로 결신자들이 전도용 성경공부, 구원의 확신 예화 나눔 등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돕는다.

##### 가. 전도성경공부

전도성경공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마 28:19)이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



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전도성경공부는 1 주일에 한번 만나서 같이 성경을 읽으며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하여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제자훈련에서는 전도성경공부시에 *인간과 하나님*<sup>158</sup>이라는 교재를 주로 사용한다. 이 교재는 하나님의 관심, 인간의 상태, 하나님의 해결, 인간의 책임, 새로운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제시되고 있는 복음이 죄의 용서, 칭의에 그친다. 즉, 예수와 함께 이미 이 땅에 오고 지금 성령의 힘으로 그가 행사하는 주권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구원 통치와 그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든 영역들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선교적 제자훈련의 전도성경공부에서 중요한 점은 복음 제시의 초기에서부터 복음의 사회적인 측면이 제자화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 개인적 회심과 사회적 개혁과의 긍정적인 상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께서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개인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셨다. 그러므로 개인의 구원은 다른 사람의 구원과 연결될 때 궁극적이고 가장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이다.<sup>159</sup> 따라서 선교적 제자훈련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 제시의 초기부터 복음의 사회적인 측면이 제자화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선교적 제자훈련에서는 기존 *인간과 하나님* 교재 대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나라 제자훈련*<sup>160</sup>의 제 1 과 ‘복음이란 무엇인가’와 *풍성한 삶의 기초*<sup>161</sup>의 제 1 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를 교재로 사용한다.

#### 나.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돕는 문제도 기존 제자훈련 방식과 선교적 제자훈련 방식은 달라질 수 밖

<sup>158</sup> 한국네비게이트선교회, *인간과 하나님* (서울: 네비게이트출판사, 2004)

<sup>159</sup> Waldron Scott, *사회정의와 세계선교를 향한 제자도 (Bring Forth Justice)*, 강선규 역 (서울: 두란노, 1997), 233.

<sup>160</sup> 이종필, *하나님나라 제자훈련* (서울: 목양, 2016)

<sup>161</sup> 김형국, *풍성한 삶의 기초* (과주: 비아토르, 2018)

에 없다. 구원을 개인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우주적인 차원으로 이해한다면 구원의 확신 문제도 개개인의 구원문제로 국한시키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확대 해석하게 된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고린도후서 5 장 17 절의 해석 문제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 특히 제자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게 됨을 강조해왔다. 이때 사용된 *Ktisis* 는 피조물(Creature)로도 번역이 되지만 창조 자체(Creation)으로도 번역이 된다. 후자의 관점으로 보완이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란 말은 개개인이 예수를 믿게 되는 차원보다 더 넓게 모든 창조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역사적인 차원으로 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개개인의 변화를 확인하는 한편 그리스도로 인해 피조 세계에 변화가 있었음을 인식하는 또 다른 확신이 필요하다. 아마도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우주적인 확신 혹은 역사적인 확신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확신이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만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오늘 우리가 처한 사회에 대해서 훨씬 더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교적제자훈련에서는 구원에 대한 부분적 이해, 오해, 왜곡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의와 확신을 돕기 위해 교재로 사용하는 책은 로날드 사이드의 *복음전도와 사회운동*과 짐윌리스의 *회심*이다. 두 책은 모두 진정한 성경적 관점이 어떻게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분리하지 않은 채 그 둘을 상호 연관적이고 밀접한 관계에 두는지에 대해 잘 보여준다.

로날드 사이드는 그의 책 *복음전도와 사회운동*에서 “구원은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이다. 개별적이면서도 사회적이다”라고 하였다.<sup>162</sup> 현대 복음주의의 비극은 오직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죄를 다루는 것이다. 짐 윌리스는 그의 책 *회심*에서, “성경적으로 회심은 우리가 인간 존재의 모든 범위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향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영적이고 경제적인, 심리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영역에서 말이다”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외관뿐 아니라 자세에서, 머리뿐 아니라 마음에서, 세계관뿐 아니라 행위에서, 사상뿐 아

<sup>162</sup> Ronald J. Sider, *복음전도와 사회운동 (Good News and Good Works)*, 이상원, 박현국 역 (서울: CLC, 2013), 147.

나라 활동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말했다.<sup>163</sup>

선교적 교회론적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두 책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우리 시대의 사회, 정치적 상황을 성경의 눈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민감한 돌봄과 나눔이 있는 열린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돕는다.

훈련과정은 1 주일에 한 번씩 개인 교제시에 미리 한 과씩 읽고 책의 내용 요약과 적용을 정리하여 가져와서 함께 나눈다.

## 2. 제자훈련

행복한제자교회 제자훈련은 ‘확립과정’으로 기초양육과정을 마친 신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8 개월의 과정이다. 이 과정의 목표는 삶속에서 항상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닮아가는 데 열심을 내고, 온전한 제자가 되어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선포하도록, 또 다른 제자들이 성장해가도록 돕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확립 과정에서 주되게 도와 주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며, 구원의 확신, 경건의 시간, 말씀, 기도, 교제, 증거, Lordship, 세계비전 등이다.

선교적 제자훈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교적 교회론과 선교적 제자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갖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교육은 예배와 설교, 성경공부, 제자훈련, 선교훈련을 통틀어 동일한 목적과 방향성과 내용을 가져야 한다. 선교적 설교, 선교적 성경공부, 선교적 제자훈련 등 제반 교육들이 선교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선교적 제자훈련이 그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식이나 정보 전달 위주의 학습 방식에서 벗어나 전인격적 변화와 삶에서의 실천을 강조해야 한다. 즉,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그의 삶을 닮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이것은 예수의 행적을 피상적으로 모방하는 것이나 그의 완전함에 이르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자도에 대한 요구는 이미 전도하기 전부

<sup>163</sup> Jim Wallis, *회심 (The Call To Conversion)*, 정모세 역 (서울: IVP, 2016), 35-39.

터 시작되어 생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함과 거룩함을 말한다. 선교적 교회의 제자도는 그 최종적 목표를 인격적 변화와 실천적 삶의 구현에서 찾는다. 학습 방식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지식의 적용 및 실천을 중시하는 제자훈련이 되도록 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제자훈련의 방향이나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을 회복하고자 하는 선교적 교회론에 따라 새롭게 정의해야 할 주요 훈련 항목들을 다루고자 한다.

### 가. 훈련의 자세

선교적 제자를 훈련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제자 훈련의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제자 삼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강한 훈련은 종종 비인격적인 교육과 혼동이 되곤 한다. 대부분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영적 사역을 위한 재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바람에 훈련 대상을 인격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자 훈련을 위해서 개인의 정서나 취향, 관심사들이 무조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모든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훈련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제자 훈련을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듯이 획일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인간의 개성 차이를 인정해 주는 여유가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대화-교제식의 양육이 되어야 한다. 이것 역시 지금까지의 제자 훈련의 방식에 변화를 요구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선교적 제자 양성은 사람에게 대한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된다. 3 년여의 짧은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대부분 시간을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께서 다름 아닌 작고 무능해 보이는 12 명의 무리에게 집중하셨다. 주님은 요한복음 17 장에서 공생애를 요약하시면서 그분이 행하셨던 엄청난 일들과 기적들을 언급하지 않으셨다. 대신 자신의 모든 것과 다름이 없었던 제자들에 대해서는 40 번이나 넘게 말씀하셨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일차적 관심사는 오직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과 제자들을 향한 애정의

깊이와 평생 쏟아 부으신 투자의 폭이다.<sup>164</sup>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집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제자 삼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선교적 제자도는 선교적 교회가 실현되는 데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기존의 편향된 제자도를 극복하게 한다. 이러한 선교적 제자도의 삶을 살기 위한 선교적 제자훈련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제자훈련가 자신이 먼저 선교적 제자도를 삶으로 실천하는 급진적인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 나. 일대일 양육

나들목교회나 행복한제자교회의 제자훈련은 일대일로 이루어진다. 일대일 양육은 장점이 많지만, 양육자가 피양육자의 생활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선교적 제자훈련에서는 일대일 양육의 함정을 피하고 효과적으로 일대일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실행한다.

일대일 양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한 몸의 지체의식이 함양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신학적 관점에서 일대일 사역과 소그룹 사역, 그리고 교회 전체 사역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소그룹과 교회 전체적인 사역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교차 교제(cross fellowship)를 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양육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베도로는 장로들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당부했고(벧전 5:3),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고후 1:24)라고 하였다.

일대일 양육은 영적인 공동체의 본질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선교적 제자훈련의 일대일 양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초점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전통적 제자훈련

<sup>164</sup> David Platt, *래디컬*, 127.

의 일대일 양육의 일차적 관심이 개인과 조직 자체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선교적 제자훈련은 나와 우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선교에 있다. 이는 교회에 기초한 일대일 양육에서 왕국에 기초한 일대일 양육으로의 변환을 요구한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에서 일대일 양육은 성도 개인과 그들의 공동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황을 식별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은사를 발견하며 섬김과 복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공동의 문화를 형성하고 이끌 수 있어야 한다.

행복한제자교회의 일대일 교제는 주 1 회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행복한제자교회의 모든 사역은 기본적으로 일대일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대일 교제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행복한제자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일대일 교제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용되는 교제는 매우 다양하며 *풍성한 삶의 첫걸음*<sup>165</sup>, *풍성한 삶의 기초*<sup>166</sup>, *김동건의 신학이야기*<sup>167</sup>, *팀켈러의 일과영성*<sup>168</sup>,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sup>169</sup> 등의 성경공부 교재가 쓰인다. 게다가 특징적인 것은 자체 제작된 성경원리를 정리해 놓은 다양한 내부 자료들<sup>170</sup>이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 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리스도의 주재권에서 훈련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님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께 드러지지 않은 영역들을 찾아 그 영역을 주님께 드러 주님이 주재권을 행사하시도록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드러내는 것이다.

로날드 J. 사이더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성”을 이야기 하면서,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가 완전히 틀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생각과 행

<sup>165</sup> 김형국, *풍성한 삶의 첫걸음*

<sup>166</sup> 김형국, *풍성한 삶의 기초*

<sup>167</sup> 김동건, *김동건의 신학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sup>168</sup> Timothy Keller, *일과영성 (Faith & Work)*, 최종훈 옮김 (서울: 두란노, 2016)

<sup>169</sup> 이종필,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 (서울: 목양, 2016)

<sup>170</sup> 이것은 출판되지 않은 문서들로, 주로 리더들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거나 워십을 통하여 만들어지기도 한다. 선교적 제자훈련의 여러 훈련 항목에 대한 원리와 지도서들이다.

동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두어야 한다”고 말하였다.<sup>171</sup> 그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의 메시아 소망을 떠올려 보아야 하고, 선지자들의 메시아 소망은 하나님의 바른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인간 외의 피조물과의 갱신된 관계에 중심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이러한 3가지 관계들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로 “많은 유력한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행위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님이심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다”라고 강조하였다.<sup>172</sup>

기존 제자훈련의 교과서로 널리 인정되는 리로이 아임스의 *제자삼는 사역의 기술(The Lost Art of Disciple making)*에서는 ‘제자의 자격’을 7가지로 말하는데, 그 중 첫번 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자신의 삶의 주요 영역에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며, 죄에서 떠나는 길을 밟고 있는 자(눅9:23, 롬 12:1-2)라고” 말한다.<sup>173</sup> 이 제자의 자격에서 “자신의 삶의 주요 영역”이라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데, 기존 제자훈련에서는 “자신의 삶의 주요 영역”이 그 사람의 공적인 생활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았지만, 선교적 제자훈련에서는 그 사람의 공적인 생활까지도 포함하고 이 “주요 영역”에 전체적인 부정이나 인권의 유린, 굶주리는 수 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죄로부터의 분리”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그 죄가 술 취함이나 음란 등의 개인적인 죄악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악들이나 제도적인 악, 특히 국제사회에서 행해지는 엄청난 경제적인 죄악들이 이 죄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의 제자들은 종교 영역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특히 가정과 직장에서 주님의 주되심, 통치 아래서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권이 아닌 가정과 직장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즉, 주님께서 보내셔서 만들어진 가정과 주님께서 보내셔서 일하게 된 직장의 개념을 가져야 한다. 그런 삶을 우리는 성도들의 선교적 삶이라고 한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에서도 이런 주제와 패턴은 그대로 반영되었다 (엡 5:22-6:9; 골 3:18-4:1; 살전 4:3-12).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어디에

<sup>171</sup> Ronald J. Sider, *복음전도와 사회운동 (Good News & Good Works)*, 이상원, 박현국 역 (서울: CLC, 2013), 74-75.

<sup>172</sup> Ibid., 93.

<sup>173</sup> Leroy Eims, *제자삼는 사역의 기술*, 230.

살아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말한다. 선교적 교회의 제자들은 가정과 직장을 근본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곳으로 인정하고 그 곳에서 주님의 선교를 실천해야 한다.

주요 교재로는 *내마음 그리스도의 집*<sup>174</sup>, *그리스도의 주재권*<sup>175</sup>,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자도*<sup>176</sup>, *복음전도와 사회운동*<sup>177</sup> 이 사용되는데, 주로 함께 읽으면서 공부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해야 할 실제적인 영역들을 찾아보고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결단하도록 격려한다. 행복한제자교회에서는 수양회 Workshop 에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한 원리를 공부하고 깊이 있는 토론과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개인 교제시에 주재권의 장애 요소를 알아 제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영역부터 몸에 배이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한다.

#### 라. 성경 읽기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다(신 17:19). 성경 읽기의 훈련 목표는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경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 위하여 스스로 성경 읽기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읽게 하는데 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더라도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알지 못한 채 읽는다면 자기 발전을 위한 지침서나 자기를 과시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기존의 제자훈련에서의 성경 읽기는 하나님 나라의 의식에 입각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성경을 온통 개인 실존의 차원으로 국한시켜 버린 편협한 읽기였다고 생각된다. 적용 또한 올바른 사회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왕권 같은 말씀들의 사회적, 구조적 측면이 모두

<sup>174</sup> Robert Boyd Munger, *내마음그리스도의 집 (My heart Christ's home)*, 신은재 역 (서울: IVP, 2004)

<sup>175</sup> Jerry White, *그리스도의 주재권 (Choosing Plan A in A Plan B World)*, 네비게이트 출판부 역 (서울: 네비게이트, 1992)

<sup>176</sup> Tom Sine, *하나님 나라 제자도 (Taking Discipleship Seriously)*, 주순희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5)

<sup>177</sup> Ronald J. Sider, *복음전도와 사회운동 (Good News & Good Works)*, 이상원, 박현국 역 (서울: CLC, 2013)



사라진 사스럽고 개인적인 측면에 치우친 적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선교적 제자훈련에서 성경 읽기 훈련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읽자는 것으로, 즉 선교적으로 읽고 하나님 나라의 의식에 입각한 성경읽기를 하자는 것이다.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선교에 비추어 읽는다는 것이다.<sup>178</sup>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증언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임을 인식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의 소명이라는 점에 대해 더 분명한 확신과 비전을 갖게 된다고 본다.

서구 신학의 무비판적 수용과 구약에 대한 경시로 인해, 기존의 성경읽기는 매우 협소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성경읽기와 묵상과 설교가 개인의 만족과 위로와 결단과 도전 정도로 멈추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이고 사적인 성경해석이 어느새 교회의 주류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성경관은 사회 구조적 모순과 문제 앞에서도 자신의 문제와 죄와 구원에만 방향을 잡는다. 그러나 성경은 나를 넘어 주위를 살피고 사회와 국가를 보게 한다. 성경을 읽고 듣는다는 것은 철저히 내면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불의와 참상 앞에 선지자적 소리를 발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 보여주신 관심은 하나님의 정의와 그 백성들 사이에서 정의의 실현이라는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최소한 세계 인구의 3/4 정도의 사람들의 삶이 나타내는 뚜렷한 특징은 가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용되는 교재는 *신약을 선교적으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sup>179</sup>, *나를 넘어서는 성경읽기*<sup>180</sup>, *사회정의와 세계선교를 향한 제자도*<sup>181</sup>, 이다. *신약을 선교적으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성경을 읽을 때 더 충실하게 성경을 읽게 되도록 도와주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바울서신,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의 순서로 각 책을 선교적으로 읽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나를 넘어서는 성경읽기*는 ‘개인적 적용의 범

<sup>178</sup> Dean Flemming, *신약을 선교적으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 (Why Mission)*, 한화룡 역 (서울: 대서, 2017), 10.

<sup>179</sup> Ibid.

<sup>180</sup> 김근주, *나를 넘어서는 성경읽기* (서울: 성서유니온, 2018)

<sup>181</sup> Waldron Scott, *사회정의와 세계선교를 향한 제자도*

람, ‘구약의 경시’ 등 잘못된 성경읽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식에 입각한 성경 읽기를 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사회정의와 세계선교를 위한 향한 제자도*에서는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읽도록 동기부여하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을 배우게 한다.

#### 마. 성경공부

성경공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성경공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즉 성서적인 자질을 갖추어 가기 위한 주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해석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기존 제자훈련에서는 윌터 헨릭슨의 *평신도 성경 해석 지침*<sup>182</sup>에 따라 해석하도록 가르쳤으나 선교적 제자훈련에서는 이와 더불어 성경을 연구할 때 사회학적인 안목의 적용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 안목은 사회학이나 인류학 같은 학문뿐 아니라 TV 나 신문들을 통해서도 키워질 수 있다. 성도들이 자신들이 사는 세상의 틀에 박힌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도전하고 성경을 사회적 상황에 따라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즉, 성경 자체나 현실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사회적 요인을 인정하고 사회학적인 상상력을 계발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선교적인 제자가 되기 위한 성경 공부는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과 성경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확신과 헌신이 생기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그 후에 그 활동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부를 위해서는 성경 공부 교재의 모형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네비게이토 선교회의 SCL(Studies in Christian Living)과 DFD(Design for Discipleship) 시리즈, 사랑의 교회의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시리즈 등 기존의 교재는 더 이상 선교적 제자훈련에 적합하지 않다. 행복한제자교회는 킹덤처치연구소<sup>183</sup>의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 시리즈와 나들목교회의 *풍성한 삶* 시리즈를 사용한다. 이러한 제자훈련 교재는 오랜 기간 다양한 고려와 꾸준한 임상 실험을 통해 개발되고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체계화 되어 선교적 제자로 균형있는 성장을 하도록 돕는다.

<sup>182</sup> Walter A Henrichsen, *평신도성경해석지침 (A layman's guide to interpreting the Bible)*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sup>183</sup> <http://fnlchurch.org/>

선교적 제자훈련 교재는 훈련받을 대상에 따라 내용이나 수준이 다르게 편집되며, 또 다루어야 할 주제에 따라 제자훈련 방식이 다르게 된다. 제자훈련의 방식으로는 ‘개념점검’, ‘반복적 실행’, ‘생활속 체득’이 있다. ‘개념점검’은 어떤 주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개념 파악을 제대로 하면 학습 목표가 달성되는 성격의 과(科)다. ‘반복적 실행’은 개념의 파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복되는 정기적 부정기적 훈련에 의해 신앙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할 성격의 과(科)에 대한 것이다. ‘생활 속 체득’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기질과 관점, 이해의 차이 때문에 충돌이나 마찰을 겪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는 식의 체험을 하는 일 등을 통해서 훈련하는 방식이다.

#### 바. 기도

기도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다. 훈련의 목표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 매일 개인적으로 10 분 이상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고, 그룹 기도에도 확신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여 기도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체험하는데 있다.

기도는 친교 기도와 사역 기도로 나눌 수 있는데, 친교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라면, 사역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제자훈련에서는 사역 기도로 ‘추수할 일꾼’(마 9:37-38)을 보내 주시도록 기도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선교적 제자훈련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기도훈련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마 6:33)를 구하는데 우선순위를 드리는 삶을 살도록 돕는다.

선교적제자훈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법을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도록 한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그저 주기도문을 외울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방식으로 기도해야 한다. 단지 사람들의 기도제목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에 비추어 그 기도제목으로 중보 기도하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 부록에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훈련을 위한 좋은 예가 3 가지 제시되어 있는데, “주기도문을 따라 드리는 자신을 위한 기도”, “주기도문을 따라 드리는

자신의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주기도문을 따라 드리는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다. 행복한제자교회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훈련을 위해서 *풍성한 삶의 첫걸음과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sup>184</sup> 책을 교재로 사용한다.

#### 사. 교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며 연합하는 것이다(히 10:24-25, 마 18:20). 교제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체 예배, 소그룹 모임에 연합과 사랑을 보이는 삶을 지속하게 하는데 있다.

기존 제자훈련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가르치며 기존 믿지 않는 친구, 교수, 가족, 선배 등과의 관계를 멀리하도록 권면한다. 즉 전통적 - 끌어모으는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예수의 명령과는 반대로, ‘나와서 분리되라’는 말을 자주한다.<sup>185</sup> 보통 이런 접근에서는 새신자들이 자신의 소중한 사회적 배경으로부터 즉시 뺏혀 나와 우정의 관계망에서 단절되어 버린다. 기존 제자훈련에서는 주 예수와의 연합이 죄인들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때로 새신자들은 이전에 맺은 “죄인”들과의 친구 관계를 포기하고 다른 신자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개발하는데 집중하라는 권면을 받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죄인들의 친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시종일관 그 사회의 가난한 자들 속으로 들어가셨다. 예수와의 동일시를 세상으로부터의 탈퇴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들의 증거를 엄청나게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오해하고 우리의 전 삶에 대한 복음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sup>186</sup>

따라서 선교적 제자훈련에서는 새신자들이 자신의 관계망에 머물면서 훈련과 양육과 지원으로 친구들을 그리스도께 이끌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시작하도록 돕는다. 선교적 제자훈련은 신자로 하여금 사회적 사역을 갖도록 권장하고 이 사회적 사역이 의도적이고 선교적이며 은혜가 넘치며 관대하도록 돕는다. 기존 관계를 맺고 있는 동호회나 직장의 골프 모임,

<sup>184</sup> 김형국, *주기도문* (서울: 죠이선교회, 2017)

<sup>185</sup> Michael Frost & Alan Hirsch, *새로운 교회가 온다*, 109.

<sup>186</sup> Waldron Scott, *사회정의와 세계선교를 향한 제자도*, 257.

회식 등에 참석하는 것을 막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미그리스도인들과 밀접한 우정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모험을 기꺼이 감수하게 한다. 즉,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을 갖도록 도와준다. 여기서 교회의 기도가 중요한데, 신자가 그 안에서 빛이 되어 영향을 주는 삶을 살도록, 미그리스도인 친구들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기도로 지원하는 것이다.

행복한제자교회는 수요일 밤 예배를 기도 모임으로 바꾸고, 교회 가까이 사는 성도들 중심으로 기도 모임을 하고, 교회에서 멀리 거주하는 성도들은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교회에 있었을 그 시간에 무언가 선교적 일을 하도록 격려한다.

#### 아. 복음전파와 전도훈련

제자훈련의 기본은 역시 복음전파이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교회로 인도해 오는 정도로 전도를 이해한데 비해 제자훈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강조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가 개개인의 구세주가 되는 것은 강조됐지만 예수님 자신이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각오했듯이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은 대체로 약화되는 것 같다. 그 결과, 예수님을 개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주로는 영접하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러한 전도는 통계적으로 볼 때 많은 열매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전도와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나들목교회 김형국 목사의 주장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된다. 그는 복음전파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했다.<sup>187</sup> 그래서 어떤 사람을 기독교라는 종교로 개종시킨다는 차원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으로 소개하며 그를 영접하되 구원의 방편으로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모시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sup>187</sup> 김형국, *풍성한 삶의 기초* 384.

전도를 받은 사람이 제자로 성장하게 될 때 분명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전도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도훈련 자체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훈련을 위해서 기본적인 틀이 되는 성구는 암송하도록 해야 하겠으나 암송한 성경구절이나 말들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영적인 지혜와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행복한제자교회는 *전도의 유산*<sup>188</sup>, *복음적 삶의 기초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 Workbook 2*<sup>189</sup>, *풍성한 삶의 기초 워크북*<sup>190</sup> 등을 교재로 사용한다.

#### 자. 큐티(Q.T)훈련

구원의 확신이 주님과 관계의 강화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큐티는 주님과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자훈련의 중요한 요소이다. 하나님과 개인교제의 측면에서 큐티는 여전히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목상이나 개인적인 적용이 개인만을 위한 경건생활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영성 계발이나 경건생활을 위한 훈련에 하나님 나라의 안목이 결여되면 그야말로 이기적인 신앙을 키우기가 쉽다.

그러므로 큐티훈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개인의 사생활에 관계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구석구석을 향해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도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비전을 변화시켜주며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과 모든 사람과 역사를 보게 해준다”고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은 바로 하나님나라의 비전으로 큐티훈련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 준다.<sup>191</sup>

큐티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인데, 이것이 익숙하게

<sup>188</sup> 김선일, *전도의 유산* (서울: SFC, 2016)

<sup>189</sup> 이종필, *복음적 삶의 기초* (서울: 목양, 2018)

<sup>190</sup> 김형국, *풍성한 삶의 기초 워크북* (과주: 비아토르, 2018)

<sup>191</sup> Thomas Merton, *마음의 기도 (Contemplative Prayer)*, 이영식 역 (서울: 성바오로, 2011), 112.

되면서 성경 공부로 전환되어 점차 메말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큐티를 하기 위해 성경을 펴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훈련이 된다면 묵상하는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

주요 교재로는 *Quiet Time 으로의 초대*<sup>192</sup>, *경건한 생활 관리*<sup>193</sup>,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신약 관통*<sup>194</sup>,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구약 관통*<sup>195</sup> 등이 있다.

행복한제자교회는 매일 읽을 성경 말씀을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카톡방에 올린다. 또 카톡방에는 그날 받은 축복을 올려서 서로 나누고 격려한다. 그리고 개인 교제시에도 항상 먼저 한 주 동안 받은 경건의 시간 축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 때 하나님 나라 관점이나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법을 본을 보이며 가르쳐 준다.

#### 차. 예배 훈련

선교적 제자훈련은 예배의 훈련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제자훈련 과정에는 예배의 훈련이 빠져 있다.

진정한 선교는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한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선교를 무시하지 않는다. 선교와 예배를 전혀 다른 두 가지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들은 깊은 연관성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촉진한다.<sup>196</sup> 따라서 선교적 제자훈련에서는 예배의 의미와 각종 예전 의식의 역사, 개인의 예배에서 공동체의 예배까지 갖추어져야 할 내용과 태도의 요소,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몸으로 익혀야 할 것들에 대하여 다룬다.

예배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하는 것이다. 처음 얼마간은 이끄미가 함께 참석하도록 하고, 이끄미의

<sup>192</sup> Jean Fleming, *Quiet Time 으로의 초대 (Feeding Your Soul)* (서울: 네비게이트, 2002)

<sup>193</sup> 네비게이트선교회, *경건한 생활 관리* (서울: 네비게이트, 2018)

<sup>194</sup> 이종필, *신약 관통* (서울: 넥서스 CROSS, 2017)

<sup>195</sup> 이종필, *구약 관통* (서울: 넥서스 CROSS, 2017)

<sup>196</sup> 이상훈, *처치 시프트*, 128.

간증을 통해 예배가 주는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개인의 찬미, 공동체적인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형태가 있음을 가르쳐 주어 주님과 교제를 더욱 풍성히 누리도록 돕는다.

기존 제자훈련의 예배의 중심이 말씀선포였다면, 선교적 제자훈련의 예배는 예배 가운데 예식과 찬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찬양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이유는 함께 노래함으로써 같은 말을 동시에 말하고 기도하게 되기 때문이다. 찬양은 성도들을 하나되게 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근본 요인은 지성이 아니라 욕망이며 제자도는 앎과 믿음의 문제라기보다 열망과 갈망의 문제라는 것과 욕망은 생각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오고 습관은 생각이 아니라 예전을 통해 형성된다는 사실이다.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근원적 습관을 다시 만들어 가시는 하향적 만남으로의 초대로 이해할 때 반복은 매우 중요하고 반복은 하나님이 우리 습관을 바로 잡으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격려한다. 예배의 훈련을 위한 교재는 *풍성한 삶의 기초와 풍성한 삶의 기초 워크북*이며, 주요 내용은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세 가지 형태의 예배’,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카. 세계비전

세계비전은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도 동일하게 세계를 마음에 품고 지상사명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다(마 28:19-20). 세계비전의 훈련 목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를 보고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 비전과 연관된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며 기도와 헌금을 통해 세계 선교에 동참하게 하는데 있다.

기존 제자훈련에서는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세계비전’을 가지도록 도전했다. 그리고 세계비전이란 단순하게 “하나님께 항상 그 마음에 품고 계신 것, 즉 온 세계를 마음에 품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선교적 제자훈련에서는 세계비전을 조금 수정 한다. “세계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이 세계를 보는 것이다.” 예수는 마태복음 9장36절에서 “무리를 보시



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하셨다. 히브리 성경에서 “공홀”이라는 단어는 헤세드(חסד)이다. 이 단어는 사회정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이다. 우리는 예수의 공홀이 사회정의에 대한 구약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97</sup> 사회정의를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에 있어서 동기가 되는 것이다.

선교적인 제자훈련에서는 전세계적인 관점에서 선교를 보도록 도전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회문제나 가난한 자들을 보고 행동하도록 돕는다. 기존 제자훈련은 재생산을 통한 세계복음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선교적 교회 제자훈련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여러 영역에 실현되는 질적인 변화를 더 강조한다.

주요 교재로는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sup>198</sup>, *사회정의와 세계선교를 향한 제자도*<sup>199</sup>, *불타는 세계비전*<sup>200</sup>, *영적 재생산*<sup>201</sup>, 등이 사용되고 도슨 트로트맨<sup>202</sup> 등 기타 선교사 전기집을 함께 읽는 것도 좋다. 책자 공부는 대부분 책의 내용을 이끄미가 먼저 읽고 문제를 만들어서 따르미에게 주어서 따르미가 책을 읽으며 답을 적어와서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3. 사역훈련

행복한제자교회 사역훈련은 무장과정으로 ‘제자훈련 과정’을 마친 제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살며 소그룹(팀)의 인도자가 되도록 돕는 12 개월과정이다. 사역훈련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구원 받은 결신자를 확립시켜 주는 과정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제자로 소그룹(팀)의 인도자, 즉 사역하는 제자가 되게 한다. 사역과정에 다루는 주된 내용은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그리스도의 주재권, 순결, 사랑, 충성, 정직, 청지기, 조화, 비전, 제자삼기, 사회적책임, 리더십, 홈트레이닝, 생활훈련관, 선교교

<sup>197</sup> Waldron Scott, *사회정의와 세계선교를 향한 제자도* 147-148.

<sup>198</sup> 이종필, *하나님 나라 제자도*.

<sup>199</sup> Waldron Scott, *사회정의와 세계선교를 향한 제자도*

<sup>200</sup> Bob Poster, *불타는 세계비전* (서울: 네비게이트, 2009)

<sup>201</sup> 하진승, *영적 재생산* (서울: 네비게이트, 2005)

<sup>202</sup> Betty Skinner, *도슨 트로트맨 (The Story of Dawson Trotman)* (서울: 네비게이트, 2006)

육 등이다.

### 가. 제자삼기

제자를 만드는 과정에는 시간과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 이를 빗겨갈 매뉴얼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지름길도 없다. 하지만 제자 삼는 사역은 보편적 사명이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선교적 교회의 제자훈련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한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교적 삶에 대해 도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존 제자훈련에서는 소수를 선발하여 제자훈련을 실시하지만 선교적 교회의 제자훈련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제자이므로 제자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전교인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시행한다. 제자를 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교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명령이며, 수직적, 수평적 차원에서 잘못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일차적 수단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sup>203</sup> 따라서 단순히 성도들을 특정한 목회적 사역을 위한 기능인을 만드는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할 줄 아는 인물을 키우는데 제자훈련의 의의가 있다.

제자 삼는 사역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다. 제자를 삼는 데는 특별한 훈련이나 비범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오직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덧입는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다. 제자를 삼기 위해 지정하신 방법들인,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은 단지 기독교 입문에 필요한 것들이 아니다. 또는 단지 회심이나 교회 개척을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 일들은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제자들과 제자 양성자들을 길러내는 영구적인 수단이다.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sup>203</sup> Waldron Scott, *사회정의와 세계선교를 향한 제자도* 191.

일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온전한 제자로 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동기와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제자 삼는 일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해야 될 일이다. 그러나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수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진리에 따라 살고 있으나 설명은 잘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책과 음성과 영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초기 양육을 하고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한다. 이끄미와 따르미가 함께 동영상 강의를 듣고 나누는 방식을 통해 제자를 삼는다.

주요 교재로는 *풍성한 삶의 기초*<sup>204</sup>, *사역의 기술*<sup>205</sup>, *일대일 제자양육*<sup>206</sup>, *Building a disciple culture*<sup>207</sup> 등이 있다.

#### 나. 사회적 책임 실천

선교적 교회의 목표는 교회의 본질 회복에 있고 그 본질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랑과 공의에 기초한다(시 89:14).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의 다스림 아래서 그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자이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함께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자답게 사랑과 공의에 기초하여 세상을 경영하며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상에 영향을 주며 변혁을 촉진하는 공동체가 된다.

따라서 선교적 제자훈련은 밖으로의 공동체성과 소그룹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한다. 교회의 공동체성이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경의 원리와 부합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제자훈련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그룹 안에서 형성된 공동체성은 소그룹과 교회 밖의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소그룹 구성원들의 사회생활에서는 새로운 규범의 실천이 이행되어야 한다. 교회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훈

<sup>204</sup> 김형국, *풍성한 삶의 기초*

<sup>205</sup> Leroy Eims, *제자삼는 사역의 기술*

<sup>206</sup> 온누리일대일양육사역팀, *일대일 제자양육* (서울: 두란노, 2018)

<sup>207</sup> Mike Breen, *Building a Discipling Culture*.

련된 제자라면 교회 밖에서도 교회의 권위에 지배받아 일반인들과는 다른 더 엄격한 도덕 기준을 따름으로써 일반인들의 삶의 양식과 차별성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소그룹의 ‘밖으로’ 공동체성은 교회 소그룹이 자체 내의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섭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우면서 시민 조직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인간관계를 계발하고, 지원 집단이나 공동 작업에 필요한 연결망을 발전시킬 수 있다. 소그룹을 통한 사회 봉사 및 사회 참여 활동도 전개한다. 지역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시민 공동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함께 일할 수 있다. 교회의 소그룹이 또 하나의 끼리끼리의 집단이 되지 않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의 구성원들이 사회성을 키우고 유지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가 주로 하는 일에서,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지역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불의한 구조와 시스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자연, 생태계에서, 우리 나라의 통일 문제, 전 세계적인 불의와 잔인함 등에서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한다.

구체적으로 행복한제자교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 수학, 영어, 중국어 무료 공부방 개설, 월 1 회 독거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환경, 도시빈민 등 다양한 분야에 구제와 봉사의 차원에서 접근한 체험교육, 해외 선교사 지원 및 방문하여 선교역량 훈련, 이웃초청 식탁교제, 지체부자유 어린이집 봉사활동, 새터민 여성 돕기 등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다. 리더십

제자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훈련가가 누구냐 하는 것이다. 제자훈련이 제대로 되려면 피훈련자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자격을 갖춘 제자훈련가가 있어야 한다.

제자는 결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제자도는 삶과 경험을 통해 체득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의 삶과 사역이 제자훈련의 핵심이다.<sup>208</sup> 지도자의 삶을 보고 제자는 자신이 보고 느낀 것들을 배우고 습득한다. 따라서 제자훈련에서 지도자의 삶과 리더십

<sup>208</sup> 이상훈, *리폼처치*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5), 214.

이 매우 중요하다.

선교적 교회는 단순히 교회 내부의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이다. 기존 제자훈련의 리더십은 힘과 권위로 일사분란하게 이끌던 하향식 리더십이지만 선교적 리더십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선교적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을 하며 삶의 터전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기존의 교회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나라로 성도들을 이끄는 견인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이제 논하는 ‘선교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기에 ‘선교적 리더십’의 롤모델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한 마디로 ‘성육신적’ 사역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평신도를 성육신 사건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표적과 증인으로 요구한다.<sup>209</sup>

선교적 리더는 세상 속에서 직접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사명으로 살게 하며 사역 보고를 통해 격려와 교정, 새로운 능력 부여가 일어날 공동체와 문화를 형성해 가도록 힘써야 된다. 그리고 지도자의 인격과 성품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항상 기억하고 자신의 성품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

주요 교재로는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sup>210</sup>, *지도자 평생 개발론*<sup>211</sup>, *영적 리더십*<sup>212</sup>, *처치 시프트*<sup>213</sup> 등이 있다.

<sup>209</sup> Darrell L. Gudder, *선교적 교회*, 275.

<sup>210</sup> Alan J. Roxburgh, Fred Romanuk,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 (The Missional Leader)*, 전석재 역 (서울: CLC, 2018)

<sup>211</sup> Clinton J. Robert, *지도자평생개발론 (Leadership)*, 장남혁, 황의정 역 (서울: 하늘기획, 2011)

<sup>212</sup> Henry Blackaby, *영적리더십 (Spiritual Leadership)*,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02)

<sup>213</sup> 이상훈, *처치 시프트*

#### 라. 단순한 생활양식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새로운 생활 양식을 가져야 한다. 제자훈련을 받고 난 제자들의 생활양식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대로 변해야 정상적이다. 그러나 기존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이 영역에서 구체적인 훈련이 없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현대에서는 검소한 생활을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고 또한 자기를 따른 자들에게 요구하셨던 단순한 생활 양식이 오늘날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회에서의 보편적인 생활양식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데이빗 왓슨이 그의 책 *제자도*<sup>214</sup> 마지막 장에 “단순한 생활양식”이란 장을 넣은 것을 보아도, “단순함”의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전체가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생활양식은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기 쉽다. 오늘날과 같이 물질주의적인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전통적으로 인정된 기본적인 경건생활뿐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사용하며 내가 먹는 음식이나 옷차림은 어떠해야 하느냐는 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왓슨이 그의 책 부록에 소개한 “단순한 생활 양식에 대한 복음주의적인 헌신”(1980년에 런던에서 복음주의자들이 단순한 생활양식을 주제로 모인 회의에서 채택한 선언문)에 나타난 결의는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제자도의 중요한 모습으로 훈련 되어야 한다.

주요 교재로는 *제자도*<sup>215</sup>, *영성훈련*<sup>216</sup> 등이 주로 사용된다.

#### 마. 성품훈련

선교적 제자훈련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 전달 위주의 학습 방식에서 벗어나 전인격적 변화와 삶에서의 실천을 훈련한다. 선교적인 제자도가 강조하는 것은 제자의 성품이다. 기존 제자훈련의 교재를 보면, 암기와 지식 전달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신앙관을 정립하고 기독교적 사고를 계발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정해진 과정을

<sup>214</sup> David Watson, *제자도 (Discipleship)*.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2012

<sup>215</sup> Ibid.

<sup>216</sup> Dallas Willard, *영성훈련 (The Spirit of the Discipleship)*, 엄성욱 역 (서울: 은성, 2008)

습득하는데 치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기존의 제자훈련은 주로 사역 위주였다고 할 수 있다. 교회는 사역자를 세우는 데 치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인격의 변화에 소홀히 한 것이다. 선교적 교회의 제자도는 그 최종적 목표를 인격적 변화와 실천적 삶의 구현에서 찾는다. 학습 방식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지식의 적용 및 실천을 중시하는 제자훈련이 되도록 한다. 한 사람의 성품을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완전히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한 것은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자기의 성품을 소개하면서 그 성품을 배우라고 하신 것을(마 11:28-29)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제자훈련이 제자의 성품에 관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훈련은 단순히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생활 가운데서 실제로 훈련이 되어야 한다. 사랑의 훈련, 겸손과 봉사의 훈련, 인내의 훈련 등을 통해서 이러한 성품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제자훈련이 제대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형적인 제자훈련 프로그램 보다는 멘토링, 생활훈련관 훈련 등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필자의 경우에는 멘토링이 성품 계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일하면서 효율적인 사역 기술을 전해 줄 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인격을 형성시켜 주는 일도 함께 행하였다(딤후 2:1-2). 이끄미는 자신이 어떻게 성장 과정을 통과해서 균형 잡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보여 주면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에는 이끄미가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였으며 어떻게 자신의 장점을 발전시켰는지를 알리는 일도 포함된다. 이끄미는 따르미와 함께 교체해 나갈 때, 그의 필요를 살피고, 어떤 영역에서 성품계발의 필요가 보일 때, 그 영역을 계발시켜 줄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를 만들어서 개인 교체시에 나누어 주고 계속해서 그 영역에서 진보를 보일 수 있도록 점검해 주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

주요 교재로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sup>217</sup>을 사용하는데, 이 책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즉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책 뒤에는 성경 공부 교재가 첨부되어 있어서 유익하다.

<sup>217</sup> Jerry Bridges, *경건에 이르는 연습 (The Practice of Godliness)* (서울: 네비게이트, 2003)

## 바. 일상의 제자훈련

교육과 훈련이 일상의 삶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격려한다. 즉 성도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적 제자훈련은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하고 격려한다. 오늘날 일요일 아침 교회는 우리 세대를 전도할 수 없는 장소 가운데 하나다. 우리가 그들이 있는 그리고 그들이 편하게 느끼는 교회 밖 그들의 영역으로 나가서 그들과 연결되지 않는 한, 잃어버린 영혼들은 일요일 아침 예배에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상의 삶이라는 상황에서 교회와 선교를 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를 삶, 그야말로 평범한 삶을 나누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생각해야 한다. 선교의 기반도 평범한 삶이어야 한다. 이것이 일상 선교를 하는 일상 교회다.<sup>218</sup>

그리고 우리의 일상, 즉 매일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곧 예배다(롬 12:1-2). 우리 일상이 하나님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선교적 제자훈련에서는 일상의 제자훈련이 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격려한다.

주요 교재로는“*일상 교회*<sup>219</sup>가 있는데, 저자는 우리 소명은 일상 생활에서 선교하는 일상의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며 선교적 사고가 일상사가 되도록 강조하고 선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 아니라 즉 뭔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선교하는 일상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야기 한다.

## 사. 선교 교육

선교적 교회는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선교훈련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는 본질적인 접근을 향한 이론체계를 수립하고, 다양한 환경 및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훈련이 병행되도록 한다. 넓게는 ‘전문성’까지 갖추어야 할 것이다.

선교 교육은 선교의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타문화권에 미전도종족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한다. 타문화권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습, 문화, 그리고 영

<sup>218</sup> Tim Chester, Steve Timmis, *일상교회* (Everyday Church), 신대현 역 (서울: IVP, 2015), 44.

<sup>219</sup> Ibid.



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시키며 선교 현지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요청 받고 있는 사역의 종류들과 그에 따른 선교사의 필요한 자질과 선교사 훈련 등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위해 성경적 교회론을 통하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선교임을 역설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내의 선교학교 운영이나 ‘선교 주간, 달’에 정기적인 설교나 ‘선교헌신예배’를 통한 선교의 중요성 고취, ‘선교 프로그램 활동’, ‘선교를 위한 헌금’, ‘선교를 위한 기도회’, ‘선교사 초청 선교 대회’ 등을 통하여 평신도들에게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며, 선교의 기본적인 이해를 복돋아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인 헌신 선언문’, ‘사명선언문’, ‘비전 선언문’ 등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적 비전과 사명을 담아 제시해야 하고, 교회의 조직을 적극적으로 선교조직으로 네트워크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복한제자교회의 선교이론 훈련은 다음과 같다. 선교학개론, 한국선교역사, 세계선교역사, 선교와 문화,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선교의 성서적 기초, 지역교회와 선교참여, 에큐메니컬 선교운동, 평신도와 선교, 총회선교행정, 선교현장방문, 총회선교정책과 전략, 선교와 교회성장, 선교와 공적책임, 선교의 통전적 신학 등 다양한 이론적 체계를 제시하므로 교회의 향존적 가치를 비롯해서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선교의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러한 선교훈련은 이론적 기초를 통해 선교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다양한 선교실천훈련으로 이어진다. 실천훈련은 교회학교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선교훈련을 세분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요 교재로는 *선교학 개론*<sup>220</sup>이 사용되며, 특히 선교학교는 선교에 대한 분명하고 체계적인 이해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개인과 교회의 선교 사역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계 선교의 흐름과 현황을 파악하고, 선교적 교회, 선교학 개론 등 선교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것으로 해야 한다. 선교사 초청 만남으로 선교현장의 선교 사역에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각종 시청각 자료도 활용하여 선교현장의 이해를 돕는 내용과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sup>220</sup> 한국선교신학회, *선교학 개론* (서울: 대학기독서회, 2017)

### 아. 홈트레이닝

사역훈련에서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살며 소그룹(팀)의 인도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므로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홈트레이닝은 교회 담임 목사 가정(홈)을 활용한 사역으로 주로 미혼 형제 자매들을 가정에 초청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훈련 과정이다. 홈트레이닝의 대상은 주로 팀이나 그룹을 맡고 있고, 앞으로 지도자로 세울 미혼 형제 자매들을 대상으로 성품을 훈련하고 사역 기술을 배우게 한다. 서로 관찰을 통해서 필요를 발견하고 섬기며 평가한다. 형제나 자매가 맡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담임 목사와 팀웍으로 일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이 담임 목사 부부의 삶을 관찰하고 같은 비전을 가지도록 돕고 크리스찬 가정을 미리 경험하도록 돕는다. 홈에서의 훈련은 상담이나 성경 공부 보다는 청소 등 섬기는 삶을 훈련하는 일에 가치를 둔다. 금요일 저녁에는 초신자를 함께 데려 와서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서 즐겁게 게임이나 운동을 하면서 토요일 오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 자. 생활훈련

생활훈련관 훈련은 시편 133 편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운고”라는 고백을 기초로 한다. 대부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3 개월, 6 개월 등 단기간에 이루어지는데, 제자된 삶은 단기간이 아니라 인생에 걸친 여정이다. 전인의 성숙과 진정한 공동체의 완성을 위해 요청되는 더욱 적절한 훈련의 환경이 있다면, 그것은 긴 시간 함께 살며 서로에게 훈련 받는 주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혼 형제 자매들을 위한 공동체 생활훈련관을 운영하는 것이다. 교회의 비용으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전세를 얻어 성도들로 하여금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한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공동체적인 의식과 훈련을 통해 신앙을 세워가도록 돕는다. 생활훈련관은 일단 훈련의 진정성을 감별할 수 있고, 훈련자와 피훈련자 간 일상의 공유에서 오는 명실공히 ‘도제식’ 본 보이기, 본받기 훈련이 된다. 생활훈련관 삶은 훈련된 리더가 인도하고 생활훈련관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계발, 성품 계발(잠 27:17), Team Work 계발, 세상적 영향으로부터의 보호, Leadership 계발 등이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신앙도 훈련받고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다.

### 차. 그리스도인의 직장생활

기독교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한다(요 5:17).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노동하는 존재, ‘노동자’로 부름 받았다. 기독교는 노동이 신성하다고 이야기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을 찾아서 살아가야 한다. 선교적 제자훈련에서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이 일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찾아가도록 도와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며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점점 선명하게 알아가게 됨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매일 근무하는 직장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직장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 기존 제자훈련에서는 전도의 동기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강조했다. 그러나 선교적 제자훈련에서는 직장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성육신적 삶을 사는 것이다.

직장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자기 일을 탁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 줄 수가 있고, 그와 더욱 친밀해 질 수 있다. 다음으로 섬기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늘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옆의 동료가 무엇인가를 도와 달라고 부탁했을 때,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한다. 자신의 업무도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돕기가 싶지 않지만, 시간을 내어서 도와 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한 가지를 도와 달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도와 주었을 때 사람들은 감동한다. 그러나 직장 생활에서 한번 다투거나 화를 내게 되면, 관계나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오래 참고 억울한 일은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나누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 차원에서 선배 직장인과의 만남 등을 주기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직장생활과 그리스도인*<sup>221</sup>이라는 책을 가지고 만날 때 마다 한 과씩 읽고 나눔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인으로서의 삶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조화시키며, 직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성서적으로 해결하며, 나아가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지로 삼아 어떻게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실제적인 주제들을 다루어 줄 수 있다.

직장에서의 사역을 위해서는 먼저 함께 기도할 한 사람을 찾도록 한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만나서 소속 회사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직장 동료들의 구원을 위해서, 직장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1 주에 한 번 또는 2 주에 한 번 회의실 등 조용한 장소를 정해서 모임을 가진다. 이 모임에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비그리스도인 동료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이벤트 등 기회를 만든다. 직장에 신우회 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개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요 교재로는 *직장생활과 그리스도인*<sup>222</sup>, *일과 영성*<sup>223</sup> 선교적 교회 시리즈 40 등이 있는데, 선교적 교회 시리즈 40 은 기독교연합신문에 연재된 송기태 선교사의 칼럼<sup>224</sup>으로 선교적 제자들의 직장생활에 필요한 교훈들을 다루고 있는데, ‘직장생활의 거듭남’, ‘회사의 술 문화’, ‘까다로운 상사와의 관계’, ‘직업 윤리’ 등에 대해서 매우 유익한 교훈을 준다.

---

<sup>221</sup> E.M. Houtz, *직장생활과 그리스도인 (Desktop Devotions)* (서울: 네비게이트출판사, 1990)

<sup>222</sup> Ibid.

<sup>223</sup> Timothy Keller, *일과 영성*

<sup>224</sup>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4&sc\\_sub\\_section\\_code=S2N21&sc\\_serial\\_code=SRN30](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4&sc_sub_section_code=S2N21&sc_serial_code=SRN30)

## 제 6 장 결 론

본 논문은 한국 교회 제자훈련이 한국교회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근래에 와서 비판을 받고 있고 참된 제자를 양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필자는 지금까지 선교적 교회론에 기초한 선교적 제자훈련이 현재의 정체된 한국 교회의 제자훈련의 한계와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살펴 보았고, 선교적 제자훈련의 실제적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 장에서는 앞서의 연구를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고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 제 1 절 논문의 요약

본 논문은 선교적 제자훈련이 기존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문제점이나 한계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선교적 제자도에 기초한 사역 원리 및 실제적인 선교적 제자훈련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1 장에서는 서론으로 본 연구의 동기와 목적을 서술하고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정하여 본 연구의 중요성을 다루었다.

제 2 장에서는 한국 교회 제자훈련의 태동과 발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제자훈련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1960년대 네비게이트 선교회를 필두로 시작된 제자훈련은 1970 년대에 대학생선교회(CCC, Campus Crusade for Christ), 대학생성경읽기(UBF, University Bible Fellowship), 기독학생회(IVF, Inter-Varsity Fellowship), 조이선교회(JOY Mission) 등이 함께하였고 또 이들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나 교재들이 더욱 보완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서 활용되

어 대학가의 제자훈련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갔다. 1980년대 초에 이르러 대학생 선교단체 출신의 목회자들이 목회의 길에 뛰어들면서 선교단체에서 배웠던 것을 지역교회에 적용하면서부터 한국교회 제자훈련이 대중화 되기 시작했고 특히 사랑의 교회 옥한흠 목사는 선교단체 제자훈련의 핵심원리와 경험을 수용하면서도 지역 교회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교회에 널리 보급하였다. 이러한 제자훈련은 평신도를 재발견하여 사도의 사역을 계승한 소명자임을 일깨워 능동적으로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한국 교회의 건강한 자양분 역할을 하였다. 긍정적인 성과와 더불어 제자훈련의 문제점과 한계도 분명하게 드러내었는데, 프로그램 중심적 제자훈련, 공동체성의 문제, 양적 성장에 치우침, 편향된 제자도와 신앙의 사사화 등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제 3 장에서는 선교적 제자훈련이 기존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문제점이나 한계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선교적 제자도에 기초한 사역 원리를 제시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론과 선교적 제자훈련에 대해서 논하였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하시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현존과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세상에 보냄 받는 공동체로서 성육신적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종말론적 공동체이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론에 기초한 선교적 제자훈련은 기존 제자훈련의 이원론적 영성, 편향된 제자도, 개인주의적 신앙생활 등을 극복하고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기존 제자훈련의 과정이나 내용, 관심사 등에 새로운 안목을 가져다 주었다. 이에 따라 제자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 즉 선교적 제자훈련의 목적, 선교적 제자훈련의 주요 특징, 선교적 제자훈련의 원리와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제자훈련이 체계적으로 잘 실행되고 있는 대표적 교회들의 사례를 연구하여 3 장에서 정리된 선교적 제자훈련과 비교 분석하고 각각의 교회 제자훈련이 갖고 있는 장단점들을 정리하였다. 사례 연구는 선교단체를 통해 소개된 제자훈련 개념을 지역교회에 처음으로 접목하고 정착시킨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대표적인 교회인 사랑의 교회와 2001년에 하나님나라 복음에 기초해서 교회를 개척하여 도시의 중심인 상업지역에서 선교적 교회를 실현하고 있는 나들목교회 그리고 필자가 담임 목회하고 있는 행복한제자교회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례연구는 각 교회의 목회 철학, 제자훈련의 목적과 내용,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중에서 나들목교회의 장점인 “녹음, 녹화 영상으로 만들어진 제자훈련 프로그램”과 “예배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안팎의 변혁 프로그램”을 5 장의 선교적 제자훈련의 실제적 방안에 반영하였다.

5 장에서는 3 장의 선교적 교회론에 입각한 선교적 제자훈련에 대한 이론 연구와 4 장의 사례 연구의 결과로서, 구체적인 선교적 제자훈련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기존 행복한제자교회 제자훈련의 기본원리와 방법들을 기초로 하여 신학적인 맹점이나 선교적 제자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생긴 결점들을 보완한 것으로 제자도의 폭이나 제자훈련의 영역이나 방법이 좀더 포괄적으로 된 선교적 제자 훈련의 실제적 방안을 정립하였다.

각 단계의 제자훈련 과정에서 선교적 제자훈련을 실시 할 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주요 훈련 항목 중심으로 선교적 제자훈련의 실제적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하나님 나라 관점을 회복하고자 하는 선교적 교회론의 개념과 원리를 제자훈련의 내용과 과정 안에 수용한 것이다.

기초양육에서는 전도성경공부, 구원의 확신 항목을 다루었고, 제자훈련에서는 훈련의 자세, 일대일 양육, 그리스도의 주재권, 성경읽기, 성경공부, 기도, 교제, 복음전파와 전도훈련, 큐티훈련, 예배훈련, 세계비전 항목을 다루었다. 그리고 사역훈련에서는 제자삼기, 사회적 책임 실천, 리더십, 단순한 생활양식, 성품개발, 일상의 제자훈련, 선교교육, 홈트레이닝, 생활훈련관, 그리스도인의 직장생활 항목을 다루어 그리스도가 원하는 제자의 삶을 현재 우리의 사회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훈련이 되도록 하였다.

## 제 2 절 논문의 의의와 과제

제자훈련이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시고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 전략이었지만 그동안 한국 교회의 부족함으로 인해 배척과 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기존 제자훈련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공적 제자도를 실천하도록 하는 선교적 제자훈련의 실제적 방안을 마련하게 되어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각 단계별 선교적 제자훈련 과정에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다루었지만 이밖에도 제자훈련의 방향이나 과정에서 선교적 제자훈련 관점으로 새롭게 정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제자훈련을 단순히 새롭게 변형시키는 것이라기보다 앞으로 제자훈련의 목적과 방향을 예수께서 하셨던 대로 회복하자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기존의 가르침이나 훈련내용을 과감히 수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대행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이루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제자를 훈련하는 목표나 과정을 정하는데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제자훈련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이 있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했던 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선교적인 제자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문서적

- 고용수. “제자훈련 사역의 기독교교육적 성찰.” *교육교회*, 1993.
- 국제제자훈련원. *교회와 제자훈련*.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 김경재. *해석학과 종교 신학*. 서울: 한국 신학 연구소, 1994.
- 김근주. *나를 넘어서는 성경읽기*. 서울: 성서유니온, 2018.
- 김기현. *한국교회의 예배와 생활*. 서울: 양서각, 1984.
- 김동건. *김동건의 신학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 김득룡. *현대교회 예배학 신강*.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5.
- 김선일. *전도 가이드*. 서울: 도서출판 새세대, 2012.
- \_\_\_\_\_. *전도의 유산*. 서울: SFC, 2016.
-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5.
- 김영철. *한국기독교 청년학생운동사*. 서울: 기독학생회 출판부, 1993.
- 김형국. *교회를 꿈꾼다*. 파주: 비아토르, 2018.
- \_\_\_\_\_. *주기도문*. 서울: 조이선교회, 2017.
- \_\_\_\_\_.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방식*. 파주: 비아토르, 2017.
- \_\_\_\_\_. *풍성한 삶의 기초*. 파주: 비아토르, 2018.
- \_\_\_\_\_. *풍성한 삶의 기초 워크북*. 파주: 비아토르, 2018.
- \_\_\_\_\_. *풍성한 삶의 첫걸음*. 파주: 비아토르, 2018.
- \_\_\_\_\_.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파주: 비아토르, 2017.
- 김회권. “옥한흠 목사(1938-2010)의 하늘 길 묵상.” *복음과 상황*. 2010년 9월호  
네비게이토선교회. *경건한 생활 관리*. 서울: 네비게이토, 2018.
- 박순용.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 방동섭. “21세기 현대교회의 위기와 선교적 교회론.” *성경과 신학*. 2003년 1월호

- 방선기. *제자훈련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7.
- 송인규.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 *한국교회제자훈련 전망보고서*. 서울: IVP, 2016.
- 옥한흠. *사역훈련: 성령, 새 생활의 열쇠*.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 \_\_\_\_\_. *사역훈련II: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 \_\_\_\_\_. *사역훈련III: 소그룹 환경과 리더쉽*.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 \_\_\_\_\_. *제자훈련 I: 제자훈련의 터다지기*.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6.
- \_\_\_\_\_. *제자훈련 II: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6.
- \_\_\_\_\_. *제자훈련III, 작은 예수가 되라*.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 \_\_\_\_\_.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 \_\_\_\_\_. “옥한흠 목사가 목사에게.. 은보, 2013.
- 온누리일대일양육사역팀. *일대일 제자양육*. 서울: 두란노, 2018.
- 이대헌. “선교적 교회론의 한국적 적용.” *현대선교 14 호* 한국선교정보연구원, 2012.
- 이상훈. *처치 시프트*. 서울: 위십리더, 2017.
- \_\_\_\_\_. *리폼처치*.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5.
- \_\_\_\_\_. “하나님 백성의 선교적 사명과 책무”, *선교신학 제36 권* 2014.
- 이종필. *구약 관통*. 서울: 넥서스 CROSS, 2017.
- \_\_\_\_\_. *복음적 삶의 기초*. 서울: 목양, 2018.
- \_\_\_\_\_. *신약 관통*. 서울: 넥서스 CROSS, 2017.
- \_\_\_\_\_. *하나님나라 제자훈련*. 서울: 목양, 2016.
- 이후천. *현대 선교학의 이슈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정승현. “선교적 교회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선교적교회론과 한국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 최형근.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 3 월호* 2013.
- \_\_\_\_\_. “선교적 교회의 태동과 발전, 그리고 한국적 적용에 관한 소고.” *현대선교 14 호* 한국선교정보연구원, 2012.
- 하진승. *영적 재생산*. 서울: 네비게이토, 2005.

- 한국교회탐구센터 편집. *한국교회제자훈련미래전망보고서*. 서울: IVP, 2016.
- 한국네비게이토선교회.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 서울: 네비게이토출판사, 1994.
- \_\_\_\_\_. *인간과 하나님*. 서울: 네비게이토출판사, 2004.
- 한국선교신학회. *선교학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 한국일. *선교적 교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6.
- \_\_\_\_\_. *세계를 품는 교회: 통전적 선교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0.
- \_\_\_\_\_. “한국적 상황에서 본 선교적 교회.” *선교와신학* 30 호 2012.
- 허남기, “한국 교회 제자훈련의 현황과 문제점.” *교육교회* 203 호 1993.

## 2. 번역서적

- Arthur, Kay. *귀납적 성경연구 방법 (How to Study Your Bible)*. 김경순, 최순복 역. 서울: 조이 출판사, 1987.
- Bassham, Rodger C. 세계를 위한 교회. 개교회의 선교구조 연구보고서 (“The Church for Others and The Church for The World. A Quest for Structure for Missionary Congregation”), *Mission Theology*.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 Blauw, Johannes. *교회의 선교적 본질 (The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 전재욱, 전호진, 송용조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8.
- Bowater, Chrisa A.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The Believer's Guide to Worship)*. 정규운 역. 서울: 하늘사다리, 1997.
- Bridges, Jerry. *경건에 이르는 연습 (The Practice of Godliness)*. 서울: 네비게이토출판사, 2003.
- Chester, Tim and Steve Timmis. *일상교회 (Everyday Church)*. 신대현 역. 서울: IVP, 2015.
- Coleman, Robert E. *주님의 전도계획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 \_\_\_\_\_. *천상의 노래 (Songs of Heaven)*. 석창우 역. 서울: 두란노, 2000.
- Cosgrove, Jr., Francis M. *제자의 삶 (Essentials Of Discipleship)*. 서울: 네비게이토출판사, 1989.

- Dodson, Jonathan K. *복음 중심의 제자도 (Gospel-Centered Discipleship)*. 전의우 역. 서울: 국제 제자훈련원, 2013.
- Eims, Leroy. *제자삼는 사역의기술 (The Lost Art of Disciple Making)*.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81.
- Flemming, Dean. *신약을 선교적으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 (Why Mission?)*. 한화룡 역. 서울: 대서, 2017.
- Fleming, Jean. *Quiet Time 으로의 초대 (Feeding your soul)*. 서울: 네비게이토출판사, 2002.
- Frost, Michael and Alan Hirsch. *새로운 교회가 온다 (The Shaping of Things to Come)*. 지성근 역. 서울: IVP, 2011.
- Gelder, Craig Van. *선교하는 교회 만들기 (The Essence of The Church)*. 최동규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3.
- Gelder, Craig Van and Dwight J. Zscheile.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최동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 Gudder, Darrell L.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 정승현 역. 서울: 주안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6.
- Hammond, Kim and Darren Cronshaw. *보냄받음 (Sentness-Six postures of missional Church)*. 황병배, 이근수 역. 서울: 한국교회선교연구소, 2015.
- Henrichsen, Walter A. *평신도 성경해석 지침 (A layman's guide to interpreting the Bible)*.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 Horton, Michael. *위대한 사명 (The Gospel Commission)*. 서울: 복있는 사람, 2012.
- Houtz, E. M. *직장생활과 그리스도인 (Desktop Devotions)*. 서울: 네비게이토출판사, 1990.
- Hull, Bill. *은전한 제자도 (The complete Book of Discipleship)*. 박규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 Keller, Timothy. *일과 영성 (Faith & Work)*. 최종훈 옮김. 서울: 두란노, 2016.
- Küng, Hans. *교회 (Die Kirche)*. 정지련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
- Ladd, George Elden. *하나님 나라의 복음 (The Gospel of Kingdom)*. 박미가 역. 서울: 서로사랑, 2001.
- MacArthur Jr., John F. *참된무릎꿇음 (The Gospel to According to Jesus)*. 한동수 역. 서울: 살림, 2008.

- McGavran, Donald A. *하나님의 선교전략 (The Bridges of God)*. 이광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Merton, Thomas. *마음의 기도 (Contemplative Prayer)*. 이영식 역. 서울: 성바오로, 2011.
- Munger, Robert Boyd. *내마음그리스도의 집 (My heart Christ's home)*. 신은재 역. 서울: IVP, 2004.
- Murray, Andrew. *사역과제자도 (Working for God)*. 임은묵 역. 서울: 샘솟는기쁨, 2018.
- Newbigin, Lesslie. *교회란 무엇인가? (The Household of God)*. 홍병룡 역. 서울: IVP, 2010.
- Nichols, Stephen J. *본회퍼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Bonhoeffer on the Christian life: From the Cross)*.
- Ortiz, Juan Carlos. *제자입니까? (Disciple)*. 김성웅 역. 서울: 두란도, 1989.
- Piper, John. *예수님의 지상명령 (What Jesus Demands from The World)*. 전의우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 Platt, David. *래디컬 (Radical Together)*.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 2012.
- Poster, Bob. *불타는 세계비전 (The Navigator)*. 서울: 네비게이토출판사, 2009.
- Robert, Clinton J. *지도자 평생개발론 (Leadership)*. 장남혁, 황의정 역. 서울: 하늘기획, 2011.
- Robertson, Roy,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의 길 (The Road to Discipleship)*.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97.
- Roxburgh, Alan J. and Fred Romanuk. *선교적 교회의 리더십 (The Missional Leader)*. 전석재 역. 서울: CLC, 2018.
- Sanders, Oswald J. *제자, 거룩한 열정으로서의 부르심 (Spiritual Discipleship)*. 채슬기 역. 서울: 하늘사다리, 1997.
- Scott, Waldron. *사회정의와 세계선교를 향한 제자도 (Bring Forth Justice)*. 강선규 역. 서울: 두란노, 1997.
- Sider, Ronald J. *복음전도와 사회운동 (Good News and Good Works)*. 이상원, 박현국 역. 서울: CLC, 2013.
- Sine, Tom. *하나님 나라 제자도 (Taking Discipleship seriously)*. 주순희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5.
- Skinner, Betty. *도슨 트로트맨 (The Story of Dawson Trotoman)*. 서울: 네비게이토, 2006.

- Smith, James K.A. *습관이 영성이다 (You are when you love)*. 박세혁 역. 과주: 비아토르, 2018.
- Wallis, Jim. *회심 (The Call To Conversion)*. 정모세 역. 서울: IVP, 2016.
- Watson, David. *제자도 (Discipleship)*.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2012.
- Wilkins, Michael J. *제자도 신학 (Following the Master)*. 황영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5.
- For the World*). 김광남 역. 서울: 아바서원, 2014.
- Willard, Dallas. *잊혀진 제자도 (The Great Mission)*.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15.
- White, Jerry. *그리스도의 주재권 (Choosing Plan A in A Plan B World)*. 서울: 네비게이토출판사, 1992.

### 3. 외국서적

- Breen, Mike. *Building a Disciple Culture*. Pawleys Island: 3DM Publishing, 2017.
- Breen, Mike and Steve Cockram. *Building a Discipling Culture, 3rd Edition*. Pawleys Island: 3DM, 2011.
- Davidson, Robert, M. A. *Wisdom and Worship*. London: SCM Press; Philadelph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0.
- Elton, Terri Martinson. “Characteristics of Congregations That Empower Missional Leadership”, in *The Missional Church & Leadership Formation*. Edited by Graig Van Gelder.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9.
- Frost, Michael and Alan Hirsch. *Rejesus*.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9.
- Gibs, Eddie. *Churchmorph: How Megatrends are Reshaping Christian Communiti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 Hodges, Randy T. *A Call to Worship*. Nashville: Beacon Hill Press, 1997.
- Newbigin, Lesslie. *The Finality of Christ*. London: SCM Press, 1969.
- Putman, David. *Breaking the Discipleship Code*.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08.
- Roxburgh, Alan J. and Fred Romanuk. *The Missional Leader*. San Francisco: Jossey-Bass, 2006.
- Schalk, C. ed. *Key words in Music*. St. Louis: Publishing House, 1978.

**Vita of  
Hyun Ki Lee**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Happy disciple Church, Ulsan

Personal Data:

Birth Date: June 18, 1964  
Marital Status: Married to Suk Hee Kim with Two Children;  
Eun Jin and Eun Chan  
Home Address: 81, Daeam-ro, Nam-gu, Ulsan, Republic of Korea  
Phones: 052-265- 2217  
Denomination: World Evangelical Mission Alliance  
Ordained: June 1, 2013

Education:

B. A. Donga University, Pusan, 1989  
M.A. Uls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01  
M. Div. World Mission University, Los Angeles, 2013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9

Personal Experience:

2013 to present: Senior Pastor  
of Happy Disciple Church, Ulsan  
1993 to 2012: Team Leader  
of Korean Navigators, Seoul